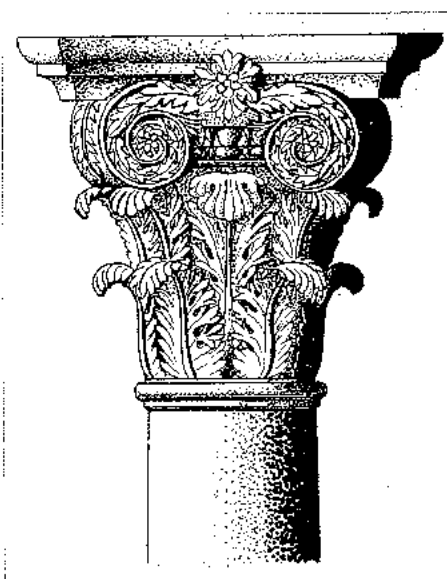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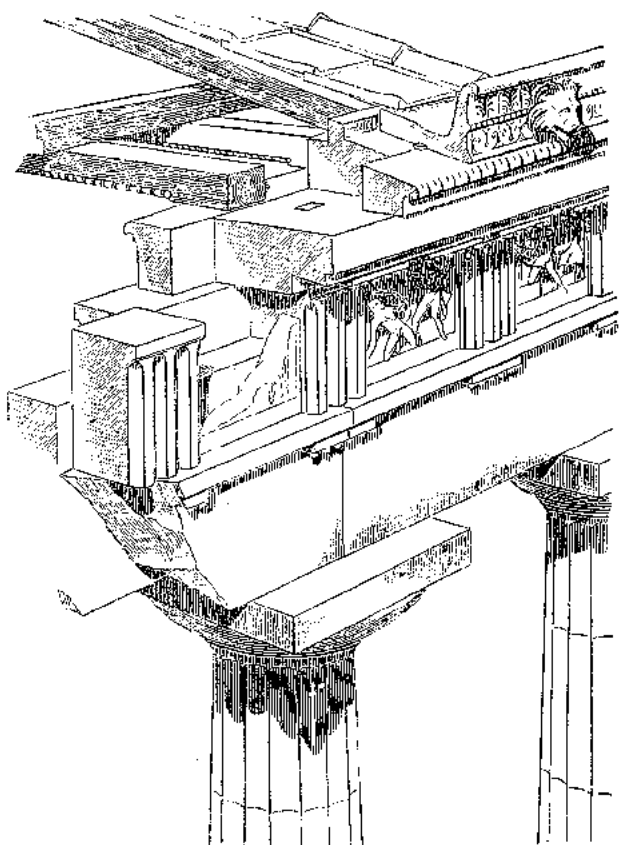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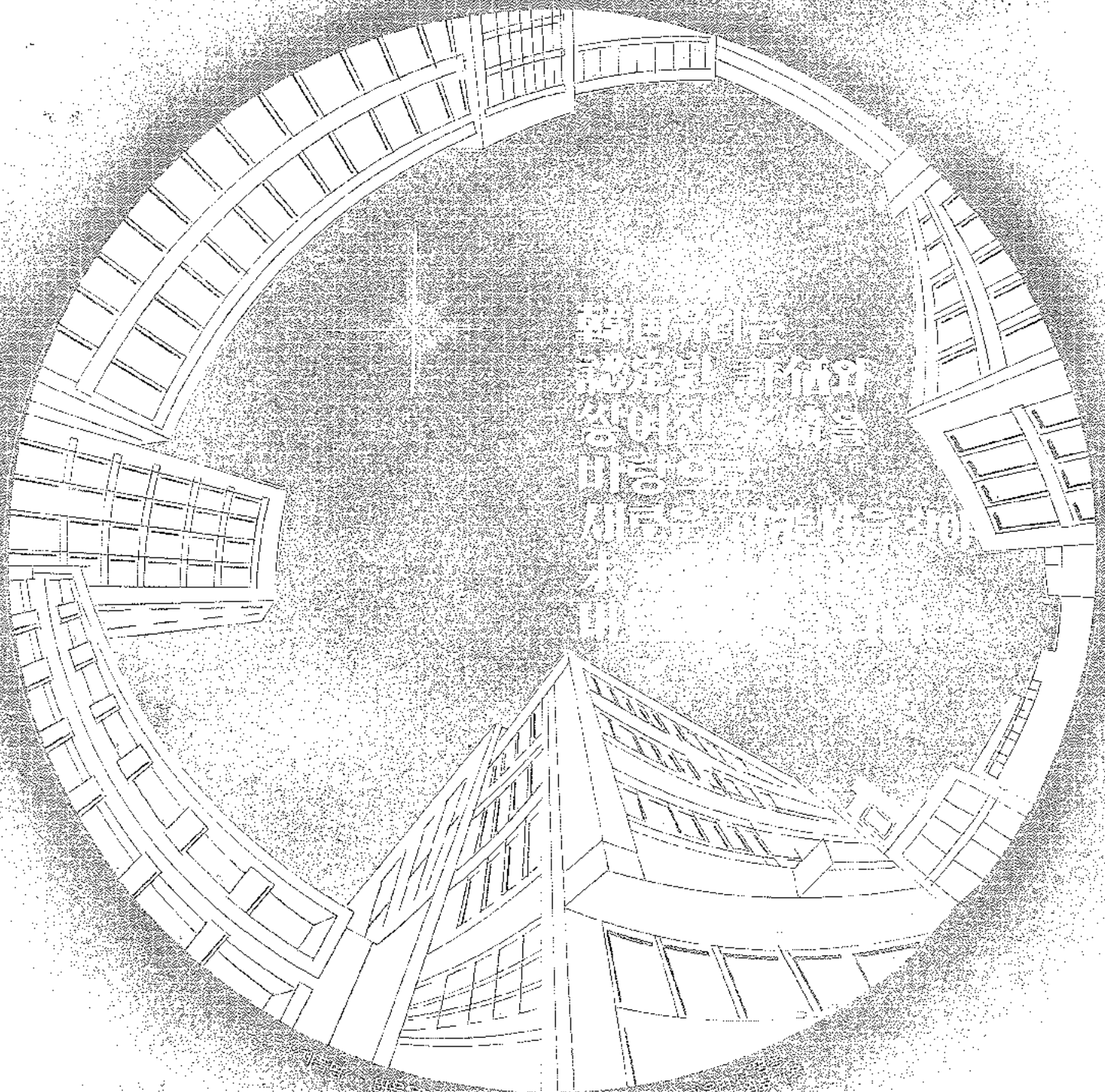
登録日字：1967年 3月 23日 登録番号 제 라-1251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5年 1月 15日 毎月 1回発行 通巻 第 72号

'75 1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아름다운 빛의선율.....



韓國유리는
 認定된 品質과
 상여잔 美觀을
 바탕으로
 새로운 建築을 창조
 美觀을 창조
 美觀을 창조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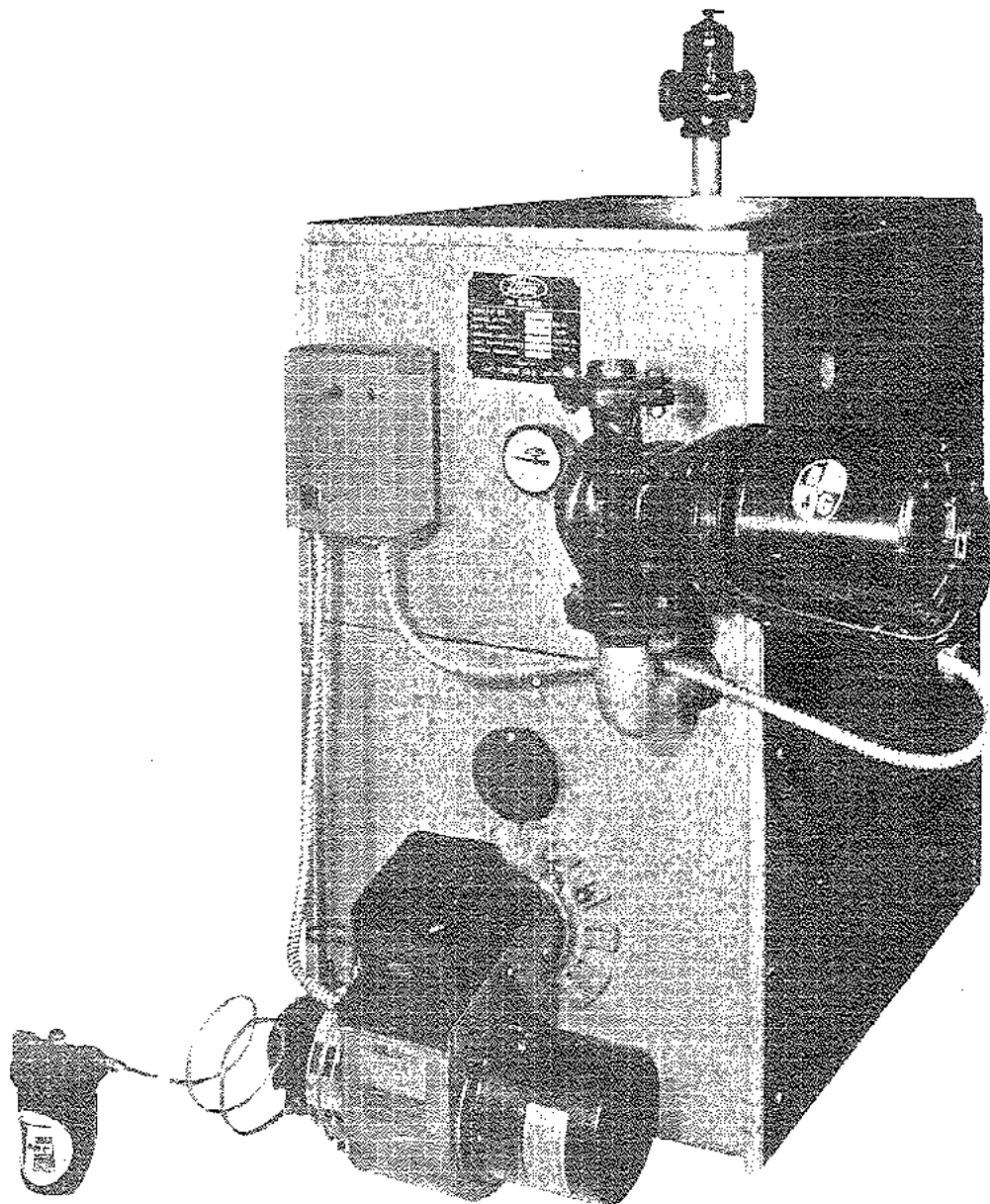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20호 2층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20호 2층)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20호 2층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20호 2층)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20호 2층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20호 2층)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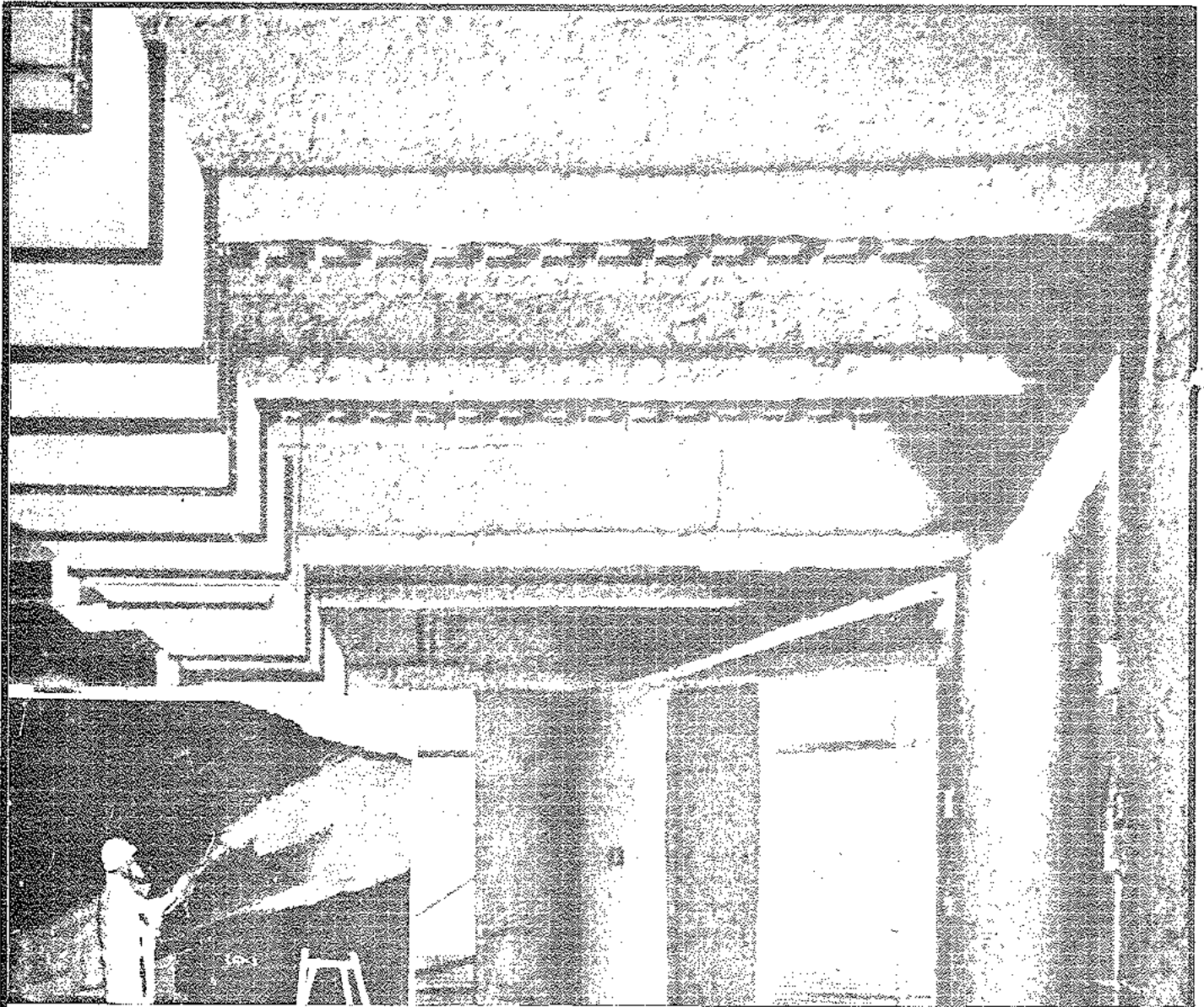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
제품



유티카商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의1號
進洋商街 라 102號

TEL. 26-2026, 2807



耐火被覆材 스프레이코트 개발!

스프레이코트는 石棉을 수원으로 하여 無機質 結着材를 배합 사용하는 吹付材로 다음과 같이 사용 됩니다.

耐火被覆用	두께 mm 20~60	鉄骨柱, 鉄骨梁, 外壁, 지붕 天井의 耐火, 보일러의 断熱.
內裝用	5~20	강당, 사무실, 목욕탕 및 공장 내부의 吸音, 단열 및 防露

시공상 利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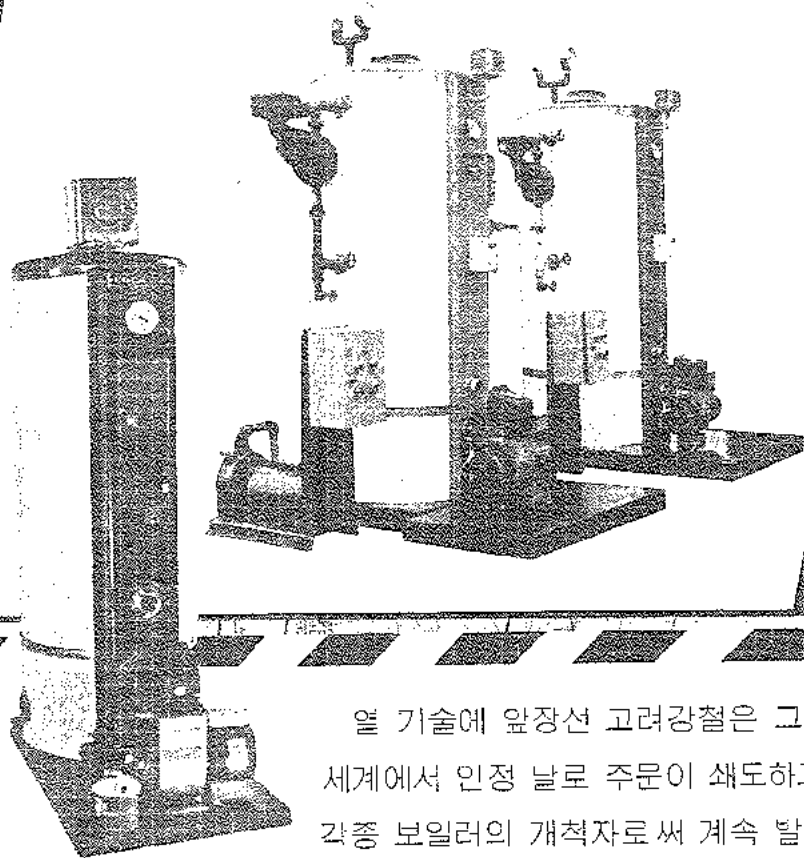
- ◎ 철골, 콘크리트, 벽돌, 목재등 全材에 適用됩니다.
- ◎ 평면, 굴, 양볼, 곡면등 全이 適用되도 可합니다.
- ◎ 가볍고 透氣력이 강해 結構에 의한 損傷이 없습니다.
- ◎ 시공기간을 단축하며 工價를 自由로 調整합니다.

영 업 안 내

- 스틸도아, 샷시, 샷터
- 경량 철골 천정
- 이동식 철재 칸막이
- 아스칼보드 칸막이
- 철골(트라스)
- 알루미늄도아·샷시

한 국 건 업 주 식 회 사 특 수 사 업 부

서울 중구 서문1가48 ☎ 2141~5 ☎ 8565



열 기술에 앞장선 고려강철은 그 품질을 세계에서 인정 날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일러의 개척자로써 계속 발판을 굳히고 다. 여러분의 기업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로켓트 보일러	산업용 전자동 증기보일러
로켓트 연탄보일러	전기온수 및 난방기

◎ 특성표 (SPECIFICATIONS)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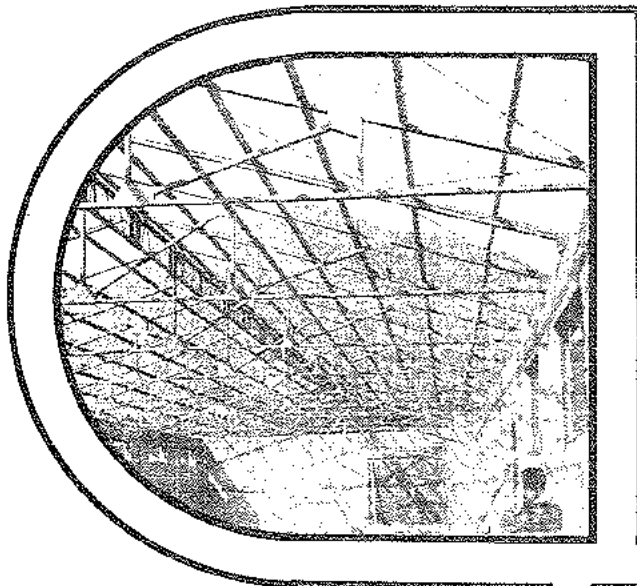
출전 사 장: 중부 을사문 4거 세운상가 1100 가열 167호

※ 상담 예약 접수 : ☎ 26-1135 ~ 6, 27-9358, 66-1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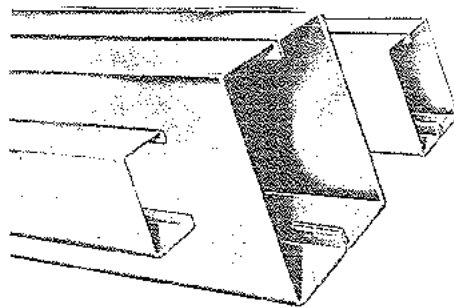
有美

의 경량형강 (LIGHT GAGE)

여러분의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익을 드리는 有美工業(株)!



■ C형 경량 앵글(LIGHT G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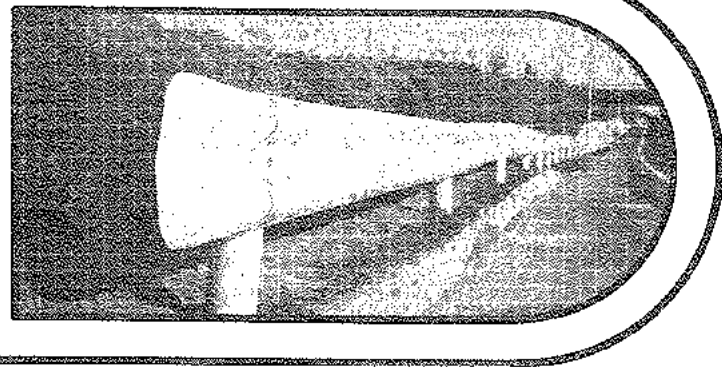


* C형 앵글의 용도

- 공장건물
- 조선시설
- 기계설비
- 각종창고
- 체육관

슬라이딩(SLIDING)

- 철판을 절단절곡하여 제작한다
- 유리고정은 P.V.C로 사용한다
- 알미늄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 영업종목

- C형 앵글
- 가드레일
- 테크 푸레이트
- 슬라이딩 및 도아
- 스틸샷타(스프링, 수동, 전동)
- 철판 절단, 절곡

※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상담해 올리겠습니다.



대량생산 및 정확한 시공
有美工業株式会社!

본사: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3가 302-2 TEL: 27-0253 25-4235
서울공장: TEL: 99-8151~52 대구공장: TEL: 2-8079, 9868

月刊「建築士」 (通卷 72 号)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72 호
구입년월일	1975. 1. 15
대한건축사협회 출판부	

'7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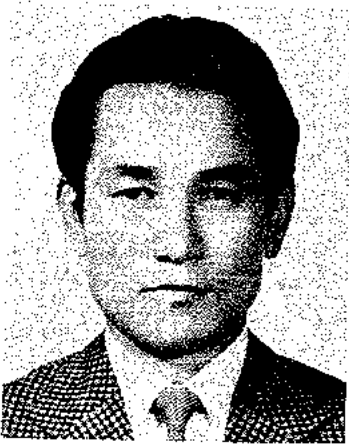
目 次

新年辞	韓 昌 鎮	2
'75主要事業計劃을 樹立하면서	李 圭 福	3
新年特輯論壇		5
協會에 바라는 나의 提言	金 熙 春	6
協會에 바라는 나의 提言	鄭 寅 國	8
協會에 바란다	宋 旼 求	10
建築士·建築家와 Architect	姜 明 求	13
協會에 바라는 나의 提言	裴 基 滢	17
商街建物の Facade에 대하여	金 眞 一	19
(建築技術情報)		
지붕防水工事を 失敗한 例와 그 対策	安仁模(訳)	24
會 員 作 品		39
동 성 교 회	崔 昌 奎(新進建築)	40
張 氏 住 宅	李 春 相(新洋建築)	42
金 氏 住 宅	俞 景 哲(三六建築)	44
海 外 作 品		46
COHN RESIDENCE		47
BARN RENOVATION		51
ELIA BASI RESIDENCE		53
STYLES OF ARCHITECTURE		55
(紀 行 文)		
伊太利建築史紀行 (2)	朱 南 哲	57
(會 員 의 趣味코너)		
水石三昧境	朴 商 浩	62
(建築에 세이)		
建築과 人生	柳 承 根	66
政府勞賃單価		69
全國建築許可統計		71
協 會 記 事		74
月間協會動靜		75
會 員 動 靜		76
編輯後記		79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 丞 雨(임시)
委 員	金 仁 錫
	金 正 基
	馬 春 景
	宋 鍾 奭
	俞 景 哲
	劉 熙 俊
	尹 道 根
	李 廷 德
	李 昌 敏

表紙：西洋建築의 樣式比較(柱編)



會長 韓昌鎭

계작년 이 때에도 다짐을 했고, 작년 이맘때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새해를 맞았었다.

日歷上의 回歸의인 形式인데도 알뜰한 契期의 매듭일수 있어서 늘 새롭다. 원가 새로운 期待와 出發을 다짐한다는 것도 必要하거니와 지나간 보람을 되씹어보는 意味에서도 必要하다.

어제의 連續이 來日이라면 너무나 답답하고 숨막힐 일이다.

아무튼 우리는 分明 또 새로운 한해를 맞는다. 새 보람을 절어본다는 뜻이다. 다시 보람을 設定하고, 보람있게 살고,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福된 한해를 다짐하자.

人生을 산다는 意味를 삶의 보람을 爲함이 아닐까.

애쓰 보람, 고생한 보람, 참되게 살아온 보람, 그 보람의 結實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다.

과연 '74년도는 우리에게 보람있는 한해였든가. 반성부터 앞세워야 하겠다. 올바르게 그 目標을 設定했고, 그 目標을 達成하기에 흐뭇한 滿足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의 存在와 우리의 能力이나 우리의 業績을 認定받을 수 있었겠나.

다같이 良心에 속임없이 되새겨 볼 일이다. 眞實하게, 正直하게, 誠實하게, 땀땀이 살았나

지나간 시간은 이미 우리에게 다시는 없다. 지나가고 없는 것이다.

실사 그것이 後悔스러워도 相關은 없다. 잘못 살아왔다면 그것을 거울삼고 애타는 한해였다면 다시 한번 努力해 보자.

이제 우리의 모임도 그만한 年輪을 쌓았다. 다 함께 힘을 모우고 自愛하자. 그것은 또한 愛國일수도 있고, 愛族일수도 있는 그러한 보람된 일이 우리의 使命임을 銘心하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者를 돕는다고 했다. 우리의 모든 總力을 기울여 邁進해 보아야겠다.

우리 모두에게 榮光있기를 빌면서.....

'75. 1. 1.

本協會 創立10週年을 맞는

'75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李圭福

乙卯새해! 새해는 우리協會로서는 정녕 뜻 깊고 感懷어린 해라 하겠습니다.

1965年/2月 힘겨운 與件속에서 発足한 本協會가 險難한 歷程을 거쳐 이제 創立10週年을 맞게 되었습니다.

団体年輪으로서의 우리協會도 이제 成年期에 접어들었다 하겠으며, 成年다운 體面을 다 해야 할 時點에 到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本部에서는 1975年度 事業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成年団体다운 面貌를 갖추면서, 지난 10年間 協會發展을 위해 精誠어린 會費納付등 온갖 犠牲과 奉仕를 다 해 주신 全國 1,300 余 會員들에게 報答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方向을 設定했던 것이며, 別表 '75年度 業事計劃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今年度 事業의 重點을 會員의 權益옹호와 會員의 宿願成就를 위한 主事業과 연관사업에 두었습니다.

몇가지를 例示한다면 全會員의 오랜 宿願인 建築士法の 年内改正, 設計報酬料率의 現實化, 所得標準率의 適正化 등이라 하겠으며 建築士法改正建議案은 '74年 11月末 이미 建設部에 提出했으며, 報酬料率의 現實化案도 公廳會등을 거쳐 關係當局에 正式提出할 予定이며 所得標準率의 適正化를 위한 資料수집도 이미 着手했습니다.

그러나 몇마디 말로 表現될 수 있고, 몇個의 單語로 筆記할 수 있는 이 事業들이 그 實踐에는 全會員의 總力과 온갖 知慧를 總動員해야 할 艱難하고 莫重한 事業들입니다.

그러기에 本協會에서는 以上과 같은 事業계획을 遂行코저 함에 앞서 昨年度 國家技術資格法 施行令 問題가 대두되었을 때 제기된 全國會員의 團結된 힘과 아낌없는 協調를 今年에도 다시 한 번 보여 주십시오 하고 固히 呼訴하면서 執行部로서는 事業의 成果를 놓고 심판을 받겠다는 마음의 姿勢를 가다듬고 있음을 아울러 밝혀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一部에서는 우리協會를 두고 不條理하다느니 無氣力한 団体라느니 하는 그릇된 認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一部の 認識을 拂拭하기 위해서도 本協會가 커갈수록 加重되는 一部の 시기와 壓力을 排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協會의 眞面目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실한 指導事業과 大膽인 宣傳啓蒙事業이 緊切한 課題라고 判斷했으며, 그러기 위해서 會員 및 學生作品展示會, 建築博覽會의 一部로서의 優秀建築資材展示會, 學術講習會, 倫理關係業務의 強化, 各種 統計의 體系化 등을 계획하였으며 年度中 整理된 各種統計는 '76年度에 統計集을 發刊할 予定입니다.

全國會員들이, 그리고 많은 先輩님들이 지성을 다해 키워놓은 本協會를 더욱 더 튼튼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當面課題라고 믿기에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本協會의 찬다운 모습을 内外에 誇示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宣傳啓蒙事業의 一環으로서의 會員業務에 처한 一般의 認識을 提高시키기 위한 各種懇談會 關係法令에 대한 公廳會 國內外 매스컴을 통한 果敢한 弘報活動을 계획하였으며, 기타 事業으로서의 새마을運動參與, 年末을 期해 國軍將兵慰問團 派遣, 會員들로 構成된 産業視察團派遣, 東南亞 建築視察團 파견등을 계획, 이미 具體적인 遂行계획을 세운바 있고, 國家施策에 呼應하는 各種行事 參與 및 主導, 이에 關聯된 弘報活動도 아울러 構想하고 있는 바, 이러한 事業遂行에는 全會員의 積極적인 參與와 協調가 先決問題임으로 거듭 이 點을 強調해 두는 바입니다.

더우기 今年에는 定款一部改正에 따르는 本部와 支部의 運營体系의 科学化등이 推進되어야 할 것 임으로 本協會에서는,

1. 行政合理化
2. 指示 5%, 確認 95%
3. 評價分析

以上과 같은 行政指針을 마련하여 本部行政의 合理化에 拍車를 加하고 있으며 會員들이 信賴하는 協會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중임을 附言해 두는 바입니다.

대략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今年度 事業계획의 輪廓과 方向을 說明드렸음니다만은 아무리 珠玉 같은 사업계획이라 한지라도 實踐하지 않는 事業계획은 없는 것만 못한 法입니다.

일단 새운 計劃은 全力을 다해 推進하고 탐스러운 成果를 거두는데 그 意義와 目的이 있는만큼 거듭 全國會員 및 有關機關 諸賢의 積極적인 協調 와 聲援을 仰願하는 바입니다.

筆者：本協會 總務理事

1975年度 本協會 主要事業計劃

事業計劃	細部計劃	事業內容	研究事業	宣傳事業(啓蒙)	展示事業	行 事
出版事業	1. 會誌(建築士) 發刊 2. 會員名簿 및 定款勸規定 集發刊	1. 版型 : 菊倍版 2. 部數 : 3,000部 3. P 數 : 80P 本文 4. 紙質 : 오조, 아트 1. 版型 : 4-6倍版 2. 部數 : 2,000部 3. 紙質 : 크조, 아트 4. 印刷 : 음컷트	1. 關係法令研究 2. 所得표준주의 適正化 3. 榮務研究委員會運營 4. 設計報酬料率의 現實化	1. 關係法令에 對한 公聽會 2. 懇談會 3. 弘報活動	1. 優秀建築資料展示會 2. 其他法令에 對한 公聽會開催 1. 會費業務에 對한 一般의 認識을 提倡하는 同時 問題點의 解決을 모색하기 爲하여 有 關機關과 言論機關等을 招請 懇談會 開催 1. 國內外 新聞, 通信, 放送等을 通해 P.R 活動	1. 協會創立10周年紀念行事 2. 세마슬事業參與 및 國軍將兵慰問 3. 其他行事 4. 産業視察團派遣
指導事業	1. 會員作品 및 學生作品 甄賞募集 2. 各種資料 및 統計業務의 体系化 3. 會員業務指導強化 4. 倫理委員會運營 5. 關係法令集 및 甄評定答集發刊 6. 報酬料率印刷配付	1. 74年度의 會員現況 및 圖書登錄現況統計 發表 2. 海外建築雜誌 및 國際間의 關係를 通한 情報蒐集 1. 各種質疑直時解答 2. 地方行政機關과의 紐帶強化 3. 分所運營의 合理化 4. 74年度中 分所運營 狀態把握 및 分析 5. 分所運營支援 把握 및 業務指導 6. 非道會員團束 및 業務紛爭調整 倫理委員會開催 1. 原稿返來完了 2. 印刷(공판) 3. 會員에게 配付 改定報酬率冊子印刷				1. 行事內容確定 2. 表彰對象者推薦公文發送 3. 受賞者決定 4. 賞與紀念式場 및 각에 贈과 -미료者手約 5. 紀念式 1. 各市道支部를 通해 會員들로부터 推薦品을 收得하여 本部任員 및 各市道支部長이 一線 將兵을 慰問 1. 理事會에서 必要하고 認定하는 事項이 發生될 時에 決定遂行 1. 會員들로 産業視察團을 構成, 重要産業地帶을 視察토록 함
訓練及 教育事業	1. 學術講習會開催 2. 海外視察團派遣	1. 本會에서 海外視察團派遣 2. 傘下支部事業계획에 依한 海外視察團 派遣 支援補助				

'75 새해 協會에 바란다

筆者

金 熙 春 (大韓建築学会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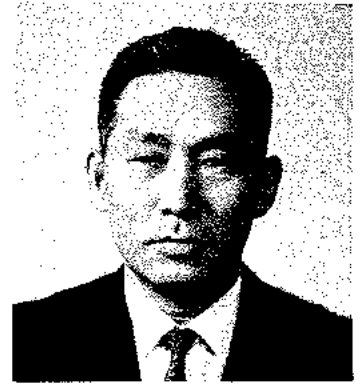
鄭 寅 國 (韓國建築家協會長)

宋 旼 求 (宋旼求建築事務所代表)

姜 明 求 (姜明求建築設計事務所代表)

裴 基 滢 ((株)構造社 建築技術研究所代表)

새해 協會에 바라는 나의 提言



金 熙 春

建築家の 임무와 책임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技術的, 科學的, 社會的 變化에 의해 더욱 加重되어 가고 있다.

文明의 이기로서의 諸般 技術發展은 人間生活 영위에 있어 物質의 풍요로움을 주었고, 또 人間들의 생활 가치관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物質의 풍요로움의 結果는 人間이 예측치 못하였던 環境公害,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 都市의 大型化로 인한 누적되는 고질등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사대 상황의 변천에 의해서 요청되는 현대 建築의 추세속에서 建築士의 本質 및 姿勢 역시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 建築士의 자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우선 建築士는 기존 가치관에서 탈피된 새로운 自我의 형성을 꾀하여야 하겠다. 현재 建築士의 영역은 점차로 都市의 스케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建築士는 이제 가장 복잡한 형태의 人工 環境을 갖고 있는 都市가 自然의 순수함을 말살당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都市 環境의 否定的인 要素들, 소음, 혼잡, 오염, 악취, 협소한 공간, 추한 외관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서 이들의 輕滅 내지는 除去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성장과 변화의 부정적인 수많은 要因을 내포한 都市化 과정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再調査 研究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데이터 부재와 非學問的인 環境위에서 施行되고 있는 都市開發事業과 매일 늘어나고 있는 不良住宅建設을 외면할 수 없다.

셋째로는, 都市行政을 長期的인 眼目에서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로는, 建築士들이 계획하는 모든 建築物의 대상을 人間을 위주로 하여 생각하고 社會의 公益性에 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建築士는 現在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에너지원 및 자원의 고갈문제에 대하여 외부적인 요건이라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建築環境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원의 고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재료, 특히 Raw Material 開發이 시급하며, 嚴格한 節約과 각 세부의 엄밀한 계획 시공으로서 建築 設計上의 조형 혹은 표현이라는 명분 아래 빚어지고 있는 材料와 構造物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熱 管理面에 있어서도 人工的인 熱處理 方式도 중요하지만 自然의 혜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研究가 必要하다.

建築物의 構造, 配置, 空間 構成, 材料 등의 效率的인 고려로 自然의 熱을 보다 效果的으로 받아들이며, 또 이를 活用할 수 있을 것이며, 太陽熱과 風力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를 建築에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는 아직 실용화되고는 있지 않지만 앞으로의 研究如何에 따라 實用化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유능한 建築士라 하더라도 이미 都市의 스케일로 확장된 建築士의 영역을 모두 포괄 소화시키기에는 미진한 감이 있다.

그러므로 建築에 관련되는 각종 분야의 조직적인 도입, 활용, 협조등으로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 建築士에게 바라는 몇가지를 피력하여 보았다.

끝으로 創立된지 어언 10년이 되는 建築士協會의 發展을 새삼 감회깊게 생각하며 다음 몇가지를 제안한다.

1. 모든 建築人들을 포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建築人들 스스로의 역량과 지혜를 각 부분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 社会的 指導者로서의 建築士를 위한 敎養과 指導계획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建築分野의 研究와 병행하여 관련 분야 학문에 대한 폭넓은 研究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大韓建築學會長

'75 謹賀新年

우리의 힘을 모아 所望을 이루는 해

大韓建築士協會

會	長	韓	昌	鎮
總務	理事	李	圭	福
理	事	李	丞	雨
理	事	朴	成	圭
理	事	李	興	秀
理	事	成	一	永
監	事	尹	希	俊
監	事	康	晉	參

새해 協會에 바라는 나의 提言



鄭 寅 國

1975年은 建築士協會가 創立된지 10年째 되는 해라고 합니다. 協會創立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成長을 지켜보고 온 나로서는 感慨無量함을禁할길 없습니다. 出生當時의 陣痛은 그때의 建築界의 構成이 雜多하던것 만치 甚한 曲折을 겪어야만 했고, 成長過程에서도 對社會의 人問題 또는 對內的인 指導體系를 둘러싼 問題 등으로 역시 심한 激浪을 헤치며 오늘에 이르렀고, 近間에 와서는 技術系資格整備를 위한 行政措置에 따라 派生된 意見差異로 그 存立까지도 威脅받으면서 이를 克服하여 組織을 確固히 하였습니다. 여하튼 여러가지 面에서 建築界의 社會的職分을 공고히 하는 발언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나는 10年歲月동안 建築士協會가 이룩하여 온 活動과 業績에 대하여 讚辭를 보내고자 합니다.

建築士協會에 그간의 業績을 돌이켜 보면 첫째, 士協會의 組織을 整然한 體系로 樹立하였고, 둘째로는 對社會의 人活動에서 建築士의 業務內容과 目的을 鮮明히 하는데 크게 功獻하였고, 세째로는 會員들의 質的向上을 위한 지성을 促求하는 觸媒의 役割을 하여 온 點들이며, 대체로 이러한 業績들은 어떤 社會團體가 草創期에 成熟하여 다음 段階로 進展하기 위한 初步的 活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5年度에는 이와 같은 初步的인 組織의 段階를 넘어서서 飛躍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性質의 團體가 遂行하여야 할 課業은 몇가지 部面에 걸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즉 가까운 側面에서는 對社會의으로 建築家들의 責務를 明白히 하여 그 權益을 擁護하는 일이며, 다음으로는 對內的으로 組織을 整備하고 나서는 建築創造本然의 活動을 얼마마한 높은 水準에서 이행할수 있게끔 協會自體의 總體의 質을 向上시키느냐라는 것이고, 끝으로는 國家가 要求하는 일에 얼마큼 報答할 수 있느냐하는 點입니다.

이때까지 協會는 첫째, 課業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여 왔다고 생각이 되며 또 成果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報酬料率에 대한 漸進的 改善을 꾀하여 왔고, 監理體系를 合理的으로 運營하고, 設計圖書의 登錄節次를 法

制化하여 建築士協會가 建築士法을 根拠로 組織된 團體로서의 性質을 充分히 나타내어 그 法趣旨의 一端은 充實히 履行하고 있음을 말하여 줍니다. 즉, 建築士法 第一條(目的)에는 「이 法은 建築士의 資格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라는 條項의 前半의 規定事項에는 嚴格하게 부합된 事業活動이라는 것은 매우 多幸한 일이며 또 當然한 일이지만 그 以上을 엿볼수 없음을 유감된 사실입니다. 더우기 激動하는 社會情勢아래서 可變的인 政府施策에 對心할때는 너무 法條項에만 치우친 活動基盤과 成果밖에 없는 狀況에서는 極히 無力한 存在로 化해버리는 事實을 近間에 協會가 處해 있는 環境으로 넉넉히 짐작이 갑니다.

나는 여기서 앞으로 協會가 나아갈 길로 가장 重要하고 根本的인 것은 協會가 法에 依하여 組織되고 活動하고 있지만 法을 넘어서지 않으면 生命을 維持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法을 넘어서는다고 하지만 事實은 法의 形式的인 面을 超越하는 것이고, 精神的 面에서는 法의 目的 事項에 充實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法第1條에는 嚴然히 後半에 「建築物의 質的向上」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나의 提言도 이것을 強調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즐겨 建築은 藝術의 範疇안에 들며, 建築士의 活動은 단지 技術活動이 아니라 藝術活動에 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技術資格整備를 둘러싼 政府施策에 대해서 士協會가 들고 나선 唯一한 武器는 이 傳家의 寶刀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建築士法 어느 한 구석에도 이를 위한 活動을 促進시킬 根拠條項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法精神에 根拠하여 士協會가 自己의 生命력을 旺盛히 하기 위하여 벌여야 하는 根本事業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1. 圖書登錄을 形式的인 面에서 具備書類程度로 取扱하는 風潮를 止揚하여 質的檢討를 하는 方便을 세워야 하며,
2. 建築士 개개인의 質的向上을 위하여 協會가 할 수 있는 모든 知的活動을 活潑히 進行시켜야 하며,

3. 이때까지 度外視해 온 學校, 研究機關, 姊妹團體와의 交流를 진밀히 하여 相互協力の 氣風을 助成해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提言하고 싶은 것은 韓國建築에 寄與할 수 있는 길을 模索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앞의 提言과도 相關되는 말이지만 無定形 無方向의 韓國建築을 올바르게 이끌고 나아가는 先導的役割을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建築界는 混迷한 狀態에 놓여 있습니다. 雜多한 樣式과 스타일이, 또 앞선 技巧와 뒤떨어진 技術의 葛藤이, 거센 外國風潮와 伝統과의 相克이 서로 엇갈려 잡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이때 그 責任의 대부분이 士協會에 있다고 여겨지는 理由로는 其間 數万件되는 建築許可件數는 모두 協會員들 作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나라의 建築發展史이던간에 그 안에 記述된 團體의 活動은 그나라의 建築進展에 이바지할 程度로 評價되어 왔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先進國家에서와 같이 建築家

들의 社會的地位가 經濟的인 뒷받침을 얻어 保障되어 있다고 하면 구태어 建築士協會에 이런 提言을 할 必要도 없이 建築家들의 自由스런 集團活動으로 可能할지도 모르나, 後進國다운 法運營의 좁은 테두리에서 建築活動이 進行되고 있는 形便에서는 現在까지는 士協會가 唯一한 期待되는 活動根拠地이기 때문에 이 點을 強調하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진대 우리나라 建築은 67年以來 파상적 으로나마 現代的性質을 띄이게 되어 高層化, 大形化에 拍車를 加하고, 工場生産部 材料는 大量으로 投入되고, 工法은 近代武裝備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投入資本, 投入資材, 適用技術 모두 韓國土着基盤에서 成長한 結果에서가 아니라 임시 備用한 便法이라는 안타까움이 항상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士協會가 擔當한 業務內容에 있어서도 앞으로 닦아 올 尤大한 量의 일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지 않게끔 새로운 각오로 一段階 飛躍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韓國建築家協會長

謹賀新年

乙卯元旦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支部	支部長	金萬盛
釜山直轄市支部	支部長	金圭泰
京畿道支部	支部長	鄭銀溶
江原道支部	支部長	趙奎植
忠清北道支部	支部長	鄭鎮億
忠清南道支部	支部長	金鍾敏
全羅北道支部	支部長	崔錫珪
全羅南道支部	支部長	蔡奎鎬
慶尙北道支部	支部長	李根痒
慶尙南道支部	支部長	尹商鳳
濟州道支部	支部長	康奇汀

새해 協會에 바란다



宋 改 求

우리들 自身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重要한 것은 「理念의 確立」에 버금가는 것이 없을 것이며, 哲學의 貧困에서 오는 毒을 우리들 建築家는 어떻게 빨리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 배해 筆者가 強調하고 감당하는 所願의 한가지다. 或者는 致富에 余念이 없어 理念따위는 알바가 아니라 할 수도 있겠으나 人間은 物質萬能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 해 本誌 8月호에서도 建築이 무엇인가를 說明하였고, 따라서 作品의 바탕에 깔리는 思想의 重要한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으나, 다시 한번 그때의 論旨을 살펴보면 建築이라는 것은 分析된 모든 것을 建築家의 힘으로 藝術的 社會的 經濟的 技術的으로 綜合하여 創造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建築이요, 이루는 役割을 하는 것이 建築家이다.

그러면 藝術이라는 側面을 強하게 지니고 있는 建築 또는 建築이라는 目的藝術에서 藝術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定義를 「創造의 表現形成」이라고 말하였으며 藝術의 創造에 있어서 직접 呈示된 感覺的이고 個體的인 것을 통해서 깊고 넓은 存在의 根源이라든가 人生의 뜻과 같은 超感性的 普遍的인 것이 形態로서 啓示되는 것이 藝術이라고 말하였다.

여기의 存在의 根源이라든가 人生의 뜻과 같은 超感性的 普遍的인 것은 作家의 깊고 오랜 思索으로서 作家가 到達한 哲學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重要함을 機會있을 때마다 筆者는 強調하였던 것이다.

또 藝術家가 創作에 傾注한 피와 땀이 어린 그의 人格性이 藝術作品 全般에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는 그의 作品에서 느끼며, 作家와 觀賞者의 마음이 서로 共鳴하므로써 그의 藝術의 深奧함을 되새기게 되는데, 이것 또한 藝術家가 우리들의 마음 속 깊이에서 살고 있으며, 그의 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說得하고 앞으로 引導하는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作家는 어느 면에서는 우리들 보다 항상 앞서 있다는 眞在를 보인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藝術家를 三角形의 頂點, 一般사람들을 三角形의 底辺으로 比論하기도 하였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藝術에 몸을 바치고 있다고 하면 果然 우리들 自身은 三角形의 頂點에 있으며 여러 사람들을 理念에 있어서 說得하며 引導하는 힘이 있다고 自負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建築은 藝術의 側面을 強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한바 있거니와 그러함으로서 美的인 것과는 嚴然히 區別하여야 하며, 藝術적이기 때문에 美的인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精神的 社會的 機能을 지니고 있게 되며 그렇게 되는 까닭은 數次 말한 超感性的 普遍的인 것을 形態로서 啓示하기 위하여 追求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作家의 生命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밝은 새해를 마지하여 會員諸位의 多福함을 빈다.

毎年 해를 보내면서 왜 建築하는 사람들은 다른 分野의 사람들 같이 잘 살 수 없을까? 또 社會에서 가장 広範圍하게 活躍하고 많은 業績을 남김으로서 뚜렷한 存在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한쪽 구석에 特殊한 職業人으로서 밀려 있어야만 하는가?

그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

다름 아닌 바로 自身에게 있음을 反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今年에는 꼭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몇가지 念願을 또 우리의 位置를 끌어 올리겠다는 所望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간혹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美的인 것이 마치 「創造의 表現形成」인양 錯覺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까닭에 아름답기는 하나 哲學의 貧困에서 맴도는 알차지 못한 作品들이 우리 周圍에 넘쳐 흐르며 참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데에서 作家와 한 마음이 되어 共鳴할 수 있는 좋은 作品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問題를 複雜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은 언제나 事物을 全体속에서 個體를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作品하나 하나도 全体속에서의 存在價值를 생각 안 할 수 없으며, 消極的인 面에서는 都市計劃의 側面的 考察이 없어서는 안되고 積極的인 面에서는 한거름 더 나아가 環境問題에까지 建築家로서 一端을 맡아 일하지 않으면 均衡을 잃은 結果를 남기게 되고 만다.

英國의 Archigram, 日本의 Metabolist가 그러 하듯이 人間의 참된 삶을 營爲하기 위한 條件의 探求는 우리들 建築하는 사람들의 使命이며, 義務이고 누군가가 말하듯이 地球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環境이라는 큰 名題에서 出發하여 歸着點으로 달려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는 協會에는 많은 情報收集 交換, 敎養講座등 重要한 業務가 山積되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 × × × ×

實務面에서 解決하여야 할 우리들 自身에 관한 問題도 尠다하다.

그중에서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設計方法에 대한 것과 鉄筋콘크리트工事的 監理에 관한 것이다.

우리들은 解放後 30年 동안 設計方法에 있어서 美國式이다. 日本式이다. 各自의 style에 따라서 設計圖書를 作成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統一과 再檢討 또는 圖面의 合理化에 대해서 한번도 議論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設計圖書 즉 建築家の 責任 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圖畫이고, 어디서부터 都給業者가 이루어야 할 施工圖리야 된다는 限界조차도 明確하지가 않기 때문에 設計圖書作成의 不衷을 가져오기 쉬우며, 또는 都給業者의 解釋이 구구하여 見積할 때에도 金額差가 많이 생기게 마련이다.

設計圖書는 都給業者의 解釋에 따라서 變質할 수도 없으며, 變質하여도 안된다.

또 建築家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完全히 第三者에 傳達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圖面의 合理나 設計方法의 統一에서만이 이것을 達成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協會라는 組織을 통하여 再檢討 再制定이 있어야 한다고 筆者는 생각하며, 새해 事業으로 提案한다.

예를 들어 配置圖에는 무엇을 表現하여야 되는가 하는 質問에 대하여 各者의 對答은 區區할 것이며 配置圖 한장이라도 무엇 무엇이 必須的으로 어떤 方式으로 表現되어

야 되겠다는 統一된 意見이 있었는가? 그러한 것이 各自의 style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設計者와 都給業者 사이에는 解釋의 差異가 생겨도 無理가 아닌 것이다.

「표준문셈」도 그러하다. 이와 一致하는 各部詳細 또는 마감의 基準圖가 統一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各自의 知識과 經驗에 맡겨져 있는 狀態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루속히 研究하며, 統一하고, check point를 確立하면 設計上の mistake는 最大限度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配置圖에 대한 check list (第1表)를 參考로 提示한다.

× × × × ×

다음 鉄筋콘크리트施工에 관한 것은 그 重要함은 再言할 必要도 없는대도 불구하고 가까운 日本에서는 40年전에 없애 버린 콘크리트 配合比 1:2:4 또는 1:3:6 이 우리나라에서는 大部分의 工事に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 非科學的인 實情에 있다.

따라서 물 cement比나, slump值다, 하는 것은 學校講義室에서만 쓰이는 用語가 되어 버리고, 工事監理는 專門技術者가 아니라도 監理가 되는 것 같은 印象이 널리 퍼지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것이 是正이 안되는 責任은 全的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日本은 1969年 6年前 또 다시 鉄筋콘크리트 標準仕樣書를 改正하고 그중에는 寒中콘크리트 차폐用 콘크리트 등 重要한 事項이 많이 첨가되어 6年前의 仕樣書와 比較하면 隔世之感이 있을만큼 많이 變하였다.

우리는 어제까지 잠자코 있어야 되는가!

특히 寒中콘크리트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 實情에는 가장 알맞는 事項이며 콘크리트는 初期強度가 重要 하므로 이에 알맞는 養生 밑에 積算溫度方式에 의한 工事監理를 効果的으로 施行하면 겨울에도 工事は 계속할 수 있어 많은 建設의 早期達成과 長期雇傭으로 인한 勞動力의 吸收에 따르는 先業對策등 여러가지 利點을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工事監理는 그야말로 科學的管理下에 우리들은 本然의 姿勢下에서 執務하게 되며 이에 對峙하는 處遇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우리들은 스스로가 自己의 義務와 權利를 포기할 것인가.

왜 우리들은 國家에 利益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默過만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새해에는 協會가 이러한 일들에 먼저 積極的으로 組織的인 改善과 運動을 展開하여 줌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우리 自身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콘크리트 工事管理에 必要한 舊式을 第2表에 提示한다.

第一表 配置圖

外部別途工事は一覽表를 만든다.

外構 工作物配置, B.M.는 測量圖와 地質調査와의 關係를 考慮

	記入事項	作圖法	備考
1	方位	北을 위로	原則적으로
2	寸數 建物位置・舗装面 이 道路幅	建物基準線부터 鏡 界線 B.M.에서의 間建高隣接道路	특히 明記 하여야 함.
3	境界標石	新設인 경우에는 No.을 記入	No. 1 No. 2
4	B. M.	位置指定	基準地盤面高는 配置圖에 의하여 定한다.
5		建物位置	1層外壁面
6		將來増築部	点線
7		整地範圍	点線 B.M.에서의 높이 로써 나옴에
8		舗装名稱	Exponson Joint 分配
9		門・其他工作物	地下埋設物은 点 線記入
10	記 号	詳細Sheet番号 標準詳細圖番号	30-2 (0-07-6)
11		既存建物・工作物 樹木	実線으로 그 뜻을 記入
12		計劃道路	点線으로 그 뜻을 記入
13		撤去建物・工作物 樹木等	" 配原圖의 表現에 반해가 안되는 경 우에만

第二表

CONCRETE打設報告書

No.	19 年 月 日		
打設日:	年 月 日	宋政求建築研究所	
打設場所:		京一企業 KK.	
數 量:	M ³		
調 合:	(콘크리트強度-스랩프-骨材크기-첨가제)例180-15-25-		
	Signals		
調合種類:	Remicon会社의 固有 Number를 記入		
天候及溫度:	晴 曇 雨 雪 ㄷ		
時 間:			
打込方法:	a) 카-드車 b) 슈-드 c) 펌프 d)		
作業人員:	人		
Slump Test:	1) 2) 3)		
Test Piece:	現場 7日-3個 工場 7日-3個(標準養生)		
	7日-3個(混砂養生) 28日-3個		
	28-3個(標準養生) 28日-3個(混砂養生)		
備 考:	(打設場所圖示)		
養生方法:			

建築士. 建築家와 Architect

1. 建築士の資質을 確立 시키라



姜 明 求

建築士에 對한 社会的 認識度나 地位 報酬 또는 人格과 技術向上을 위하여 努力 해온지 벌써 10년이 되도록 우리의 發展을 妨害하고 있는 要素와 마음 한 구석에 도사린 釋然치 않은 여러 問題들 가운데서도 가장 根源的인 것으로 생각되어 오던 것은 建築士, 建築家와 Architect 등의 同類 近似職名에서 오는 誤解, 不一致感 또는 問題點等에 對한 所感을 提言코져 한다. 建築家와 Architect는 同意語이긴 하나 우리나라에서 現在까지는 이것이 一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日本人들이 지은 建築士라는 말과 Architect도 마찬가지로 一致하지 못하므로 因한 여러 가지 職名에서 오는 自體의 混亂이 社會에, 또한 外國에 까지 反映 되므로써 돌아오는 被害返響은 어떠한지도 反省해 보아야 하겠으며 또한 우리 自身들의 職名이기에 오히려 無關心 하였던 建築士, 建築家, Architect라는 말의 遺來도 좀 더 正確히 하여 둘 必要가 있다고 하겠다.

近來 우리나라에서의 建築家라는 말은 하나의 職業名으로 使用되는 것이 아니며, 廣意的인 解釋으로는 學校의 建築科를 卒業하였다거나 또는 建築設計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들(外國에서는 Architect, Drafts man, Engineer 등으로 完然히 区分되어 있는데, 이런 職別의 全部를 말하는 듯)이 自尊의 뜻으로 自称 使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建築家를 그대로 Architect로 번역을 하면 外國人에게는 올바른 傳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外國에서의 Architect는 國家가 認定한 自由職業의 資格으로, 醫師나 辯護士와 同一한 性格의 것이다. 醫師, 医士, Dr와 같은 類似名稱도 없을 뿐만 아니라 大學의 法科나 医科를 卒業하였다고 醫師나 辯護士의 名稱을 쓸 수도 없으며 이를 違反할 때에는 法律로 処罰을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自由業은 個人, 法人 또는 官庁의 利益을 專門家로서 解決해 주고 그 代償으로 報酬를 받는 점에서 다 같다 하겠다. 어느 職業이나 國家에서 그 能力과 經驗이 一定한 規準에 到達된 사람에게 그 職業稱號와 開業을 認定해 주는 것은 어느나라에서나 同一하나 實質적으로 우리나라의 建築士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우리의 建築士는 國際 建築家 聯盟(U. I. A.) 會員도 못되고 있으며, 既得權에 依한 無能力者가 1級이 되어 있는가 하면, 1級 보다 實力이 越等한 2級 建築士가 수두룩한 點等等이다. 한편 韓國 建築家協會 會員이 아니면 外國에서 行해지는 懸賞設計의 參加資格이 없는가 하면 建築家協會에는 國家認定의 建築士도 아닌 사람이 會員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建築士協會를 英文으로 表記할 때에는 『韓國에 登錄된 建築家協會』로 붙여야 하는 點等 역시 무엇인가 複雜하고 混亂된 印象이 外國에 까지 비추이는데에 錯雜한 마음 禁할 길 없다. 要는 內實의 問題가 더욱 重要하기 때문에

모든 힘을 합하여 正常軌道에 올려 놓아야 할 일로 본다. 日本에서도 數年前 國際競技의 設計參加資格이 問題가 되어 建築家, 建築士 또는 Architect의 國際的 解釋에 困難이 일어난 일이 있다. 앞서 말한바도 있지만 建築家を Architect로 간단히 譯하는 것은 크게 잘 못이며, 同時에 그 団体들 까지도 問題가 되던일이 생각된다.

日本建築家協會에서는 會員詮衡에 있어 外國에서도 通用될 수 있는 意味로서의 Architect를 會員資格으로 하고 있음으로 外國에서 Architect의 資格問題가 생길 때마다 建築士協會會員이 Architect로 認定을 못받은 때가 있었다. 이러한 것은 建築士法の 未備와 建築家 내지 Architect의 認識不明等에 依한 것이며, 이것이 外國에서 보면 Architect의 職業團體가 어느 것이 正統的인 것인가를 分間하기 어렵게 했을 것이다. 우리의 建築士協도 10년이 되도록 이러한 問題點을 지니고 있기에 早速히 外國에서도 通用될 수 있는 Architect로서의 建築士로 實質的인 資質을 確立 시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2. 史蹟으로 본 建築家像

韓國 建築史에 남을 훌륭한 古建築들은 勿論이며, 西紀 607年頃 百濟에서 건너가 建造한 日本 奈良 法隆寺의 建築이 藝術的이라는 外形的 讚詞와 함께 木構造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建物인 文化財로서도 널리 宣傳되어 있으나 그 훌륭한 藝術作品을 누가 設計 했으며 그들의 職責과 待遇, 또한 設計監理方式等에 關한 內的인 重要한 記錄이 남지 않아 建築家에 關한 이야기를 하려면 西洋史에 남은 建築家들을 例로 들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예질트에는 古代로부터 建築家が 存在 하였던 記錄이 남아있다. 예질트에서 “人格이 尊嚴하다”는 말은 建築家を 뜻하였다. 하며, 建築家は 大概 王의 血族이 아니면 될 수 없는 職責이며, 世襲의 家系로 이어졌고, 그 血統에서 彫刻家나 画家, 詩人等의 藝術人이 輩出 되었다 한다. 古代 希臘에서는 “建築家이며 藝術家”라는 單語가 實在 하였고, 이탈리아의 建築家(architetto)라는 語源도 勿論 希臘語의 Arkhos(長)-tektion(匠人)에서 나왔음을 틀림없다. 公共建物에 關與하는 建築家나 工事監理長은 그 當時에는 國家의 가장 높은 要職으로 推重되었고, 現在까지 遺物로 남아있는 王들의 生活風俗과 함께 壁에 浮彫된 建築家の 作業하는 記錄面에서 施工用 現尺圖作成의 場面을 볼 수 있다. 그리스 文化의 黃金時代(B. C. 500)가 되면서 부터 建築家の 職名이 彫刻家나 請負業者等과 明確히 区分되기 始作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神殿(B. C. 438完工)은 이를 設計한 建築家 Iktinos와 함께 彫刻家 Pheidias와 技術者인 Kallikrates가 施工者로서 協力한다. 이러한 그리스의 建築家が 후에 로마의 建築을 도맡

은 史蹟이 남아 있다. 로마에서도 建築家が 생기기 始作하였으나 그때부터 建築家は 高貴한 世襲에서 自由人에게로 넘겨졌다. 특히 異色의인 것은 스스로 建築家로 自稱한 皇帝 Adriana(117-138在位)로서 그는 廣大한 宮城과 別莊等을 直接 實施 하므로서 傳統的인 建築家の 地位를 다시금 높히게 하였다. 로마人은 元來 土木技術에 能하여 築港術과 道路는 有名하였고, 특히 그들이 架設한 水道는 오늘날 까지도 로마市內의 數千의 噴水에 물을 뿜고 있다. 그밖에 큰 Span의 트라스를 構築 한다든지 아-취 天井의 Vault技法, 로마 시멘트의 發見等으로 大寺院 建築을 完成한 有名한 建築家들이 많았으나 로마帝國의 滅亡으로 寺院의 聖職者들이 建築家を 代身하다 13世紀 以後에 建築家職은 그들 僧侶로부터 一般社會人에게 다시 넘어 오지만 “工事의 長”이라는 職名으로 모든 匠人(職工)을 指揮하는 arkhos-tektion이라는 職業이 된다. 報酬가 定해 졌으며 見積, 予算作成, 工事契約을 締結 시켜주는 責任까지를 다 하였다. 그 時代의 建築家の 이름이나 胸像이 寺院의 中心廊下에 刻畫나 彫刻으로 또는 石棺에 지금까지 남아 내려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建築家들이 尊敬을 받았던가를 알 수 있다. 그后 建築家の 地位는 漸次 底下하여 王侯나 큰 寺院의 僧侶가 直接 石工과 木手, 彫刻士, 鐵工等과 部分 工事契約을 하며, 建築家は 相對하지 않았던 時期가 있었다. 그러나 15世紀 렌스 大寺院의 火災復旧工事때 部分別請負式으로 石工, 木工, 鐵工等에게 各各 請負를 시켰으나 各職種間의 工事連絡과 秩序 그리고 構造上의 配念과 比例上으로도 옛날의 아름다운 調和를 잃고 만 것은 더 할 나위 없게 되었다. 이러한 非文化的인 建築界를 다시 是正하고 建築作品에 藝術的인 調和와 施工上의 秩序를 찾는때에 깊은 思慮와 威嚴 있는 命令으로 모든 施工을 制御할 수 있는 建築家が 나타났다. Philibert Delorme(1515~1570)이 다시 低落된 建築家の 職責을 옛날처럼 되찾은 일이다. 같은 時期 덴마크의 首都 코펜하겐에서도 王이 漁民을 위한 아파트를 손수 設計, 施工監理한 3層 아파-트가 現在도 市內 海岸이 보이는 낮은 언덕위에 서 있는 것을 筆者도 見學하며 感慨無量하였던 記憶이 새롭다. 그런 時期에 다시 프랑스에서 1495年 샤르르 8世의 이태리 遠征後 建築家라는 architetto와 技術者를 分離한 것을 본따 使用하기 始作 하였다. 프랑스에는 처음 建築學校가 세워졌으나 그것은 私塾과 비슷한 것으로 Atelier라고 불리우는 紀元이 되었다. 建築家は 工事의 最高責任者로서 最高의 權威를 지니고 自己計劃을 實施 하지만 金錢上으로는 關與하지 않음은 勿論이며, 売買契約도 避하는 것이 그들의 精神이었으나, 그 때에도 참된 意味로서의 建築家は 드물었으며 金錢에 關與하든지 또는 木手나 石工等이 建築家라고 自稱하며 뒤로는 請負도 맡고 하여 참된 建築家の 威信을 떨어 뜨렸으나 1671年 王立建築學院이 루블宮에 設立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파리 國立美術院 建築科의 前身이며 1867年 政府

에서 省畧으로 制定한 Diplome 때문인지 프랑스는 勿論 歐美人이 모두 이곳을 唯一한 建築家の 養成과 修業道場으로 認定하고 있었다. 더구나 建築家は 藝術家인 同時에 技術者이며, 實務家로서의 資格까지 갖추어야 하기에 이들 學生에게는 現場實習까지를 義務化시킨 것이다. 이러한 것을 始作한 사람은 Viollet le Duc이라는 建築家로서 建築家の 修業이란 設計는 물론 實地의 經驗과 觀察力의 養成이 不可避하다는 것을 力說한 것은 그 建築家の 힘에 依하였다. 그러나 19世紀 中葉에 와서는 建築職種中에서도 施工・見積・設計等の 区分이 確然치 못하여 混同되기 쉬웠으므로 政府公認의 建築士 DPLG協會를 筆頭로 하여 一般的 建築協회가 생기게 始作하였다.

이어서 1895年 Julien Guadet (1834-1908)의 發起로 全 유럽 建築界에 唯一의 權威있는 建築士의 職責規程으로 世稱『가데의 法規』가 制定되 明文化되었다. 그에 의하면 “建築家は 比例와 配置와 裝飾을 決定하여 이 企劃圖而대로 實施시키고 그에 要하는 諸經費를 裁制하는 藝術家이다”라고 定義된다. 따라서 建築家は 自由業이며, 非商業的인 性格을 明記(U. I. A. 또는 A. I. A 規約에도 繼承됨)하고 그 職務遂行에 誠實함은 勿論 公正하며 藝術的인 面을 重要視하여야 한다는 職業上의 德義를 具體的인 規則으로 例記하고 있다. 特히 德義心은 모든 職種에 必要한 道德的 義務인 것은 勿論이다. 中世紀 建築이 聖職者로부터 一般 社會의 匠人에게 넘겨진 後 잊혀진 藝術的 調和를 Philibert Delorme이 다시 찾고 로마에서는 建築家인 Adriana皇帝의 이름으로 그 高貴하였던 地位를 다시 찾아 建築家の 名譽를 淸부업자와 區別하였다. 이 傳統이 바로 『가데(Guadet)의 法規』의 條文精神이었다.

(오늘날 우리 周圍의 建築上事務所 着板에 設計, 工事, 請負, 監理라는 矛盾된 廣告에다 地籍圖 青写真까지 곁들여 있는 것은 그 建築士의 不道德과 營利的인 商業的 行動으로서 이는 建築士의 品位의 遂落을 白招하는 일이다.)

더구나 그동안 그리스 以來『建築家이며 藝術家』라는 傳統은 文藝復興期의 建築家이며, 兩家, 彫刻家인 Brunellesco (1377~1446), 建築家이자 兩家인 Bramante (1444~1514)와 Peruzzi (1481~1536), 建築家이자, 兩家이며 彫刻家인 Michelangelo (1475~1564) 등을 거쳐 建築家 Charles Garnier (1825~1898)와 其外에 이어져 내려오며, 建築家란 藝術家이기도하다는 明確한 定義가 세워졌다. 近來에 와서 學者이고 藝術家인 建築家를 建築上로 한 것은 日本人들이 그 나름대로 建築家라는 그 職責外에 忠義心이 強하다는 ‘사무라이(武士)의 武士의 德義와 높은 人格을 加味하기 위하여 士字로 만든 真義는 어느 程度 理解되나, 역시 日本이 남기고 간 弊風’임에 틀림 없다.

3. Architect의 姿勢

U. I. A. (世界建築家聯盟)의 1955年 Hague 第4回 總會에서 決議된 Architect의 定義나 A. I. A. (美國建築家協會)가 1950年 施行한 規定에 依하면 建築家は,

첫째로, 不定的 依頼者인 建築主를 對象으로 自營하는 建築家와,

둘째, 俸給을 받고 官公署나 会社에서 設計監理 또는 營膳을 行하는 者.

셋째로, 學校의 建築科에서 建築家를 養成하는 者.

를 말하는 것으로 以上 3種을 美國에서도 建築家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請負業者로 在職하고 있는 사람중에 以上の 資格이 具備되어 있다 하더라도, 建築家로서의 資格은 傷失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別途의 法的인 拘束은 안되고 있다.) 外國의 例를 보면 Architect라는 타이틀을 名譽로운 職業의 資格으로 名脚에 반드시 쓰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A. I. A. 나 R. I. B. A. 또는 B. D. A의 會員일 때에는 이를 名譽로히 여겨 꼭 적어 넣는다. 우리나라에서는 大概 建築士라는 資格을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그렇다고 建築家 ×××라는 代替名稱도 公認된 것은 아니다. 一般 社會에서는 漠然히 쓰여지고 있는 建築家라는 名稱도, 어떤 資格基準이 必要치 않는 畫家나, 彫刻家, 工芸家, 寫真家 또는 評論家나 作家등과 같이 자유롭게 活用할 수 있다고 同一視하기 쉽다. 이러한 傾向으로 建築家라는 語義는 더자녀나 作家等の 概念에 가까운 意味를 지니게 되었지만 事實은 Architect라는 建築家の 일은 創造的 作業뿐만 아니고, 廣範圍한 責任, 即 完成된 建築의 質과 建築에 投資되는 資金의 기획등에까지 이르는 廣範하고 복잡한 것이다. 特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한 例로서 地球建築設計事務所라든가 ○○技術開發公社等과 같이 個人名이 아닌 名稱을 붙인다거나 株式會社 ○○事務所 또는 그보다 더욱 權威를 갖추기 위해서 인지 研究所 또는 研究室等の 名稱을 使用하는 것은 營利的이고 一方 營利을 은폐하려는 印象을 나타낼 뿐, 建築家の 威信의 向上은 안되는 일로 外國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나라만의 現象인 것이다. 이것도 Architect의 墮落으로 認識되는바에 一種의 要因이며 後進性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1955年 Hague에서의 U. I. A. 第4回總會에서 채택된 建築家の 社會的 地位, 建築家の 權利와 義務 가운데서 우리 建築士 協會員에게 권장할 事項만을 參考로 記載하자면 全 12項中에서 特히 아래의 3項을 關心있게 提言하고 싶다.

② 建築家は 依頼人의 利益을 위하여 全力을 다 하여야 하며, 그 職務에 拘束되든지 人類全體를 위하여 拘束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 ③ 建築家の社会活動에 있어서의 發展은 그의 優秀性에 달려 있다. 그는 宣傳을 하든지 不正으로 利益을 取得하여서는 안된다.
- ⑤ 建築家は 그 相互關係에 의하여 藝術家로 認定된 本質에서 他人의 作品을 剽竊하든지 逸脫하여서는 안된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外國에서는 事實上 이대로 實施되고 있다.

4. 결론적 제언

以上과 같은 建築家の 존엄성과 藝術性에 비추어 볼때 가장 Architect에 가까운 뜻에 建築士가 되어 國內에서의 信賴는 物論이며, 外國에서도 認定받을 수 있는 建築士로 善導하기 위한 對策의 設立과 올바른 報酬의 規定을 政府에 要求할 權利와 함께 建築士의 向上된 知識, 經驗 應用의 完全한 傾注를 義務化시키는 制度를 講究함과 同時に 몇 千年前부터 信賴와 尊敬을 받았던 職業的 權威를 迅速한 時日內에 다시 復旧할 수 있는 万全의 努力을 展開하기 위하여 몇가지 提言을 한다.

- ① U.I.A. 나 A.I.A.의 會員會則과 同一한 建築士의 定義를 실천하도록 再教育하라.
- ② 建築士는 請負業을 兼職할 수 없게 하라. (이에는 士法改正이 必要)
- ③ 靑写真, 地籍圖商도 兼業을 금하고, 設計가 副業일 때에는 차라리 協會指定 靑写真業으로 轉業을 勸告 誘導하라.
- ④ 商業的인 宣傳과 廣告를 中止시키라. (이는 治療에도 反映되 있음) 外國의 建築家 또는 画家나 藝術家는 宣傳을 안하고 있으며 病院에서도 營利目的인 宣傳은 금지되어 있다. 葬儀社의 상업선전도 自律的으로 自重을 하고 있지 않나?
- ⑤ A.I.A. 規定에서와 같이 학교 선생도 建築士의 資格이 있는 사람에게는 作品活動을 허락하라. (教育者가 實務를 떠나는 일은 特히 建築에서는 建築士業種의 中断이라는 모순이 생긴다. 教育者의 建築士·二重職과 靑写真, 地籍圖 그리고 商人의 二重職 내지 請負業과 設計의 二重職과 比할때 그 어느것이 建築士의 權威를 損傷시키는가에 對한 冷澈한 比較 있기를 바란다)

- ⑥ 官庁의 手續을 目標로 하는 設計와 外國에서도 認定될 수 있는 程度의 設計를 製作하는 會員間의 報酬도 漸定的으로 區別하는 制度에 의해 멀지 않아 全會員의 設計에 質的인 向上이 있도록 制度化하라.

- ⑦ 6項이 이루어 질 때에는 1級, 2級の 制度는 撤廃 單一化 하라.

- ⑧ 建築士 個人의 個性에 따른 作品도 重要하지만 依頼者에게 損害를 입히지 않는지를 協會에서 制度的으로 監視하라.
- ⑨ 人類, 都市, 社会 全体를 위하여 柔盾 되는 作品이 아닌지를 全 建築士의 尊嚴性을 위하여 制度的으로 監視할 必要가 있다.
- ⑩ 이밖에도 建築士의 品位向上과 報酬의 適正性을 위하여 取하여야 할 措置를 義務化 할 수 있는 協會運營을 優先하라.
- ⑪ 建築士의 德義와 藝術性의 向上은 地位의 向上과 直結되므로 時急히 協會에서 重點的인 再指導가 必要하다.
- ⑫ 協會의 任員은 奉仕職이므로 本·支部를 莫論하고 往來重任하지 못하는 規定을 세우고 外國에서도 Architect로서 通用 될 수 있는 資格을 具備한 建築士中에서 被任될 수 있도록 하여 全 建築士가 하루 速히 眞正한 意味의 Architect的인 建築士가 被選되도록하여 指導, 運營 할 수 있는 制度的인 改革을 勸奨한다.
- ⑬ 建築士라는 日本式的 職名을 Architect로 歸一 될 수 있는 名称인 建築家로 統一 시키므로써 社会的인 混同性을 없애고, 代書士에서 오는 느낌과 같은 建築士보다 自負心과 職業에 對한 優越性을 自認할 수 있는 方向을 摸索 할 것.
- ⑭ 登錄된 建築家란 英文은 어딘지 異常하다. 建築家이면 그냥 Architect라고만 해도 모든 資格이 具備된 建築家로서 世界 어느 곳에서나 認定 되고 있으므로 13項과 同時に 解決 할 것을 提言 한다.
- ⑮ 建築分野의 二個剛體인 學會와 家協會 士協會 가운데서도 建築士協會가 第1 Architect로 通用 될 수 있는 資格과 많은 運用資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또한 많은 弱點을 內包하고 있기에 10周年이 되는 올해를 契期로 모두 補強整備하여 外國의 Architect와 나란히 설 수 있는 品位와 信賴를 되 찾을 수 있도록 諸般 對策을 樹立 하기를 바란다.

새해 協會에 바라는 나의 提言

裴 基 溼

歲月은 流水같다는 俗談과 같이 協會創立이 벌써 十週年이 되었다니 대견하고 자못 感懷가 깊어진다.

建築士協會의 創立 過程은 旧建築代書士會와의 關係等으로 因하여 多岐多難하였거나 資格規程이 나오고 建築士가 選定됨에 따라 創立發起人會가 成立되어 創立 發起人の 한사람으로서 參與하였다는 것과 最近의 建築士 協會의 飛躍的인 發展을 바라보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갖게 되는 즐거움中的 하나이다. 發起人 Member는 모두 七人이었고 本人은 除外한 余他諸氏는 모두 協會의 役員을 거치면서 活躍을 하였으나 本人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子息을 보는 父母의 마음으로 成長을 지켜 보고만 있는 것이다.

發起當時의 意慾은 實際의 일을 다루는 建築士들의 權益을 擁護하는 일에서부터 定款草案의 檢討, 業務에 관한 諸般法の根拠를 마련하고 나아가 建築士의 資質向上을 圖謀 하였던 것으로 記憶한다.

建築學會 建築家協會 等の 既存 두 團體가 各已 設立趣旨와 目的特性에 따른 活動을 通하여 韓國建築界의 發展에 이바지하고 있는中에 一定한 國家試驗을 거쳐서 얻은 資格免許와 登錄을 갖춘 特定人의 團體인 建築士協會는 마침내 誕生되어 建築行爲의 第一線에서 現實的인 問題에 가장 密接하게 關係되어서 그 活動內容이 全体建築人은 勿論 一般 國民에게 直接的으로 影響을 미칠뿐 아니라 具體的 利害關係에까지 波及됨으로서 公益을 圖謀 하는 하나의 人格體로서의 責任과 義務를 더욱 통감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가지 條件속에서 建築界의 發展과 나날이 맞게되는 矛盾과 不條理를 打開해 나가려고 애쓰는 建築士들이 健在함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同僚의 한사람으로서 建築士協會의 役割에 거는 期待는 큰 것이다.

建築士協會라 함에 있어 그것은 協會의 執行部나 構成員을 指摘하기보다는 共同善을 追求하는 制度 또는 理念 共同体라는 意味로 理解하고 싶고, 建築士協會에 바라는 것이란 어느 特定人이 또는 어느 公共의 職責이 아니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너와 나 모두가 理解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共感이며 믿음인 것이어야 하겠다.

建築士의 權益만을 保護하는 그 自体만이 目的이 아닌

부끄럽지 않은 建築 文化暢達을 爲한 前提이어야 하며 建築士의 資質向上이란 다른 職業에 對한 相對的인 社會競爭力 強化보다는 올바르게 그 職業의 길을 걸어갈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建築士協會가 利益集團의 俗性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社會에 對한 責任과 義務를 되새길때 이는 바로 建築士의 眞情한 利益을 圖謀하는 捷徑이라는 見地에서이다.

建築士協會가 建築士免許所持者中の 登錄者만의 代辯者로서의 口實을 넘어서 全体建築人의 所望을 實踐하는 機構로서 登場하려면 모든 公共團體들이 犯하기 쉬운 經直性을 떨쳐버리고 分派性과 感情을 떠운 行動을 止揚하고 참다운 소리를 謙虛하게 받아 들일수 있으며 恒常 果敢하게 改善해 나갈수 있는 制度的인 뒷받침이 必要하며 分派行動에서 오는 臭氣를 一掃해야 할 것이다.

大部分의 建築士들이 다 같이 느끼는 바람들이 集約되어 하나의 方向을 提示해야 할것인데 흔히 느끼는 것으로만 그치는 수가 非一非再인 것이다.

그때그때의 改善策이 提示되고 講究되어야 할 時期를 노치고 累積되면 矛盾에 익숙해지고, 그 形式은 다시 內容이 되어 버리게 마련이다.

나 自身 오랜 設計事務所 經營을 通해 부단히 부딪치던 問題들을 다같이 生覺해봄으로서 어떤 示唆點을 發見할 수 있으리라 보며 意慾있는 젊은 建築家들에게 더 나은 建築界의 風土를 남겨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危懼心에서 平素 느끼던 바를 整理해 본다.

첫째로 가장 빈번히 그리고 切實히 느끼는 問題인데 以前에 建築士法의 設計 圖書登錄 條項의 改定案을 놓고 全建築界가 議論이 紛紛했던 점이 새삼스러우며 既往 登錄事務가 施行되고 있는만큼 協會는 한발더 나아가 官庁에 對한 許可節次도 代行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勿論 여기에 따른 設計上의 瑕疵는 當該建築士에게 責任이 되돌아가겠지만은 許可手續節次가 一元化되면 協會와 會員間의 關係는 더 密接해지고 登錄費의 徵收에서 오는 雜音도 살아질 것이고 同時에 許可手續의 陰性支出에 고민하는 事態도 없어질 것이다.

들제, 建築士法 및 建築法에 監理規程이 있지만 現實的으로 設計業務가 끝난 다음 段階에서 監理의 業務限界 및 그 報酬 規程의 履行이 어렵고 本意 아니게 予想의 事態로까지 發展하는 Case를 周圍에서 허다하게 보아왔다.

一般 建築主들이 생각하는 監理의 役割이나 重要性에 대한 認識도 問題이지만 竣工時에 竣工圖書를 다시 提出케 한다면 模湖해 지기 쉬운 相互 義務 權利가 確實하게 되며 竣工後에 發生하기 쉬운 電氣나 設備等의 눈에 띄지 않는 瑕疵를 施工에 關與하지 않았든 者와도 竣工圖書로써 쉽게 設計變更與否를 判別할 수 있고, 是正이 可能한 것이다.

이는 設計過程의 再檢討를 통해서 우리 社會의 固有한 條件들, 이를테면 材料施工能力 勞動構造 建築主가 가지는 建築에 對한 具體的인 要望等을 다시 反映해 볼 機會를 加緊으로서 좀 더 現實的인 條件에 부합되는 設計製作을 可能케 할 礎石이 되리라 믿어진다.

세째, 經濟開發計劃이 國家施策으로 推進되어 온 以後 借款事業에 該當하는 設計用役의 大部分이 外國人에게 消化되어서 國內建築家로서는 副隨的인 業務 即 國內法에 따른 建築許可手續 및 形式的인 監理業務를 担当하게 되고 잘 해야 Co-Architect로서 諸般設計의 材料選拔 施

工與否에 對한 意見交換等이므로 實際的인 利權은 물론 建築家가 좀더 깊숙히 계획에 參與해서 用役技術開發을 函養할 수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할 수 있는 機會를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네째, 現行制度로서는 建築에 關한 모든 部門, 即 設計, 構造, 電氣設備 等의 諸分野가 建築士에게 一任되어 있고, 實際的으로 각기 다른 分野의 專門家에 의해 이루어진 業務에 對하여서도 責任을 면할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어려운 事情들이 얹혀있는 것도 事實이기는 하나 建築士는 이러한 問題에도 세심한 주의를 傾注하지 않으면 自己責任을 다하지 못한 점이다.

紙面 關係도 있고해서 以上 平素에 생각하던 바를 要約해 보았지만 이밖에 더 時急히 解決되어야 할 것이 있는 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두 虛心 坦率하게 意見을 提示하고 또 스스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建築士協會이어야 하고, 最善의 改善策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建築士協會일 것을 중심으로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다.

筆者: (株) 構造社建築技術研究所

謹賀新年

乙卯元旦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支部

釜山直轄市支部

京畿道支部

江原道支部

忠清北道支部

忠清南道支部

全羅北道支部

全羅南道支部

慶尙北道支部

慶尙南道支部

濟州道支部

事務處長 盧炳健

事務局長 高鎮鶴

事務局長 潘德鎮

事務局長 朴贊英

事務局長 金昌南

事務局長 表仲浩

事務局長 金永允

事務局長 姜元昌

事務局長 金鏞津

事務局長 李在化

事務局長 金鳳烈

事務局長 梁泰浩

外職員一同

商街建物の Facade 에 대하여

金眞一

1. 머릿말

建物の 外皮는 밤(葉)이나 후두의 表皮처럼 견고하여야 의지하고 살만하다는 것이 人間の 通念이었으나 現代建物は 베나 사과와 같은 얇은 表皮를 닮아 간다. 都市의 基調를 形成하는 建物は 그의 外皮가 平面의 40~50% 이며 그의 形態에 따라 街路의 景觀이 달라보인다. 근년 商街景觀의 급속한 변화이유는 하나의 外裝材料가 耐力材에서 消費材化하는데 있다. 이것은 人間들의 취미, 기호에 편승하여 材料의 Lif Cycle를 더욱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그 하나의 예로 건축적으로 計劃된 映画館의 Facade가 건축적인 기능을 하고있는가? 어느 映画館을 막론하고 거의 開館日부터 Facade의 번덕스러운 장치들 때문에 건축적 기능을 할 수 없었다. 만일 映画館의 Facade가 건축적 기능을 하였다면 그 건물은 映画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이다. 그러나 Facade가 건축적으로 dramatic한 것을 건축계획이 영화에 先行하여 서투른 drama를 Facade의 장치들에 앞서 演出시켰다는 것이다.

商街건축의 사회적 수명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일은 이미 是止되었어야 할 일이다. 한편 古典的 건축사조 — 변치않는다 — 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다.

2. Rostow理論과 商街景觀

美國의 저명한 經濟學者 W. W. Rostow는 경제성장을 하여 모든 社會는 경제발전을 5段階로 나눌수 있다는 理論을 전개 한바있다. (圖1) 그에 의하면

1. 傳統의 社會
2. 離陸을 위한 先行條件期
3. 離陸
4. 成熟에의 前進
5. 高度大衆消費時代

로 区分하였는데 그의 理論을 商街建物 Facade의 Flux와 관계 지어 볼 때 現代의 개념의 商街는 英國의 Take off에서 成立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初期는 西洋史에서 말하는 産業革命期였다. 이 기간은 보통 1770~1820年의 50年間을 말한다. 産業革命이라고 하지만 變換한 것은 紡績과 織物을 중심으로한 輕工業뿐이었다. 실제의 重工業은 아직 存在하지 않고, 技術史的으로 이 기간을 특징 짓는

것은 오히려 作業機의 진보이며, 動力機로서 Watt의 Steam engine 채용에 끝친다.

英國이 19世紀 초엽에 Take off에서 19世紀 中葉에는 成熟期라고 함을 亞細亞文化圈과 비교할 때 도시경관 이 어떠 하였는가는 建築的인 것보다 文化史的인 이야기에 속함으로 여기서는 言及을 避하겠다.

筆者가 Rostow 圖表에서 관심있게 보는 것은 캐나다의 Take off와 成熟期, 高度大衆消費期의 시간거리가 짧은 것이다. 그리고 成熟期와 高度大衆消費期의 사회발전 순위가 顛倒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人口密度의 稀薄함과 풍요한 天然資源, 그리고 과감한 技術導入등에 의한 것이겠으나 이러한 양상은 오스트레리아에서도 發生될수 있다는 소지가 暗示되어 있다. 여기서 잠시 美國의 marketing의 成立과정을 살펴 보면

1. 生産志向性에서 (marketing)胎動期 (1870~1903)

에 獨占資本主義로서의 轉化時期 (marketing)成立期 (1903~1929) marketing 成立의 客體的 조건인 市場의 협소화와 市場 경쟁형태의 변화가 있었고

2. 販賣志向時期에 이르러서는 marketing)展開期 (1930~2次大戰), (marketing)의 主體의 客體的 조건에 따르는 資本主義 구조화는 獨占資本主義의 발전과 함께 成立, 展開하여 2次大戰후의 managerial marketing의 成立期로 유도 된다.

圖1에서 美國, 佛國, 西獨이 가지런히 成熟期에 들어 가는데 이 期間은 鋼鐵이 생산되는 二次産業革命期였으며 이때 부터의 社會發展은 加速을 더하여 商街建物 Facade의 Flux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圖1의 上부분인 英國에서 日本까지는 비록 時差는 있어서 各國의 發展과정이 秩序있는 것이었으므로 社會가 안정되고 商街景觀構成에도 각중요소의 集積이 建物の 다양으로 나타나서 街路의 年輪을 말하여 준다. 이른바 先進國이된 이들나라의 社會發展이 그나라의 內存的 조건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오래된 기간 햇빛이 들지 못한 植民地가 있었다는 事實을 우리는 특히 잊을수 없다.

100年前의 London과 50年前의 東京의 地下鉄에서 植民地가 아니면 열두도 못 내었을것이라는것을 나는 절실히 느낀다.

國家成長은 生物의 成長과 本質的으로 달라서 국가 상호에 인간처럼 父子가 있어서 子가 몇년후에는 어른이 된다는 約束이 있을 수 없고, 貿易, 文化交流등을 통하여 발전도 되고 또는 戰爭으로 停滯, 滅亡도 된다. 즉 國際間의 환경이 큰 조건으로 存在한다. 都市의 構成도 바로 이와 같은 照致로 興하고 또는 亡한다.

이런 뜻에서 캐나다와 오스트레리아의 街路의 景觀에는 文化는 있어도 歷史는 있거 어렵다. 여타의 긴 歷史와 文化로 累積된 街路에서 어느 하나의 環境을 改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어느 몇개의 歷史的環境을 파파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근자에 와서야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慣習이 과거를 保守하고 流行이 未來를 志向하는 兩者의 時間軸의 현상은 항상 日常화된 生活空間의 현실면에 선다. Rostow理論의 상식적인 눈으로서는 소련이 불원한 高度大衆消費時代에 들어갈 가능성을 가졌다.

이것은 國民所得 500 \$를 넘을 때 食卓이 食物性에서 動物性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으며, 食糧危機를 加增하는 時点이기도 하다. 스탈린 時代의 소련은 식량위기에 처하였을 때 Original Calory 때문에 牧場의 家畜을 없앨 수 있는 獨善의인 政策이 먹여 들어가는 時代는 이미 지났다. 이것은 그들과 같이 統制된 社會의 都市商街景觀에서도 Facade의 Flux現象이 始動할 수 있는 時点에 와 있다고 보고 싶다. 勿論 그들의 社會體制가 이에 대한 答을 줄 것이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과연 어떠한 商街景觀이 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3. FLUX 現象의 低辺

商街建物 Facade의 裝置物의 lifecycle을 商街경기와 관계지을 때 現代의 소비자는 수입의 불이상이 생활필수품 이외의 상품과 service에 쓰인다는 것과 相關관계가 있다. 이 추세는 점차 上昇하여 이른바 大衆消費時代에 이른다. 소비시대의 商街는 소비자에게 그들의 地位를 만족시키는 상품을 공급하여 물건을 싸게 샀다는 納得感을 주고, 그 인식을 명확히 굳히기 위하여 상품뿐 아니라 建物과 그 Facade에서도 優位性과 有利性을 視覺的으로도 지속 시키려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歐美의 total marketing会社에는 다음表와 같은 機構가 있어서 Facade를 부단히 開發시키고 있다. 그들의 영향이 때로는 모방의 수단으로 우리의 商街Facade에 奇拔한 착상처럼 나타나지만 어딘가 環境과의 違和感을 면치 못한다.

total marketing会社는 表現企圖의 立案, 言語化, 視覺計劃으로 장치물을 具體化시키는데 이것은 文字의 시대에서 image의 시대로 옮겨지고 있다는 뜻이다. 원래 文字는 言語의 記号이고 하나의 記号에는 항상 복수의 語意와 語意사이의 모호한 경계선을 내포하고 있다. 이 모호한

言語와 意味作用의 無理解에서 諸惡의 근원으로써 비약할 때도 있으나 실재는 그런 위험선 앞에서 照性的의 자동제어가 반사적으로 발동한다.

求心の 여가공간인 상가에서 기분풀이하는 젊은이의 心理가 다음날 分散的 여가공간인 산과 바다를 차저가는 것은 成人層이 千余年 신비롭게 묻혀 있던 慶州의 고분을 성급하게 파헤친다거나 Sauna湯에서 溫湯과 冷湯을 번갈아 돌락거리야 직성이 풀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그 번덕성의 深層은 어른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속의 사람에게는 Rome의 古代의 험소하고, 침침한 街路 景觀에서 불과 一週口에 倦怠를 느끼는것은 無理가 아니다. 변화하지 않고는 못견디게 되어 있는 자에게는 Rom의 변화없이(時間거리) 반복되는 街路에서 지루함과 따분함은 차라리 苦役비슷한 일이다.

4. 裝置의機能

건물을 人工的 Set—裝置의 大型이라면 商街建物 Facade는 小型장치에 해당할 수 있다. 장치에는 舞台裝置와 映画에서의 open set가 있다. 무대장치는 일정한 곳에 既定의 가정하에 만들어진 角度에서 정하여진 方向과 視路離가 있다. 한편 映画는 Camera가 자유로 회전하여 렌즈를 통하여 映像에 의한 造型性이 추구된다. 그러기 때문에 映像은 현실유사의 성격에서 모든 것의 open set와 location set도 현실적事實的의 경향이 주류가 된다.

이러한 포괄적 의무에서 映画의 set는 무대에서의 장치적인 뜻을 지닌 것보다 實際的인 뜻을 가진다. 이것은 대상이 人工的인 창조물이던 自然的이던 같으다. 그리고 장치의 전체인상이 또는 여기서 생기는 분위기에 따라 행위하는자에 투색되어 갈 수 있다.

한편 장치는 행위 또는 그 기능적 상태를 뜻하지만 觀者에게 효과적인 演出을 위하여 設이 따지면 예술성의 요구가 있다. 또 그 語彙에 장식과 同義語化的 성격이 있다. 장치와 장식은 그 語彙가 임시적, 잠정적, 순간적, 가식적, 공적, 보조적등의 nuance를 지니고 있어서 영구적인 建物이나 政策的 都市計劃에서는 그 nuance이상의 기대를 하면서도 實際적으로 比重을 두려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建物 Facade에서 裝置와 裝飾은 그 자체가 아직 獨步的가치를 창조하기에는 어렵다. 단지 부착되어 그것이 표현 하여야 할 주기능을 強調하며 媒介하면서 그 魅力에 주의를 집중시키며 그 受容과 이해가 쉽도록 하는 보조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치 장식은 일종의 가치표시 또는 가치매개로 역활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스스로 自己價值를 억제 또는 格下시켜 어떤 表출가치도 가지지 않는 形式을 위한 形式이 요청될 때가 있다.

Paris의 Etoile凱旋門기둥(차라리 벽이 옮겨졌다)의 웅장하기 조차한 彫刻은 觀者의 시야에 그 建物이 꼭 찰만큼 Champs Elysees에서 접근하여서 비로서 식별할 수 있었다. 또, Notre Dame출입구 Arch의 많은 人物像의 彫刻은 Notre Dame의 廣場에서가 아니라 聖堂으로 들어가려고 가까이 접근되어서야 비로소 세심한 주의를 하게 되는 것은 主體의 強力한 상징적인 개성 때문임은 筆者만의 인상이 아니라 생각한다.

凱旋門이나 이 大聖堂의 이러한 裝飾, 裝置의 彫刻은 그 주제를 구체적으로 知覺할 수 있는 거리에서 觀者를 無意識中에 다시 유인하여 凝視, 凝視토록하여 主體의 內의 存在 意義를 伝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手法은 現代 店館나 백화점의 장식은 그곳에 陳列되는 상품보다 뛰어나게 하는 것은 商品을 돋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스스로 억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建築은 本來的 表出價値 또는 의미내용을 고도로 구체화시켜야 할 책임을 더욱 느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못한 곳에서도 Facade의 裝置物은 補助기능으로서의 自己 기능 領域을 넘어 建物Facade를 완전히 덮어 sign化 建築이 되어간다.

商街에서 外裝이나 裝置物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는 外裝에 建物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니 그 원인은 外裝과 장치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論理的으로 建物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문제의 核心을 관해쳐 가는 것이 life cycle이 보다 길 수 있는 外裝으로의 展開 순서이다.

5. 象徵과 個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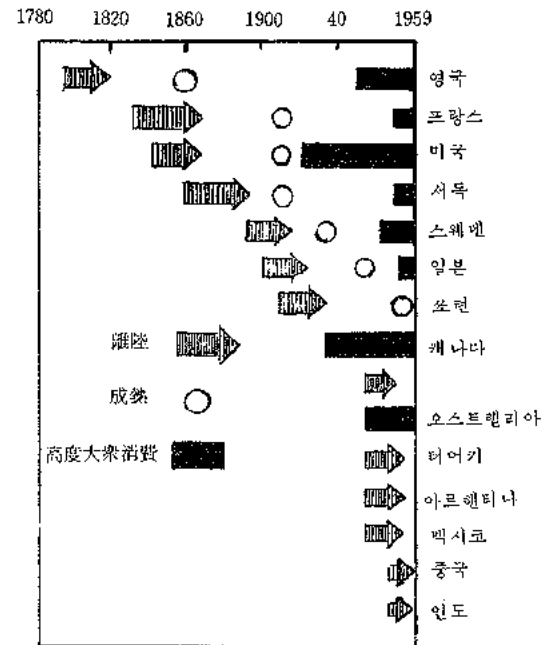
원래 建物은 그 자체가 하나의 象徵이며 個性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 建築은 국제적인 同心圓의 商業建築化의 조류에서 건물자체의 象徵이나 個性을 창조 유지하기에는 점차 어려워지자 단지 Facade에 어떤 象徵의이며 個性的인 의미를 表出하려 한다.

아래한 결과는 綜合藝術이라는 建築의 개념에서 타락(아니면 발전)되어가고 이 墮落이라는 오명이 두려워 건축개념의 變質이라는 말로 대치된다. 墮落하고 변질된 建物의 특색이 Facade에 裝置物로서 古典的建築의 찬란하였던 시대의 榮光을 유지하려는 흔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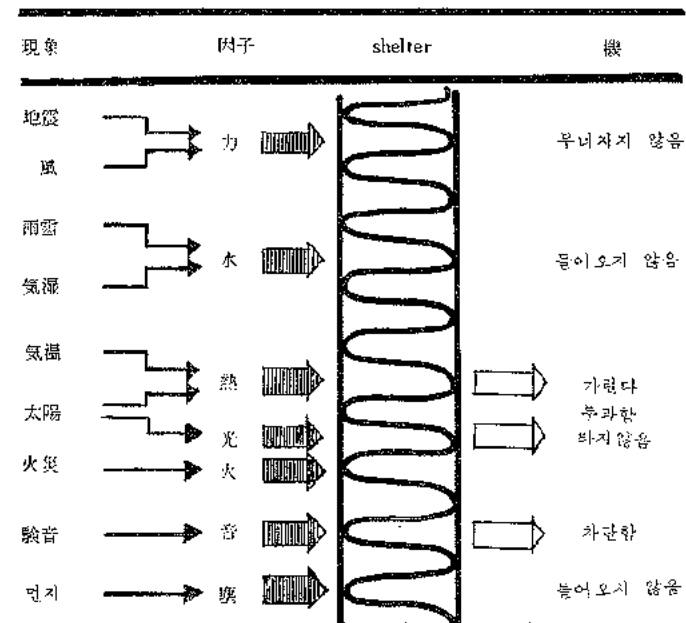
장치물로서 되차져서는 상징은 元來 회합語의 接合한다에서 유래하였나 한다. 이것은 어떤 뜻을 나타내는 形像을 말하고, 흔히 感覺의形像이 그 本來的 뜻에 첨가하여 非本來的의 의미도 내포한다. 넓게는 言語, 神話, 宗教, 哲學등의 文化영역 사회활동의 전반에 넓게 쓰이는데 특히 예술에서는 부단히 새로운 象徵의 창조로 美的 가치의 구설에 참여한다.

그리고 Facade의 象徵의인 것의 美的觀照는 본질상 自我와 対象間의 거리를 두는에서 성립한다. 그것은 自我가

어떤 태도로 対象을 受容하는 작용이고 특히 미의식에서 觀照는 무관심성이 특징이다. 따라서 美的觀照는 美的靜觀과 거의 같으며 특히 Facade는 본래 可視의인 것이지만 여기서 개성의 有無로 Jungle化된 商業建築속에서 自我를 觀者에게 知覺·連想시켜줄 수 있다.



〈圖1〉Rostow의 理論



〈圖2〉Shelter에 作用하는 因子

Total Marketing의 會社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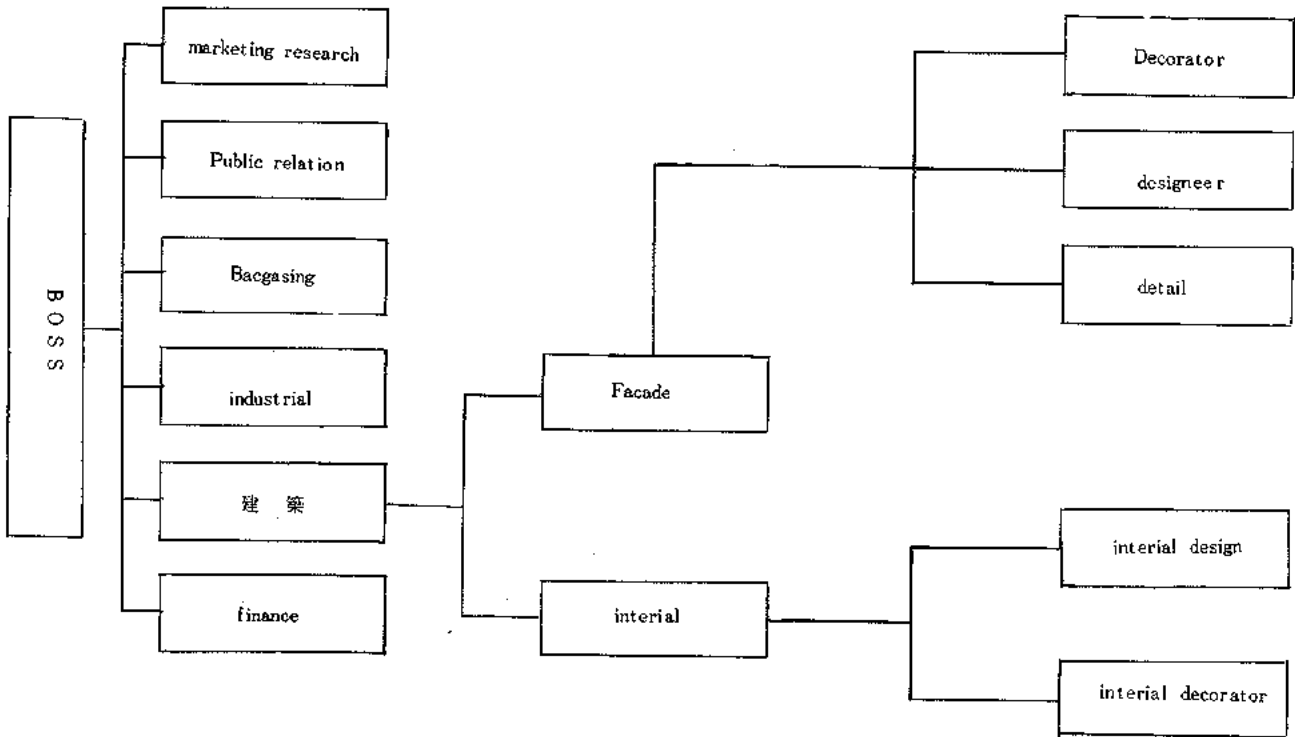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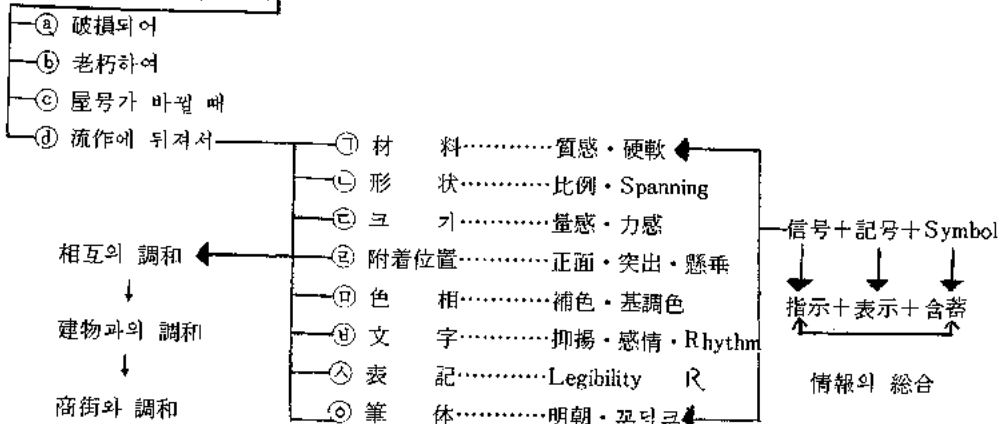


表 1. 商街裝置物의 Flux의 因子

1. 商街 或은 建物이 새로 지어질 때.....再開發地域
2. 部分的으로 建物이 變形될 때.....建物의 老朽
3. 外裝材의 代替될 때.....材料의 Life Span
4. 業種이 變化될 때.....經濟活動
5. 建物의 sign化될 때.....商街水準에 建物質의 未 洽할 때
6. Shelter의 Painting될 때.....色彩建築宣言, 1921年
7. 裝置物의 代替될 때.....
8. 天災로 都市가 廢墟化될 때.....偉大한 可能性의 상태



6. 外裝의 Flux 現象

建物の外裝은 軀體를 덮어 減耗環境으로부터 建物을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機能的 美的要素를 充足시키려 하고 있다. 特히 美的要素는 무엇보다 크며 그것이 그대로 建物과 環境을 規定지어 버리는 수가 많다. 오랫동안 나무와 흙으로 집을 짓고 살아온 人間은 근대에 와서 鉄 Concrete·유리등으로 이 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리고 高分子學에서 태어난 Plastic과 electronics는 技術을 飛散시켜 不定形化되고 人間이 생존하는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流動化하고 瞬間的으로 明滅하는듯한 傳達方法마저 낳고 있다. 또 이들은 어느 사이에 構築的인 材料에서 環境的인 위치까지 차지하였다. 그것은 可視的인 것이며 實體的인가 하면 無重力的·薄膜의 순간적인 sign, signal의 傳達도 가능케 하였다. 이 材料로 점차 建物은 外裝을 이루고 그의 Life Cycle은 그 材料의 生産速度에 比喩하여 商街의 景觀을 부단히 바꾸어 놓는다. Rostow理論의 高度大衆消費期 以前の 建物 外裝材는 그의 物的인 수명을 다할 수 있었다. 그후에는 商街利用의 激增이 넓어지고 그 要求와 기호는 다양하여 外裝材의 Life cycle이 짧아졌다. 이러한 風潮는 外裝材의 Life cycle만으로 滿足치 못하고, 建物外觀에는 裝置物이 부착되기 시작하였다. 장치물중 看板이 으뜸가고 都市에 누적된 정보는 街路의 장치물로서 Bill board를 세웠다.

商店의 屋号로서의 裝置物에는 望了를 지적할 수 있으나 言語가 記号化된 看板은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 建物 Facade를 여하히 Cover 하느냐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간 商街外觀이 시민의 심판 대상이 되었다.

商街外觀을 Rostow의 傳統的인 社會에서처럼 外裝材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한다면 우선 外裝材의 Life Span만큼이나 商街外觀의 Life span이 길어져야 되니 이것도 실은 참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圖2〉는 外壁에 作用하는 각종 因子이다. Shelter에는 그 機能에 따라 材料가 쓰여질 것이나 自体의 Life span이 길더라도 그 材料 주변의 여건으로 위 Flux현상이 온다.

表1은 商街外觀裝置物중, 특히 간판이 바뀌이게 되는 要因을 정리하여 본 것이다. 여기서 1~7은 商街 Flux의 肯定的인 것이고, 8은 否定的인 것이다.

韓國國民의 生理가 4“業種의 變化”에서는 明確한 外觀에 손을 보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은 그 外觀의 良惡이전에 自身の 不安定과 土着宗教的인 心理作用이 크고 기능과 생활의 再現성도 여기서 얻으려 한다. 8가지 열거중

Life span이 아니라 Life cycle이 가장 짧은 것은 7의 裝置物의 Flux이다. a.b.c는 위이 納得이 갈 수 있지만 ④의 “流行에 뒤져서”라는 것은 主觀的인 것이며, 客觀的인 것이 되기 어렵다.

ㄱ~ㄷ은 分명한 消費材이므로 그 Life span을 다하지 못하고, 73년과 74년에는 한해에 3~4개월마다 바뀌이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商街裝置物 정비라는 人爲的인 作用이 있었으나 그들의 經濟性 檢討가 있음직하다. 近年 우리 나라에도 外觀裝置物에 marquee, canopy, awning이 등장하여 部分的인 아닌 Facade 全面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規制야말로 서둘 필요가 있겠다.

모든 經濟活動이 그러하듯이 Facade 裝置物의 施設費의 減価償却기간을 도의시 할 수는 없는데, 美國의 例를 보면 施設費에 대하여 그 허용된 存置기간은 다음과 같다.

\$ 500以下	6個月以內
500~1,000	12 "
1,000~3,000	24 "
3,000~6,000	48 "
6,000以上	60 "

그리고 美國에서는 여하한 裝置物도 5년에 한번은 크게 손질을 하여야 한다는 規定이 밝혀 있는데, 이것은 減価償却기간의 60個月(5年)에 해당하는 Facade의 裝置物施設費와 맞먹는다.

外壁→外皮→外裝은 두말할 것 없이 〈圖2〉의 Shelter 機能을 要求하는데 Facade의 各種裝置는 内部的인 裝置와 本質的으로 다르다. 建物은 生活空間의 部分 部分的인 集合이다. 人間의 行動單位는 房에 있는 것이지, 建物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大部分의 사람들은 錯覺하고 있다. 各各 意圖된 房들은 모여 全体로서 幾何學的인 Drama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같이 内部的인 裝置는 徹底하게 個別的인 것에 대하여 外皮라고 하는 것은 復數의 房을 하나의 기호와 同時에 묶어서 外部環境과의 질서를 유지하여야겠다는 二重性을 지녀야 한다.

筆者：漢陽大學校 工大教授，工博

지붕 防水工事を 失敗 한 例와 그 対策

安 仁 模 (譯)

“먼저”

여태껏 건설업계는 너무도 보수적(保守的)이며 폐쇄적이었었다. 그 많은 소식에서 갖가지 사고들은 보도되었어도(알려졌어도) 아주 작은 한 부분만 밝혀졌을 뿐, 그 원인일량은 그 일을 맡은 사람들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럿에게는 넉넉히 논평되는 일이 적어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수가 많았다. 이와 같은 흐름은 더욱이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옛부터 “섹슈널리즘”(파벌주의)으로서 몸에 배어 있어서 전작부터 식자(識者)들이 지적(指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이번에 건축협회(일본)에서는 시공회사(9개회사)의 도움을 얻어서, 방수공사에 얽힌 사고로서 정말 있었던 본보기를 서보 내놓아 모아놓고, 그 원인과 대책을 검토하여서 방수기능을 여무지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모든 방수공사라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그 본보기 또한 어마어마하여져서 이번에는 가장 흔히 있는 건축물의 지붕방수의 범위로 한정 지은 것이다.

그렇지만 건축물의 빗물새기 원인은, 설계, 시공, 방수재료, 방수밀바탕, 방수층 짓누르기 및 유지관리의 여러 분야에서의 불비결함(不備缺陷)이 단독으로 원인을 이루지는 않는다. 서로 얽히고 설켜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하나로 꼬집어서 매질수는 없으나 그 하나하나가 열키고설친것이 배수로운 것으로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번 조사도 하나의 정형(定型)을 찾는

것이 본 마음은 아니며 오히려 사례의 특종성(事例의 特種性), 잡다성(雜多性)에서 문제를 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의 방수사고 본보기는 37건이나 되므로 이것을 정리하여 공통된 요인을 찾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 구성은 소별 및 부위별(部位別)로 분류하여 보면 표-1과 같다.

이 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번의 본보기는 건물구조별로 보려는 83%는 철근콘크리트조이며, 방수 시공별로는 아스팔트 방수공법이 77%로 많이 차지하고, 시이트 방수가 몇 가지쯤 된다.

이 숫자만으로 방수공법 대세(大勢)를 이러쿵저러쿵 할수는 없지만, 아스팔트 공법에서는 품질개량이 잘 되어 있어서, 시공법 개량과 더불어 모든 종류의 건물에도 맏치시킬 수 있어서 코스트의 알맞음과 잘 어울려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리라.

다음에 실패한 본보기를 알리는 것인데 워낙 문제가 여러 갈래로 뻗어 있어서 부위별로도 10개 항목이상으로 주어 섞겨 적으면 뒤엎키기 쉬우므로 여기서는 아스팔트 방수공법과 시이트 방수공법의 두가지 공법으로 나누어서 부위별로 설명하는 것이 들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조사는 건축협회(일본)로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귀중한 데이터 봉기인데 시간관계등으로 충분히 정리를 다하지 못한것은 유감이다.

표 - 1 방수사고 분류표

부위별분류		처음림(수직) 부분					평탄(수평) 부분					경사부분		배수(물거기)부분		
		펜트 하우스	파 닷 트	두 겹 대	액 펜	쓰 순	끄 트 리	슬 램	슬 램 접합부	다른재료와의마주 닿는 곳	액 펜	쓰 순	용마루 윗부분	경사면	배수구 (물거기)	드레인
(1) 구조체	철근콘크리트조	6	4	1		2	8	3			1		1	2	1	29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1					1	1			3
	일부철골 일부철근콘크리트조		1						1					1		3
(2) 방수밀바탕	돌		2				4						1			7
	콘크리트	6	3			2	5	3			1		1	2	1	24
	기타			1					1			1		1		4
(3) 방수층	물						1									1
	아스팔트	6	5	1		1	4	3	1		1	1	1	3		27
	시이트					1	3						1			5
	철꺼풀						1								1	2
(4) 보호층	돌	3				1	3						1			8
	콘크리트	1	2				2	3			1	1		1		11
	블록·벽돌	2	3													5
	지갈													1		1
	노상						4		1				1	1	1	8
	기타			1		1										2

아스팔트 방수·펜트하우스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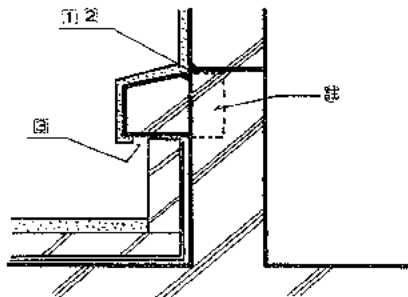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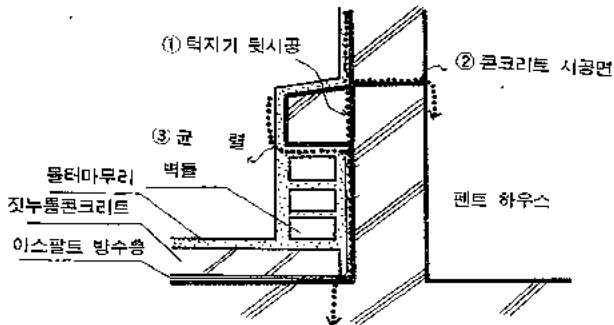


그림 1

누수(빗물새기) 원인

보기 ① 틱진곳 뒷시공 때에 물막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보기 ② 펜트하우스 콘크리트틀 질 때에 잇대어 차기 위치가 알맞고 바르지가 못하였다.

보기 ③ 틱지기 끄트머리와 방수층 치움림 높이가 똑같이 자리잡은 면이었기 때문에 틱지기 밑면 끝의 균열(틀림없이 균열이 갔다)에서 침수하여, 방수층 밑면으로 스며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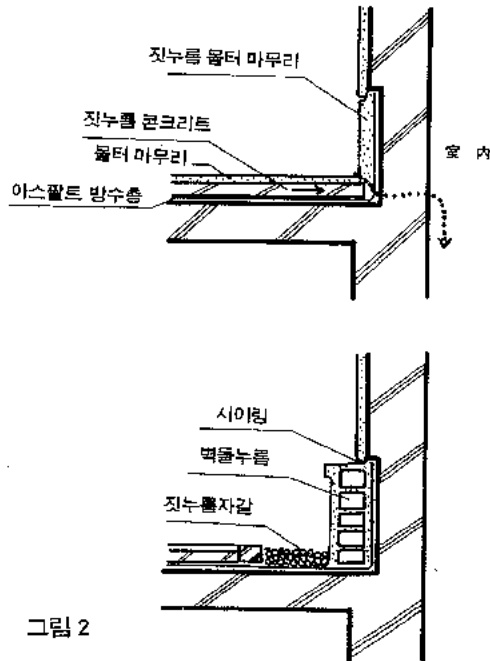
보수(물거고치기)

① ② 그림에 나타낸 곳을 V 자꼴로 쪼아 낸 다음, 탄성 시이판트 시공을 한다.

③ 틱지기와 방수층 치움림과의 물끓기를 건 되게 하기 위하여 물끓기를 새로 마련한다.

□ (註) 할수없이 뒷시공(콘크리트치기)을 할 적에는 벽체에 틱물림 되도록 시공한다.

에스팔트방수 · 펜트하우스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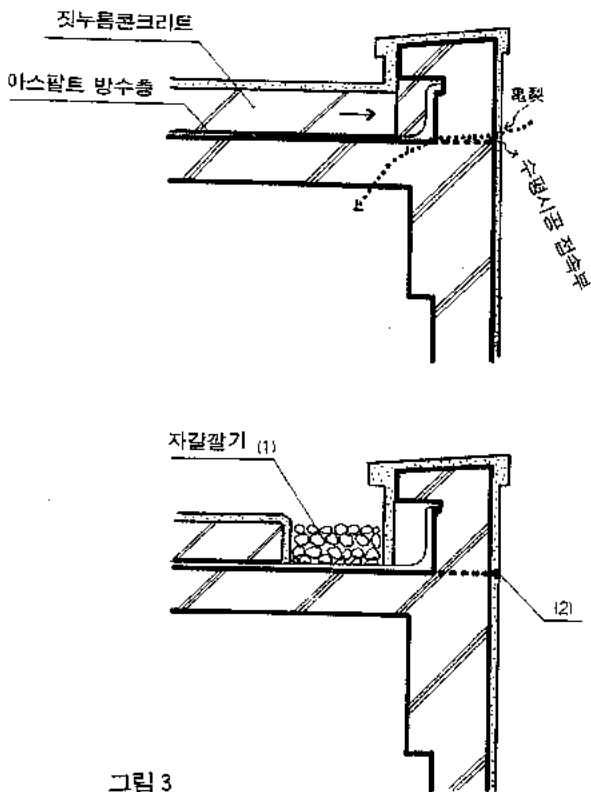
- 1) 짓누름 콘크리트의 가상자리 들레에 신축 줄눈이 마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짓누름 콘크리트가 온도팽창에 못견디어서 방수층 치울림 밀모서리를 짓밀어서 방수층이 파단(깨져·끊어짐)되어, 누수(빗물이새나)되었다.

보수(뜯어고치기)

- 1) 짓누름 콘크리트가 온도 팽창에서 오는 영향을 받지 않겠금 가상자리 구석진곳을 그림과 같이 뜯어내고 방수층 치울림 끊어진곳 손질하여 바로 잡고 치울림 방수층 짓누름 벽돌 쌓기를 새로하여 안정시키고 먼서와같은 지붕 바닥 방수층 짓누름 콘크리트가 치울림부분에 맞닿지 않겠금 도랑너비 만큼 사이를 떠어서 다시 깔내기하고, 도랑(빗물흐름)에는 자갈을 깔아서 방수층을 짓눌러 보호한다.

※ 치울림 방수층 짓누름 벽돌을 쌓놓은 다음 물터부터 바깥배에 벽체물기와 잇닿는 곳에는 시어링을 시공한다.

에스팔트 방수 · 빠리벳트 부분



누수원인(빗물새는 까닭)

- 1) 방수층 짓누름 콘크리트의 신축 줄눈이 보람있게 제구실을 못하여(신축 줄눈이 있으나 마나 하는 꼴이되어)치울림 빠리벳트를 내 밀었다. 이때문에 빠리벳트 수평접속시공부분에 금이가서 거기로부터 빗물이 스며들어 방수층 밑쪽으로 불이 흘러서 실내(방안)에서 비가 새었다.

보수(뜯어고치기)

- (1) 지붕 방수층 짓누름 콘크리트 가상자리를 쏘아서 뜯어 냈다.
- (2) 수평접속(빠리벳트)부분에 금이 잔곳을 V자꼴로 다듬어 낸다음 에포기시수지(樹脂)를 메꾸어 채웠다.

※ 에포기시(樹脂)는 일본의 무슨 상표 이름인것 같은데 수지를 만드는 회사인지 또는 수지 종류의 이름인지 잘 모르겠다.

에스팔트 방수 · 빠라벳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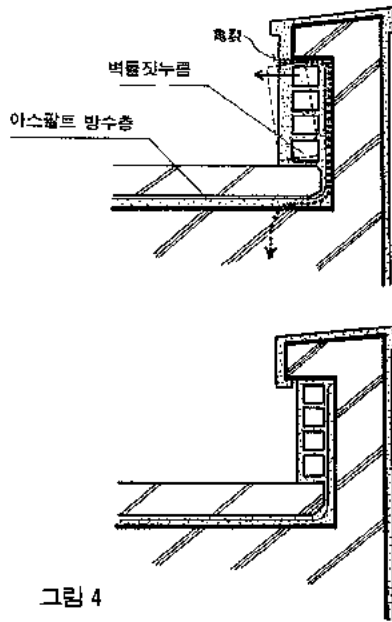


그림 4

에스팔트 방수 · 빠라벳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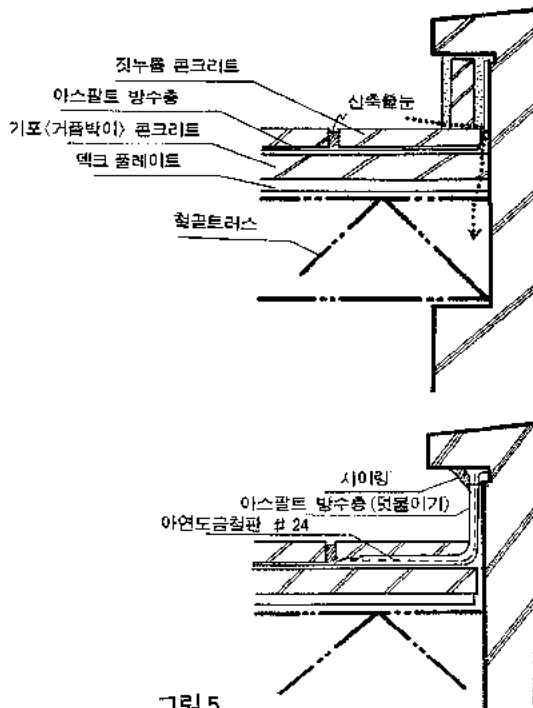


그림 5

누수원인(빗물새는 까닭)

- 1) 빠라벳트 부분의 물끊기가 워낙 있어야 할 곳에서 너무 떠러져 있었기 때문에 바라벳트 방수층 치울림 부분의 균열에서 빗물이 스며들어 방수층 속쪽으로 물이 흘렀다.
- 2) 방수층 치울림을 짓누른 벽돌쌓기 덩어리가 거울어진것도 빗물이 스며드는 꼬투리가 되었다.

보수(뜯어고치기)

- 1) 두겹대 및 치울림 방수물터를 다시 시공하며 원수 있는데까지 물끊기 칫수를 넉넉하게 잡았다.
- 2) 벽돌 쌓기를 다시하는데는 뒷쪽의 물탈 메꾸어 채우기에 주의하여 꼼꼼하게 시공하였다.
더욱이 맨 윗켜의 벽돌과 빠라벳트의 턱지기 밑면과의 틈틈에는 되게 갠 물터로서 메꾸어 채웠다.

누수원인(빗물새는 까닭)

- 1) 철골트러스 · 덱플레이트의 온도 응력에서오는 신축이 생기어 에스팔트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었다.
- 2) 덱 플레이트가 단면방향의 물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깔리어 있어서, 방수층 밑바탕 콘크리트의 수축작용이 물리적으로 물에 잠긴 곳에서 그진 행이 본것으로, R. C조의 빠라벳트 치울림 면과의 사이에 5~10mm 나비의 틈이 벌어져, 방수층은 이러한 작용에 따라서 깨져 끊어져 빗물이 새었다.

보수(뜯어고치기)

- 1) 노출된 기존 방수층 위에 아연 도금철판 #24를 사용하여 부착은 빠라벳트 방수층 꼭대기에서 끝마무리고, 그밖은 기존 방수층에 덧붙이는 것만으로 하였다.
- 2) 에스팔트 방수층을 덧늘려 붙인다음, 방수층 끝마무리 부분의 필요한곳은 사이링을 메꾸어 채웠다.

에스팔트 방수 · 빠라벳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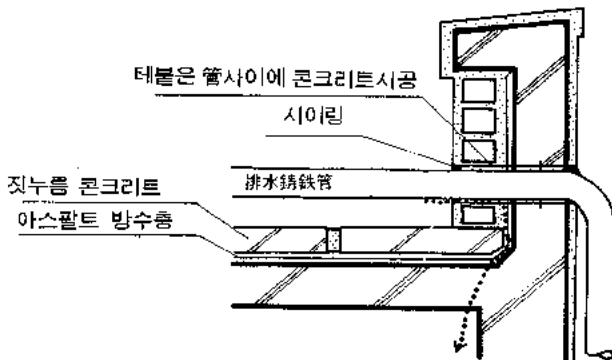


그림 6

누수원인 (빗물새는 까닭)

1) 직접 상관없는 배수관을 처리하는데 첫째 빠라벳트를 관통시킨것이 실패이였다.

그리고 관의 위치가 너무 낮아서, 관의 밑면에 에스팔트 방수층을 시공할때에 방수층이 처져서 관과 방수층 사이에 틈새가 생기어서 비가올때면 이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방수층 뒷쪽으로 물이 흐른다.

보수 (뜯어고치기)

1) 파이프를 잡아둘리는 에스팔트 방수층을 특수 루우핑 (망사 (그물모양) 루우핑) 을 동선 (구리줄) 감기로 꼼꼼히 고쳐 시공하고, 그뒤에 방수층 누름으로 하여 콘크리트를 잘 메꾸어 다지고, 물터 끝마무리어 시공한다. 보수부분의 방수 누름 주위에는, 신축줄눈을 넣어서, 시이링을 하여 주변의 짓누름과 절연 (끊어놓기) 하여준다.

에스팔트 방수 · 두겹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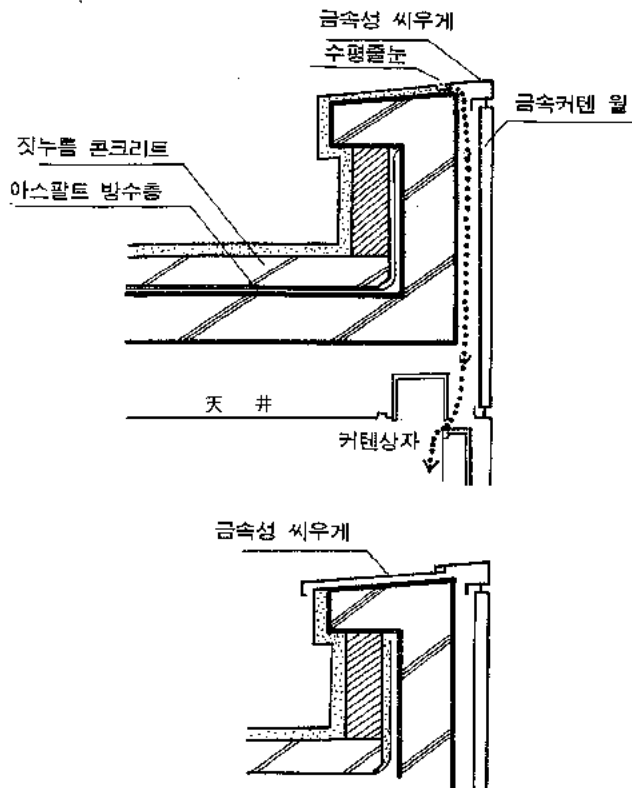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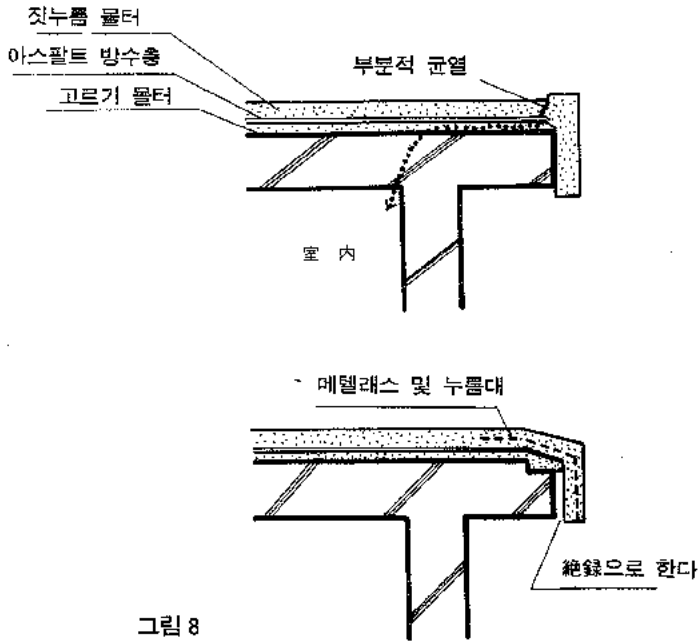
누수원인 (빗물새는 까닭)

1) 금속성 두겹대와 물터틈새에 탄성 시이탄트로 메꾸어 있었는데 이질 (바탕이 다른) 재료의 신축 차이로, 이 재료의 약점인 부착 (달라붙기) 이 실패되어 벗겨졌다. 이곳에서 빗물이 스며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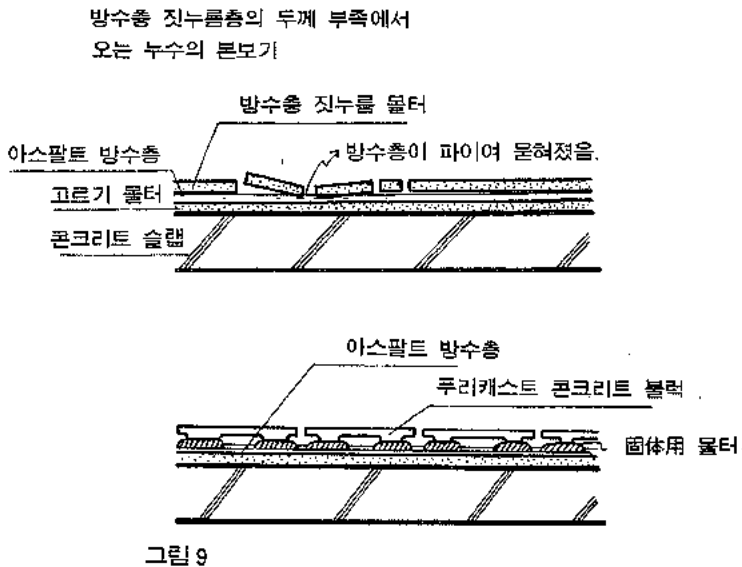
보수 (뜯어고치기)

1) 빠라벳트 두겹대가 일부 금속성이었던것을 두겹대 전체에 걸쳐서 금속성 두겹대로 고쳐 놓는다.

아스팔트 방수 · 단부(기트머리 부분)



아스팔트 방수 · 슬랩



누수원인(빗물새는 까닭)

- 1) 채양 옆구리 물터와 여느데(일반부)짓누름 물터는, 물터 바르기를 할때에 이어붙이기로 되기때문에, 그곳에 균열이 생기어서 빗물이 스며든다.
그리고 방수층을 붙여 마무리(느리어 내리어) 잡아놓리지 않았다) 하는데 잘못이 있어서 방수층 뒷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갔다.

보수(뜯어고치기)

- 1) 지붕끝을 느린불에 미끈히 지어서, 물터 보수하고, 굳은다음 마른바탕에 방수층을 만들어서 보수한다. 그리고 맨뒤에 짓누름물터를 발라서 보수한다. 이때에 옆구리 물터는 콘크리트와 사이 띄워 절연시키되 몰탈은 메탈라스에 집어넣어서 보강한다.

누수원인(빗물새는 까닭)

옥상에서 집회(集会)나 운동을 하는듯, 얇은 방수층 짓누름 얇은 물터가 여러곳에서 깨져있고, 게다가 그것물 깨진 조각을 짓밟았거나 했기때문에, 차츰차츰 방수층에 박혀들어가서 깨져들어갔다.

보수(뜯어고치기)

방수층을 전면에 걸쳐서 뜯어고쳤는데, 구조상 어쩔수없이 흔터하는 두꺼운 짓누름 층을 만들수없었다. 그래서 할수없이 푸리카스트 제품을 깔아서, 짓누름층으로 삼았다.

에스팔트 방수층 · 슬랩

추운 고장에 세워진 R. C조 3층집 사무소 빌딩

이 빌딩은 장차 증축할 예정으로, 물매가 없는 슬랩 위에 기포(거품박아)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그위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깔다음, 에스팔트 몰터로 물매지은 바탕에 에스팔트 방수를 시공하였다.

그리고, 옥상보행을 위하여 두께 3cm짜리 에스팔트 몰터로 된 짓누름층을 만들어 놓았다.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에스팔트 방수가 여름철에 부풀어 났기때문에 짓누름 에스팔트몰탈이 터져 금가고 여기에 스며든 빗물이 겨울철에 얼어서 방수층을 깨친 것이다.

짓누름층이 에스팔트 방수층의 부부분을 짓누르는데는 넉넉하지 못한(보자라는) 두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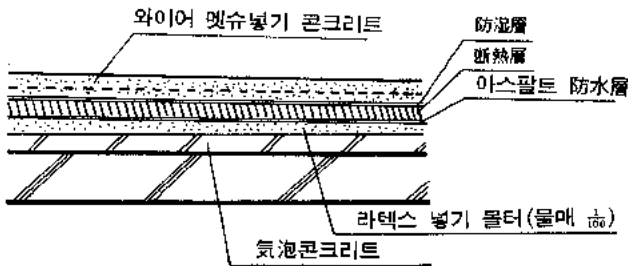


그림10

보수(뜯어고치기)

왼쪽 그림을 살펴서 알.

에스팔트 방수 · 슬랩

누수원인(빗물새는 까닭)

살펴보기.

- 1) 밀바탕 콘크리트 슬랩구조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서 방수층이 깨졌다.
- 2) 옥상의 기상변화(날씨바뀌기)에 따라서 1)에서 깨어지지 않았던것도 방수층과 밀바탕과의 접촉면 변위의 뒤틀림으로 벌어져서 파단되었다.

보수(뜯어고치기)

절어다니는일, 짐싣는일이 없을작에는 노출방수(들어난 방수)는 할수있으나 그밖의 경우(셀러스판벤손☆의대책 및 기상등 조건의 균일화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덧싸바르기 공법 경량 콘크리트랑에 따른 방수층의 모양이 바람직하다.

☆ 셀러스판벤손 : 밀바탕 콘크리트슬랩 구조에 균열이 발생됨에 따라서, 방수층이 파단할때의 양상을 나타낸 현장용어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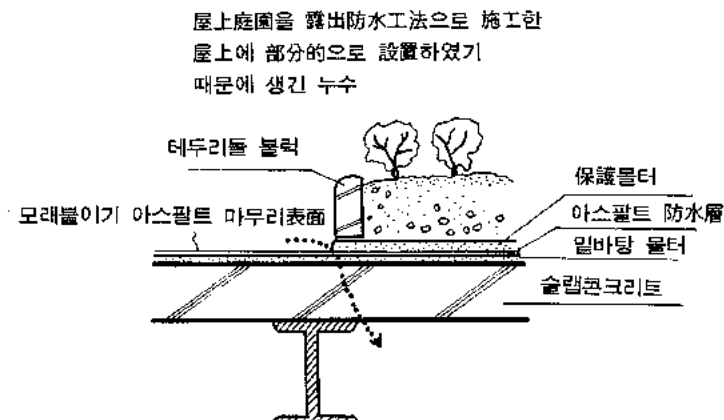


그림11

애스팔트 방수 · 슬랩접합부

SRC조8 층건물

건축준공 뒤에 4년이 지난다음 옥상(애스팔트 방수 경량콘크리트 짓누름)에서 밑의 층에 빗물이 섰다.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시공시의(임시 통로 구멍마워) 못쓰게된 구멍을 막아버리는 콘크리트 접속부분에 균열이 가서 애스팔트 방수층이 끊어졌다.

애스팔트 방수 · 슬랩 접합부

RC 조5 층집 사무소 빌딩

건축준공뒤에 1년이 지난 턱에서 옥상슬랩의 못쓰게된 구멍 막아버리기 콘크리트 접속부분에서 누수가 발생.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 1) 경량 콘크리트 시공시에 방수층 겹치기 치수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신, 구 루우핑의 접착치수가 작았다)이부분에서 빗물이 섰다.
- 2) 더욱이 못쓰게된 콘크리트 접속시공 부분은 철근이 늘어나서,自重(제 목에)으로 처져, 전조 수축으로 틈이 생겨서, 밀착시공되었든 방수층을 잡아당길 가능성이 짝었다.

보수(뜯어고치기)

못쓰게된 구멍을 막은 윗부분의 짓누름 콘크리트 및 애스팔트 방수를 뜯어내고, 콘크리트 접속부분을 V자꼴로 쪼아서 다듬어 낸다음 코오강을 한다.

보수 애스팔트 방수는 콘크리트 시공 접속부분을 덧싸바르기(덧싸발라서 그대로 비려둔다)로 하여 신축에 대하여 길들이게 한다.

㉠ 못쓰게된 구멍 막아버리기 시공에는 넉넉한 보강이 바람직하다.

보수(뜯어고치기)

- 1) 겹치기 길이로서, 맨윗겹 루우핑의 꼬트 머리에서 10cm 그리고 맨밑겹 루우핑의 꼬트머리에서 30cm를 최소한의 복표로, 짓누름 경량콘크리트를 따내고, 방수층 고쳐바르기 하였다.
- 2) 못쓰게된 구멍 막기 콘크리트 잇닿기 시공부분과 틈새 벌어진것을 막아낼 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생각한다.
 - a. 배근은 디블로 하여 알맞은 위아래 간격을 띄우기로 지킨다.
 - b. 배근 용접근을 잡아느렸을때에 아직켜지지 않은 좁은곳이 없도록 넉넉히 잡아느린다.
 - c. 배근은 폼보철근 또는 넉넉히 폭크를 만들어 놓는다.
 - d. 못쓰게 될 구멍의 단면 방향은 되도록 작은 치수로 마련한다.
 - e. 공사에 거치장 스럽지 않을 테두리 안에서 지붕슬랩 버티어놓기 공사는 되도록 오래동안 남겨둔다.
 - f. 접속 콘크리트 시공위치 분계선은 보옆쪽면에 맞추는 것을 미끼고 슬랩두께 만치 셋트백시켜서 콘크리트 시공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아스팔트 방수 · 슬랩 접합부

누수원인 (빗물이새는 까닭)

슬랩 콘크리트 잇달아 시공한곳에 균열이 생겨서, 방수층을 끊어버리는 꼬투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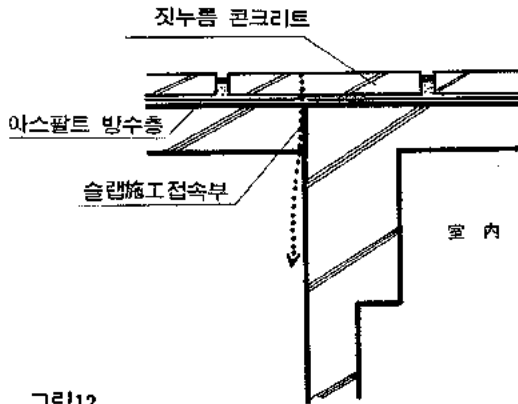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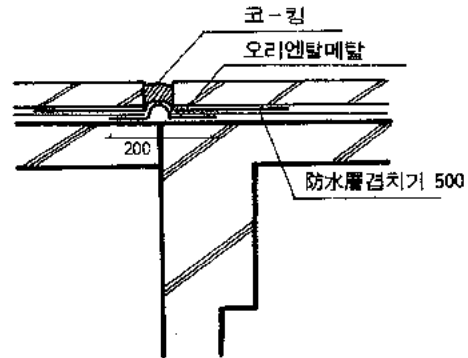


그림12

보수 (뜯어고치기)

오리엔탈 메탈을 집어 넣어, 신축 작용에 대처시켰다.



아스팔트 방수 · 다른재료와의 맞닿는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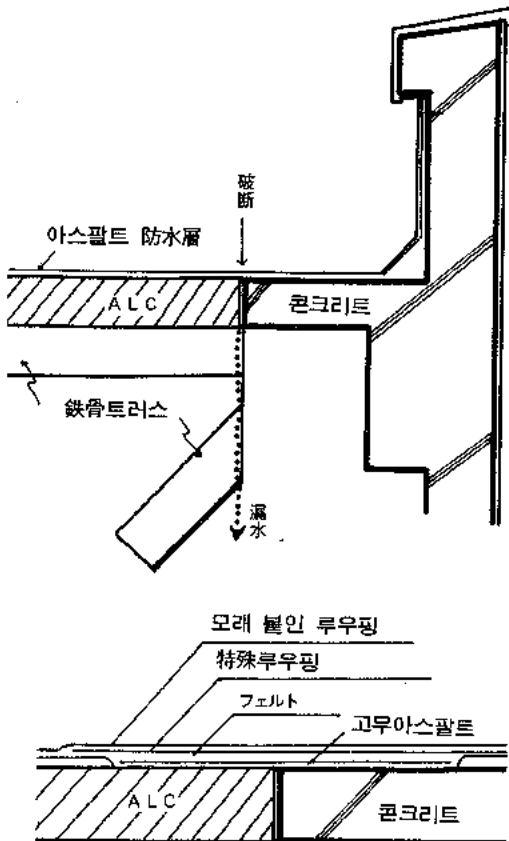


그림13

콘크리트~ALC판의 이음부분 방수층이 끊김에서 오는 빗물새기.

누수원인 (빗물이새는원인)

현장시공 콘크리트와 ALC사이에는 그재료의 강성 (뻣뻣하기)이 서로 다르다.

이런까닭에 건물에 아수작은 흔들림 또는 그밖의 영향이 콘크리트 부분과 ALC판 접속부분 (맞닿는곳)에 줄려서 잘려 끊게 되었다.

보수 (뜯어고치기)

현장시공 콘크리트와 ALC판이 맞닿은곳을 부분적으로 보수하였다. 그때에 방수층을 방수밀바탕의 거동 (신축작용, 흔들림 기타)에 대응되도록 시공하였다.

아스팔트 방수 · 엑스팬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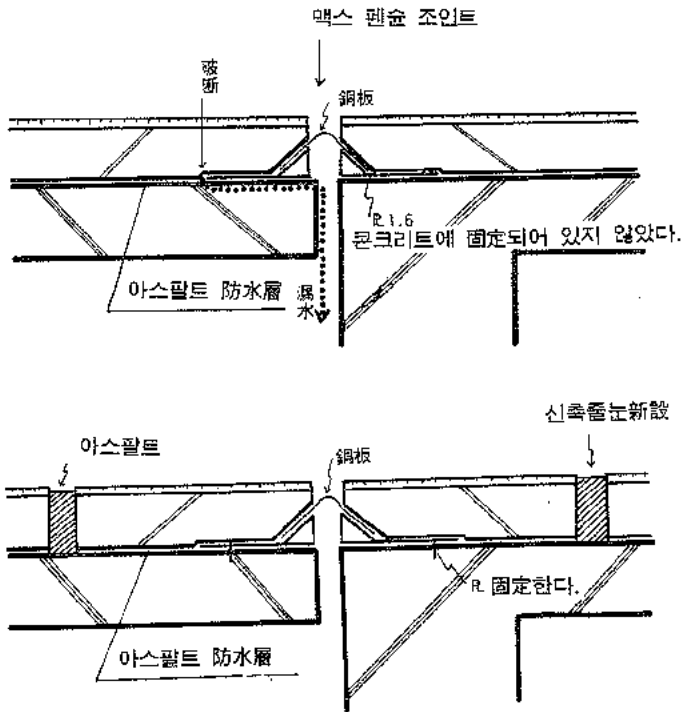


그림 14

아스팔트 방수 · 용마루 꼭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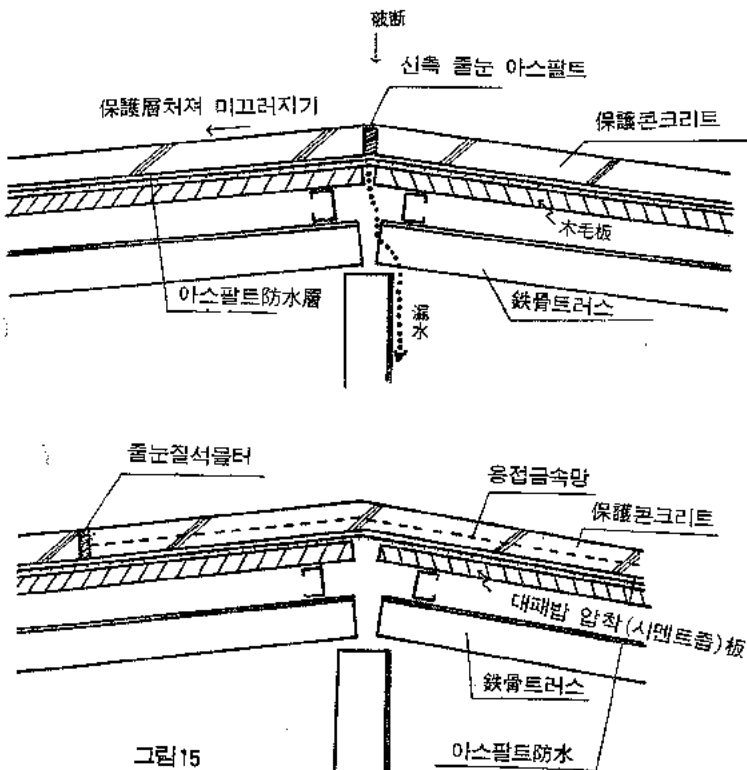


그림 15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방수층의 보호층에 마련된 신축조인트가 그 구실을 다 하지 못하여, 엑스팬션부분에 일그러지는 꼴이 생겨서 풀렸다. 이때문에 아스팔트 방수층이 일그러지는 꼴만 치 그 어울림이 뒤따르지 못하여 찢리어 끊졌다.

보수(뜯어고치기)

엑스팬션 쇠붙이를 붙박아 놓고, 방수층 짓누름의 신축작용 영향이 구조체 엑스팬션부분에 풀리지 않도록, 좀 떨어진 자리에서 신축조인트를 마련하였다.

옥상 용마루 꼭대기의 짓누름 콘크리트가 버려짐에 따른 방수층의 찢려 끊김에서오는 빗물새기.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저붕이 얼마쯤 물매져서, 여름철에 난씨가 더워졌을 적에 아스팔트가 물려져서 보호층 콘크리트가 좀 아랫 쪽으로 벌어졌다. 이때문에 용마루쪽 아스팔트 방수층이 잡아당길 켤림이 생겨서 찢려 끊기게 되었다.

보수(뜯어고치기)

용마루쪽 아스팔트 방수층에 잡아당길 켤림이 일어나지 않겠음, 용마루쪽 보호층을 한덩어리 되겠음, 배근(철근)하였다. 그리고 보호층 신축작용 줄임도 부분적으로 질석(蛭石)물탈을 매꾸어 채워서, 보호층 쳐져 미끄러지는 것을 줄이는데 힘썼다.

에스팔트 방수 · 비탈진곳

• 경사진 지붕의 깃누름 물막이
이교리점에서 생기는 防水層
파괴로 생기는 漏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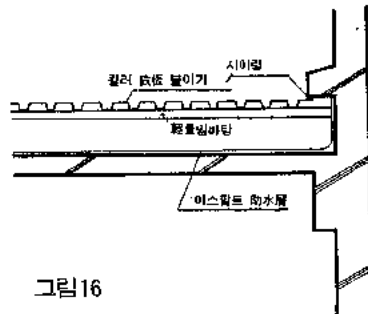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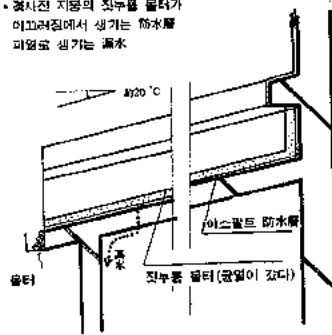


그림 16

에스팔트 방수 · 물빠기 도랑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에스팔트 방수층의 밑바탕은 라스시이트 물터 바로
기로서 도랑진곳 철판 1.6mm에 몰탈칠 하였다. 햇볕에
쪼이어 에스팔트 방수층 및 도랑철판이 뜨거워진다 이
뜨거워지는데 따른 신축작용에도 서로 차이가 있어
접속부분에 찢어끊기는 작용이 생긴다. 이것이 되풀
이 되면서 방수층이 찢려 끊기게 되었다.

옥상 에스팔트 방수와 철판(도랑진곳)접속부 찢려
끊김에서오는 빗물새기.

屋上아스팔트 防水와 鉄板
(도랑진곳)접속부의 破斷에서
오는 漏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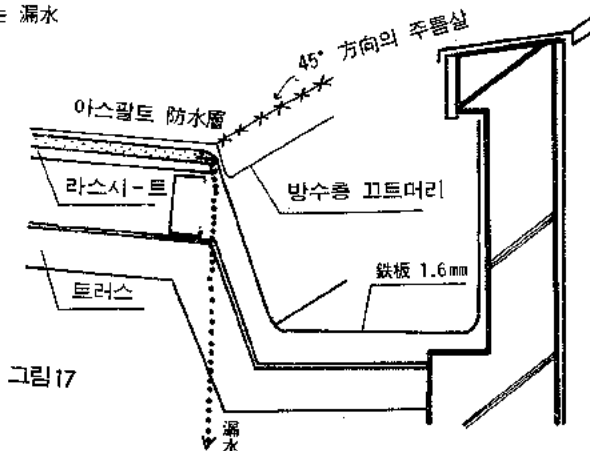


그림 17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 1) 비탈진 지붕의 아랫쪽 꼬트머리가 더 높은 골로 마
무리되어 있어서 오랫동안의 해가 지남에 깃누름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겨서 밑으로 처져 벌어졌다.
- 2) 턱진곳과 치올림에 급이가서 물이 스며들어, 방수
층 뒤편으로 흘렀다.
- 3) 에스팔트 방수층이 밑쪽으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찢
려 끊길일도 있음직 한것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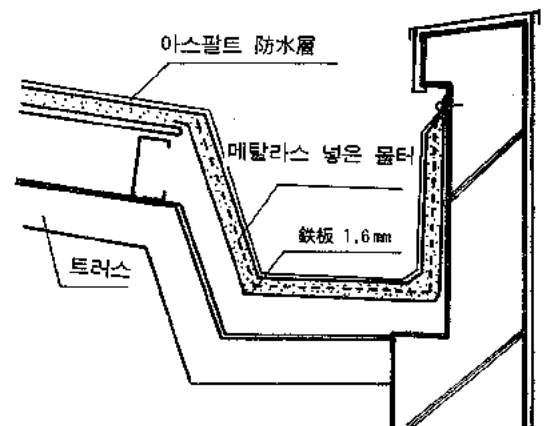
보수(뜯어고치기)

깃누름 콘크리트를 걷어낸다음 방수층이 찢려 끊긴
곳을 손질하여 고쳐놓고 온통 다시한번 에스팔트 방수
층을 시공하여 칼더 철판으로 지붕을 세웠다.

보수(뜯어고치기)

햇볕 받이에따른 온도 오름이 에스팔트 방수와 철판
도랑진 곳에서 똑같도록 한다.

도랑 철판위에 라스친 몰탈 바름으로 하고, 그위에
에스팔트 방수를 마련한다.



아스팔트 방수 · 물빠기 도랑

물빠기 드레인 물레에 자갈마무리 블록 얹히기를 잘 못한다면 오는 빗물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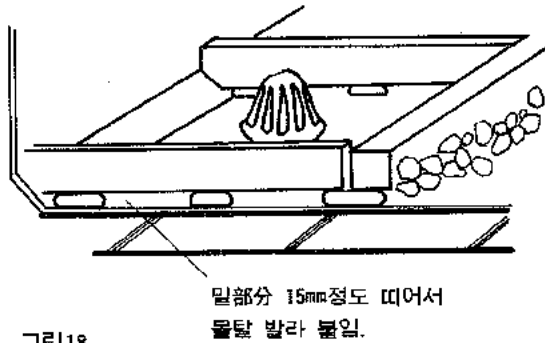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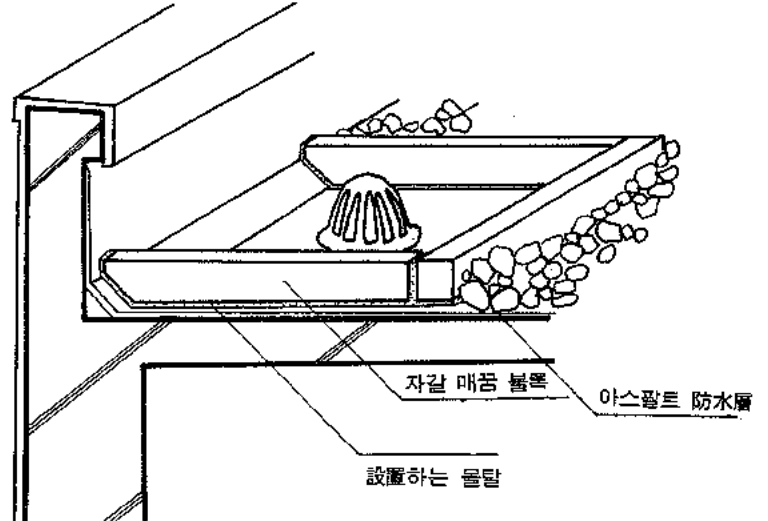


그림18

•排水드레인 물레 자갈매꿈, 블록
設置를 잘못한데서 오는 漏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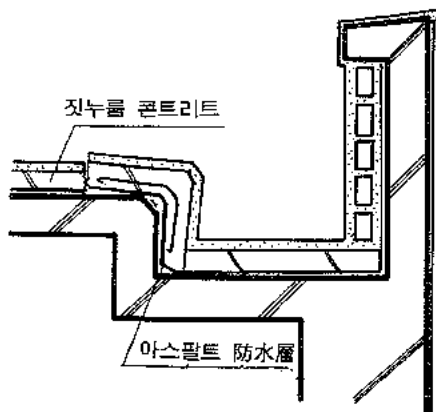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자갈마무리 블록 얹히기를 방수층과 사이를 띄우지 않고 얹혔기 때문에 물빠지기가 나빠서 줄기찬 비가 올때면 늘 물이 고이어 있었다. 게다가 옥상 청소가 못미쳐서, 가랑잎이나 먼지가 루우프 드레인에 쌓여 막혀서 빠질 구멍이 없어진 물이 옥상에 하나 잔뜩 모여서 그리 높지 않은 파라벳트를 넘쳐 흘렀다.

보수(뜯어고치기)

자갈 마무리 블록을 고쳐 얹혀서 물빠지기가 잘 되 겠금 함과 아울러서 패를 매기어서 옥상청소를 빠짐없이 하도록 일러주었다.

아스팔트 방수 · 물빠기 도랑



터이 진 옥상 방수 짓누름 콘크리트의 부풀어 남에 서오는 깨져 끊어지기.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짓누름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3m마다 마련되어 있었지만 편편한곳과 치울림쪽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쳐 놓았기 때문에, 짓누름 콘크리트가 부풀음에 못견디어 솟아서 일그러 졌다.

보수(뜯어고치기)

치울림쪽, 편편한쪽을 가장 가까운 신축 줄눈까지 견어내고, 치울림쪽 편편한쪽을 따로따로 콘크리트를 쳐서 그 갈피에서 맞닿는쪽 틈틈에 엘라스타이트로 절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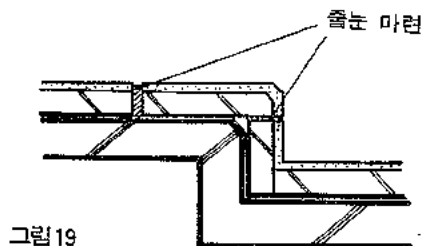


그림19

시이트 방수 · 꼬트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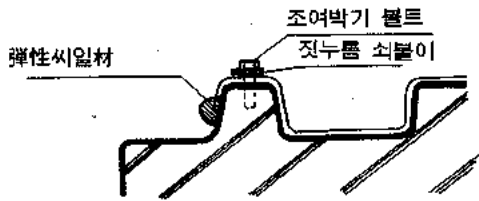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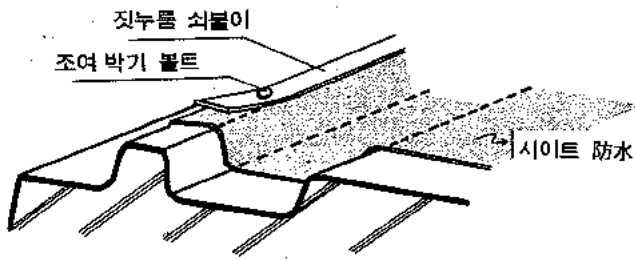


그림20

누수원인 (빗물이새는 까닭)

- 1) 방수층 꼬트머리 짓누름 쇠붙이가 솟아서 방수층 꼬트머리가 벗겨져, 그곳에서 빗물이 방수층 뒷면으로 흘러 들었다.
- 2) 짓누름 쇠붙이가 조여 박기 볼트에서 너무 길게 남겨두고 붙여졌다 (조여박기 볼트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는 것과, 조여박기 개소가 모자랐기 때문에 햇볕받이로 부풀어 늘어난 쇠붙이가 마무리 조여박은 볼트를 잡아챘다.

보수 (뜯어고치기)

- 1) 짓누름 쇠붙이의 볼트자리에 남겨둔 길이를 짧도록 하여 고쳐 마무리고, 탄성 (彈性) 씨일 재료로서 방수층 꼬트머리를 몰막이 하였다.

시이트 방수 · 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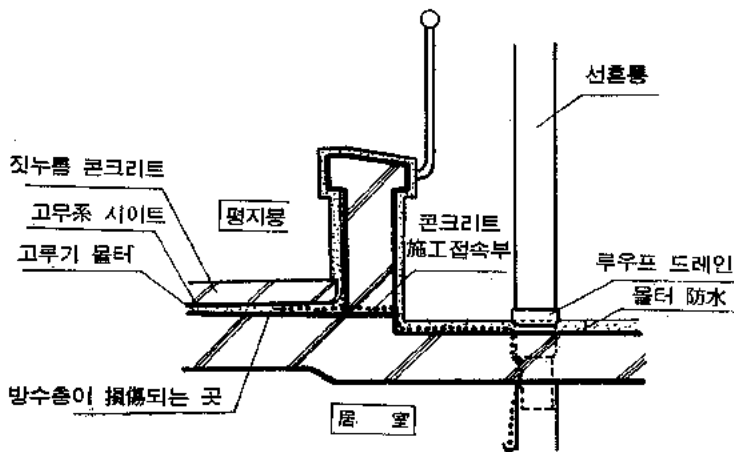


그림21

누수원인 (빗물이새는 까닭)

- 1) 시이트 방수층의 손상을 그냥 보아 넘기고 짓누름 콘크리트를 시공하였다.

보수 (뜯어고치기)

- 1) 손상된 방수층을 걷어내고 밑바탕을 말린다음, 접침기리를 넉넉히 잡아서 똑같은 재료로 보수하였다.

1969년에 준공한 공회당 지붕은 철골트러스위에 지붕슬랩(두께 12cmRC조)를 시공 하고, 부질 EPT 시이트로된 노출 방수로 마무리였다.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건물이 중심부에서 좀 떨어진 산이 가까운 곳으로서 조류(새불이)더욱이 “가마귀”가 많아서, 그것들이 노는 장소로 되어 있었다. 그것들이 주둥이로 편편한 곳이나 치울림부분에 셀수없이 많은 구멍들을 뚫어서, 그것이 빗물이새는 꼬투리가 되었다.

보수(뜯어고치기)

시이트 방수를 걷어내고 특수루우핑 2 장들이의 노출 아스팔트 방수로 마무리였다.

시이트 방수 · 비탈진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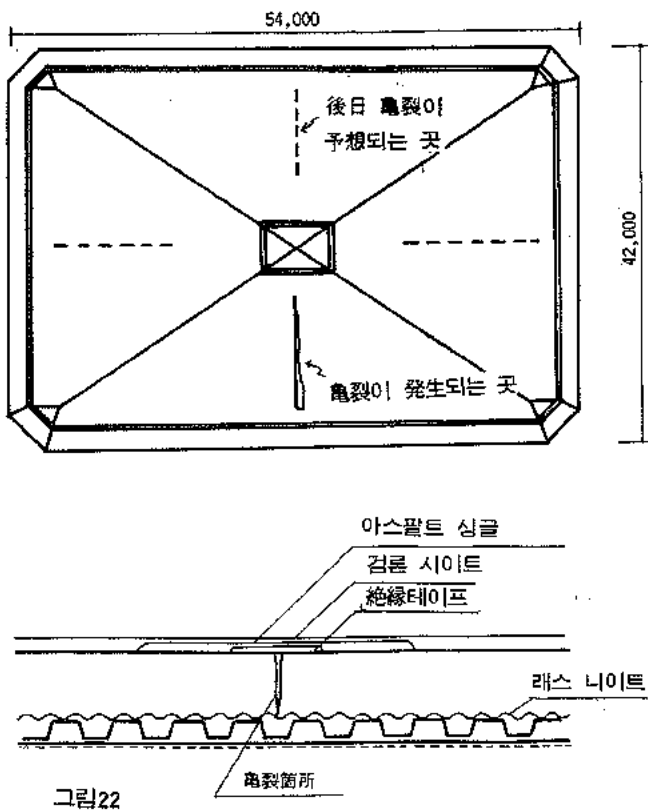


그림22

시가지에 세워진 후생시설 지붕은 가벼운 걸어나니기에 쓰어졌금 되었다고 한다.

염화 비닐시이트 방수로 마무리였다.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건물 성격상, 옥상에서 가끔 집회를 가졌던 것으로, 시이트가 곳곳에 굽힌 자국이나 뚫린 구멍이랑(피우던 담배를 버리고 문질러 타다남은 것으로 그을린)이 꼬투리가 되었다.

대책(손쓰기)

근본적으로는 보행용이라는 마무리 기능과 방수기능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여야 한다.

보행용에 있어서는 표준으로 되어있는 짓누름 충을 마련하는 시방(示方)으로 하여야한다.

철골조 지붕의 방수층이 끊임에서 오는 빗물새기.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지붕은 모임지붕으로서, 장척(길다란)라스 시이트바탕에 물터 바람으로 애스팔트 싱글 잇기로, 뚜렷한 꼬투리는 잘 모르나, 지붕들이 온도 변화 또는 팽압으로 되풀이 되는 움직임과 흔들림 때문에 밑바탕 물탈에 커다란 균열이 발생하여, 애스팔트싱글을 찢어 끊기게 된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빗물새기는 균열부근의 라스시이트의 조인트 쪽에서 있었다.

보수(뜯어고치기)

끊기어진 상판을 걷어내고, 균열을 따라서 500mm 쯤 되는 나비로 물터 바탕을 노출시키고, 균열진곳에 절연테이프(나비60)를 붙인다음 나비 400짜리 감론방수시이트(냉공법)로 덮어쳐워, 싱글을 복구시켰다.

특수한 본보기

고가수조 기초 벽위에서 스며드는 빗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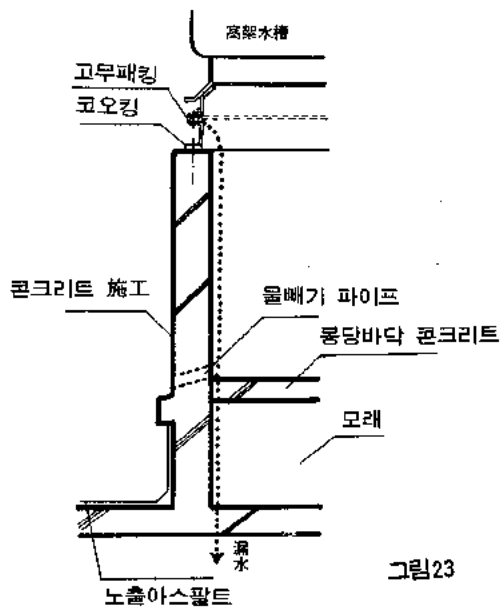


그림23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그림과 같이 고가수조의 바로 밑 (기초위)에서 스며 들어서 새는 빗물이 내부 부피채워 돌우기 모래에 스며들어, 이것이 다시 그 밑바닥 슬랩을 꿰뚫은 보조를 (슬랩과 고가수조 기초를 한꺼번에 콘크리트 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거꾸집 버팀 보조틀)을 따라서 빗물이 새다.

특수한 본보기

옥상 정원에서의 누수

누수원인(빗물이새는 까닭)

이 정원공사가 건물을 넘겨준뒤에 설비자의 보살핌 없이 시공되었기 때문에 빠라벳트 하나진득이 흠을 뜯 우어서, 불이 잘 빠지지 않는곳에서 방수층 치올림 뒷 쪽으로 불이 스며들어서 빗물이 새다.

보수(뜯어고치기)

위의 그림과 같이 빠라벳트에 맞닿은 흠늘움을 걷어 낸다음, 빠라벳트가 물배기를 좋게 하였다.

屋上庭園에서의 漏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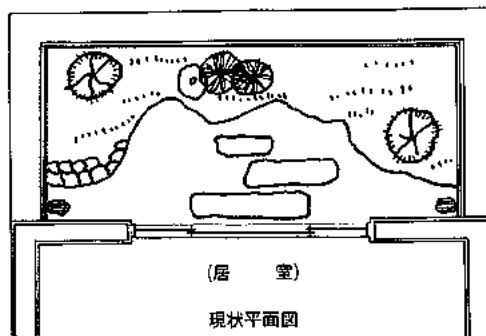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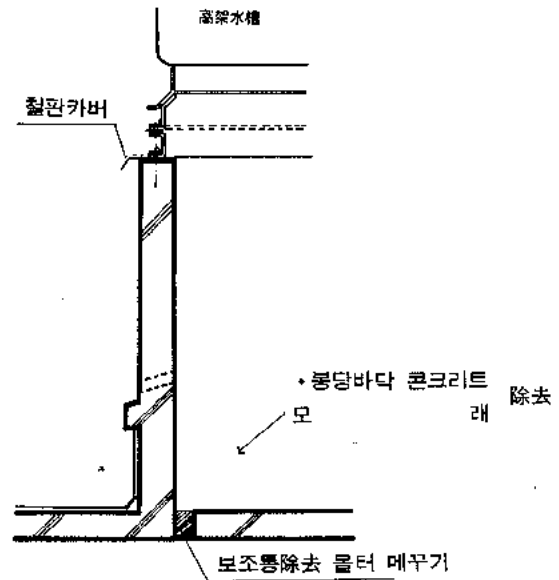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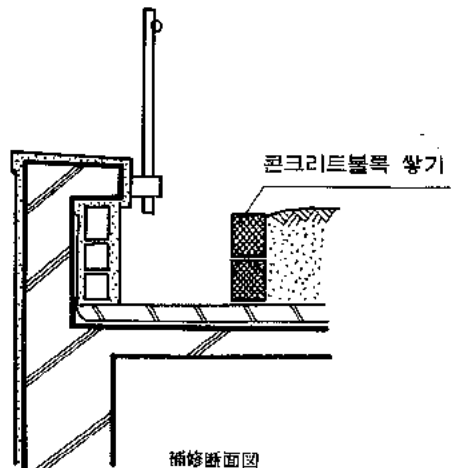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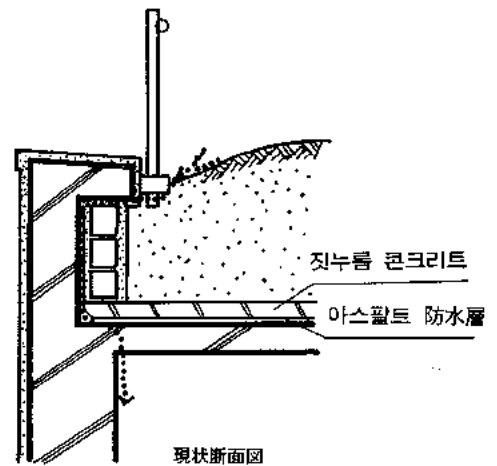


그림24



보수(뜯어고치기)

- 1) 수조를 한번 내려놓고, 철판으로된 카버를 기초 전면 에 씌웠다.
- 2) 봉당바닥 콘크리트를 뜯어 내고, 누수원인이된 부피채워 돌우기 모래 및 보조틀을 걷어내고, 몰탈 메꾸어 봉박아 마무리였다.



日本建築協会誌
「建築と社会」10月号에서

會員作品



동성교회.....崔昌奎
(新進建築研究所)



張氏住宅.....李春相
(新洋建築事務所)



金氏住宅.....俞景哲
(三六建築研究所)

동성교회

設計：崔昌奎

(新進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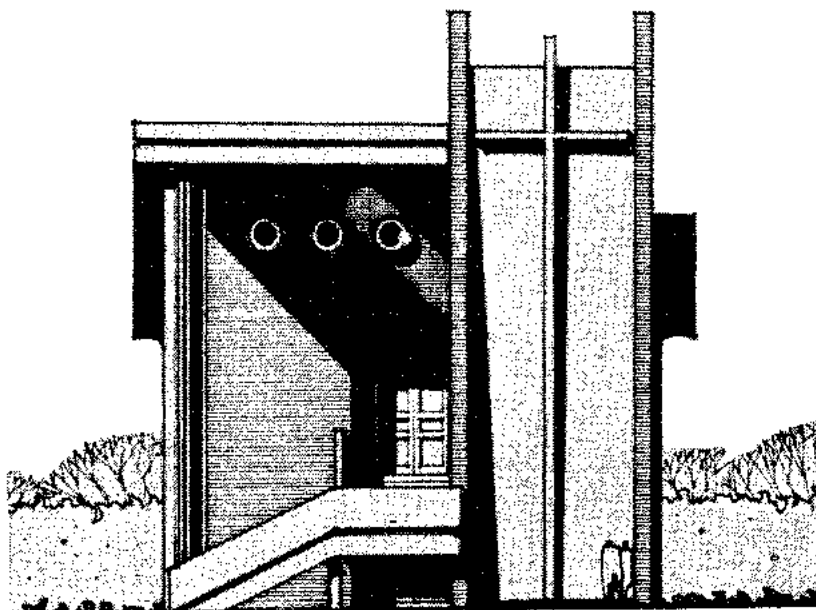
所在地：서울·제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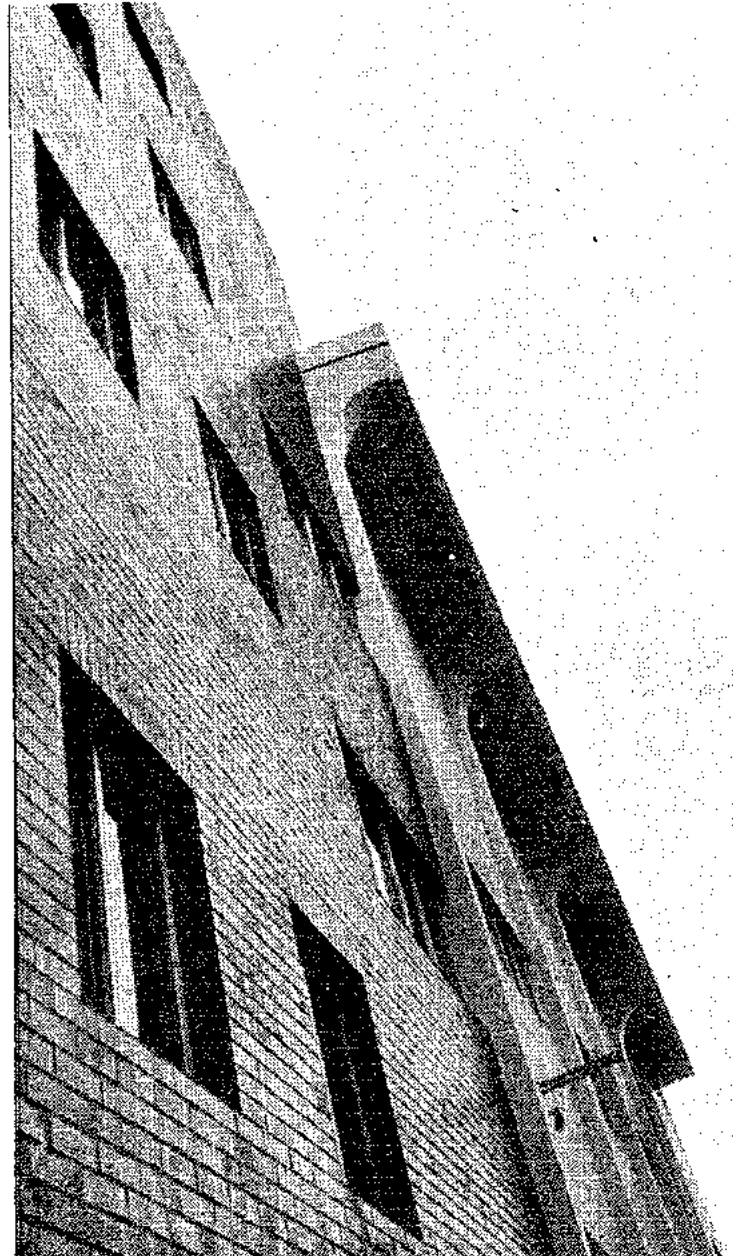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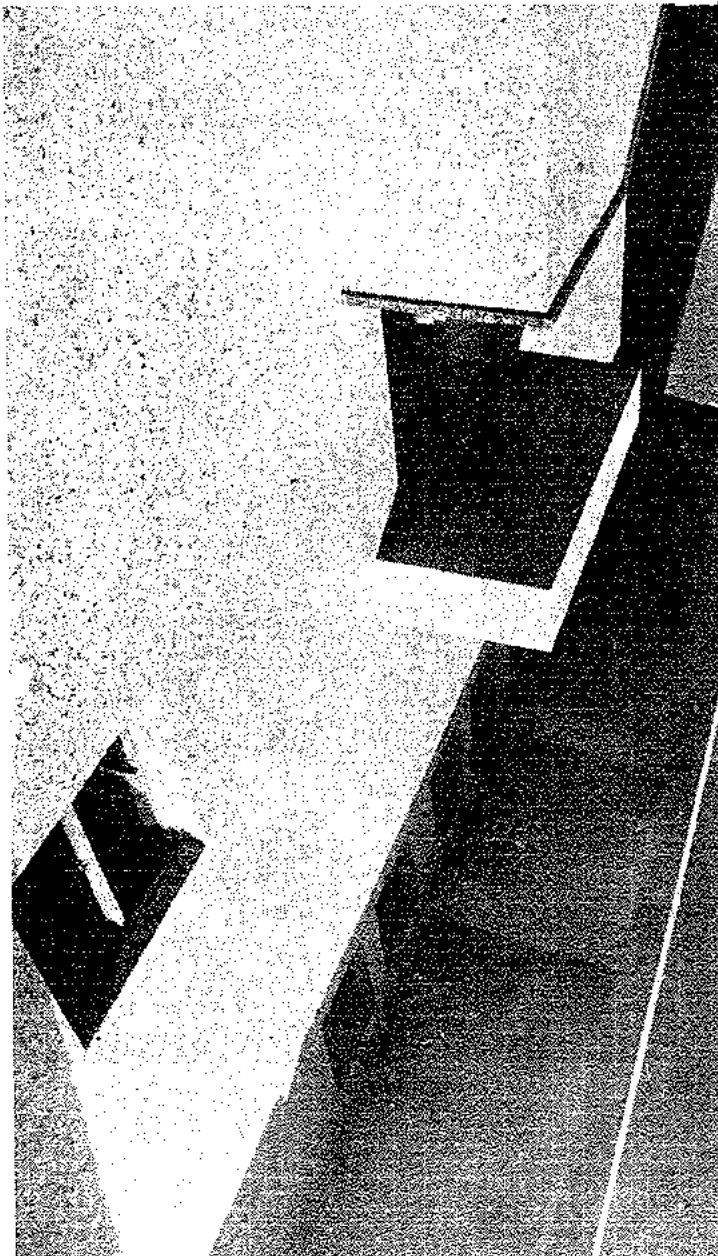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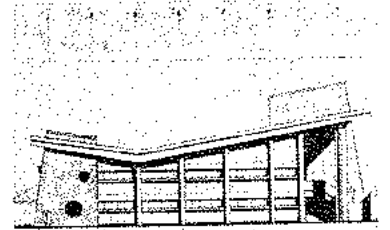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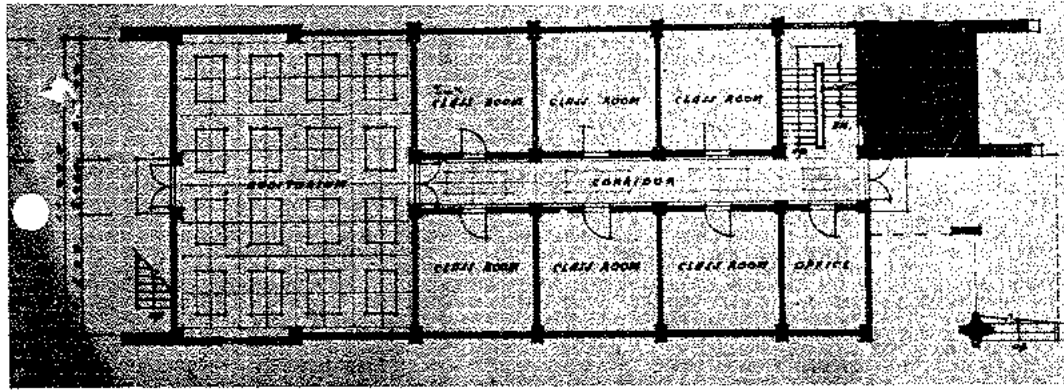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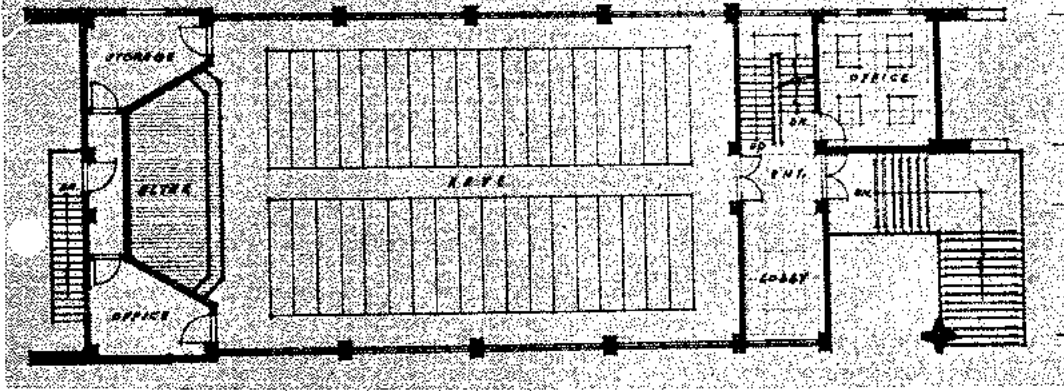
構造：철근·콘크리트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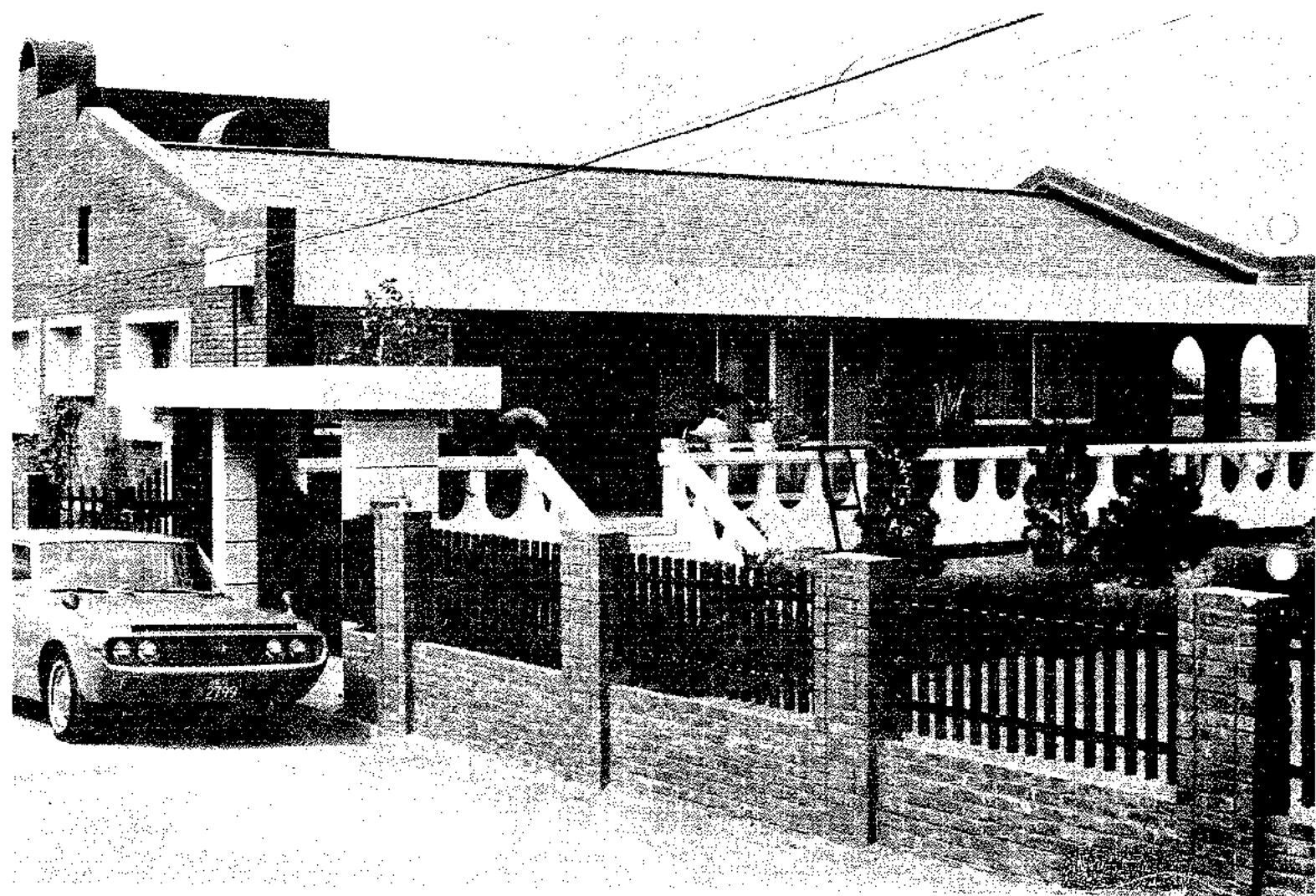
規模：建築面積 309m²

延面積 805m²

竣工：197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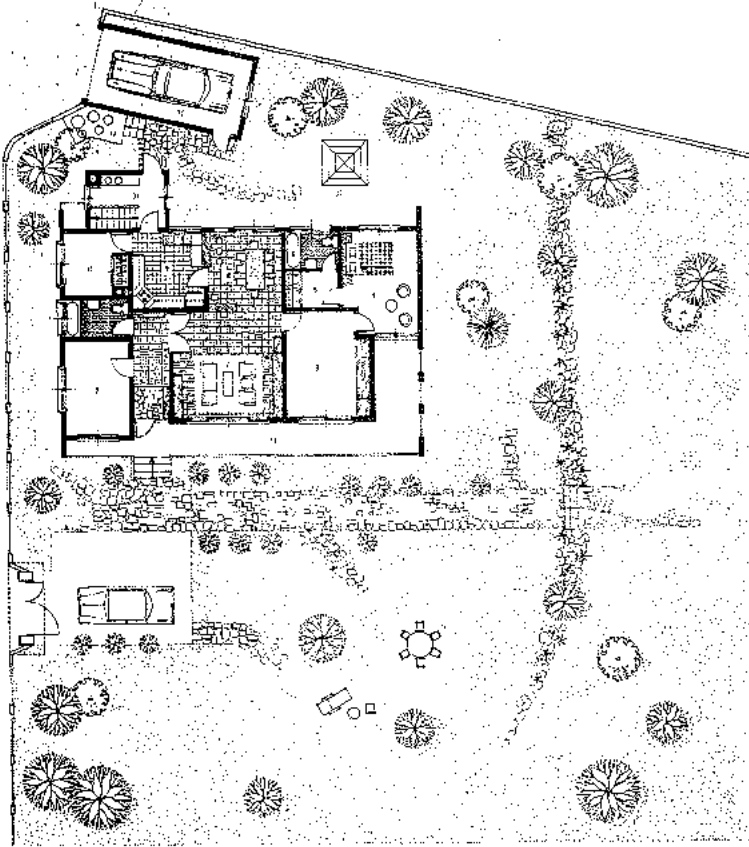


張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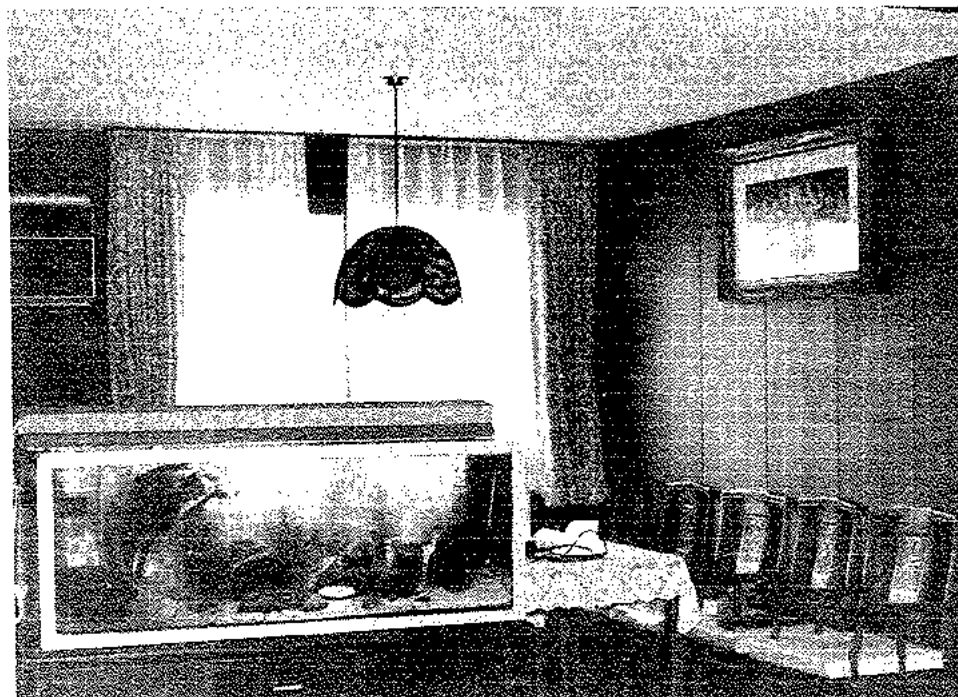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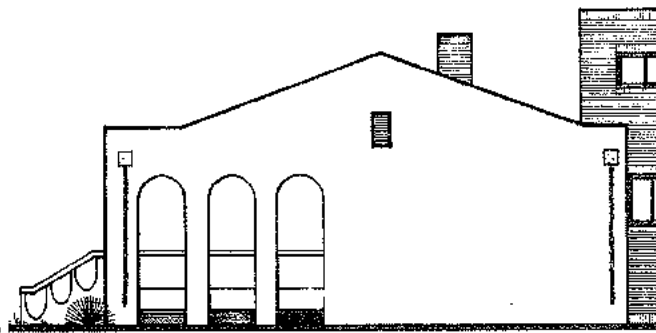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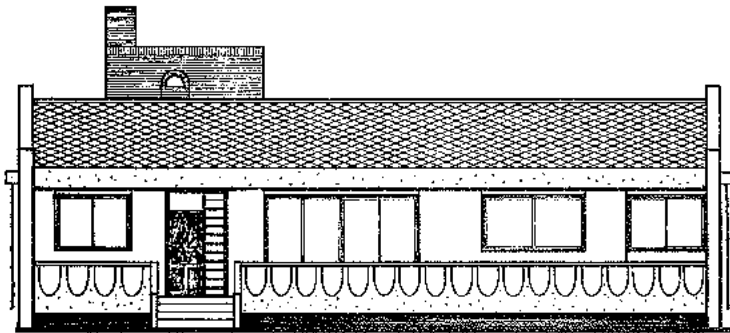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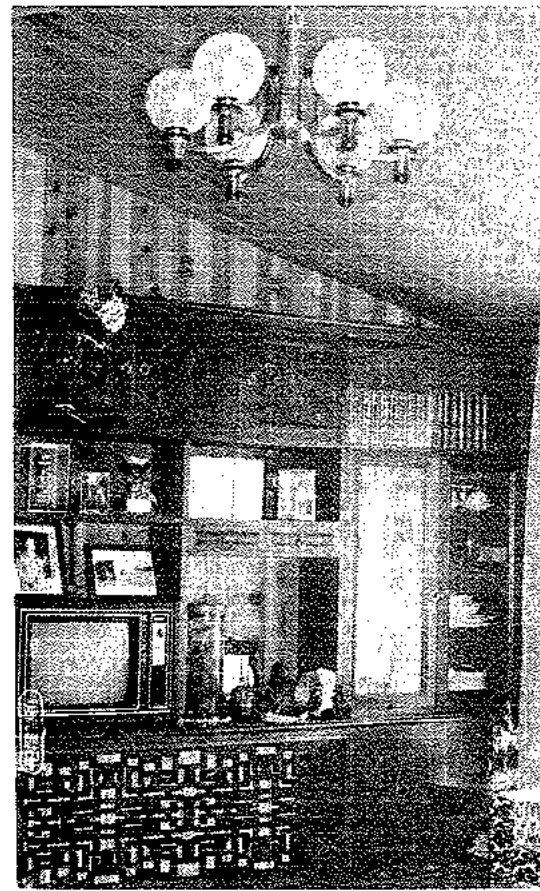
設計：李春相
(新洋建築)

위 치 : 성동구 반포동
대지면적 : 990㎡
지하권설 : 14.10MP
지 하 실 : 14.10MP
1 층 : 134.43M²
물탱크실 : 8.75M²
차 고 : 24 : 50M²
연 면 적 : 181.73M²





- ① 전관통
- ② 거실
- ③ 안방
- ④ 주침실
- ⑤ 방의실
- ⑥ 욕실
- ⑦ 사랑방
- ⑧ 식탁
- ⑨ 주방
- ⑩ 가정부방
- ⑪ 다용도실
- ⑫ 차고
- ⑬ 전조대
- ⑭ 장독대
- ⑮ 테라스



金氏住宅

設計・俞景哲

(三六建築)

所在地：서울·관동

構造：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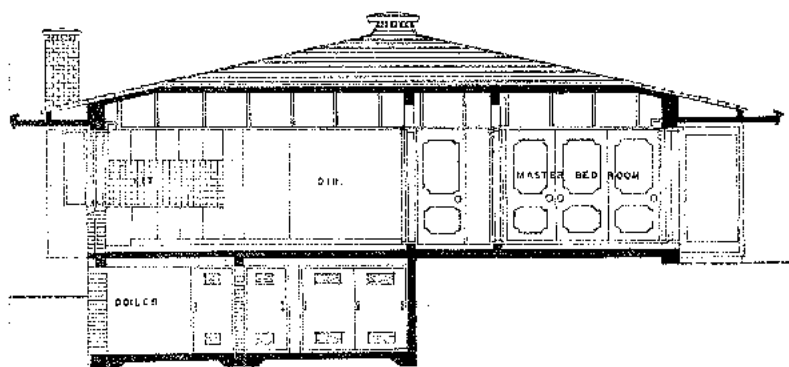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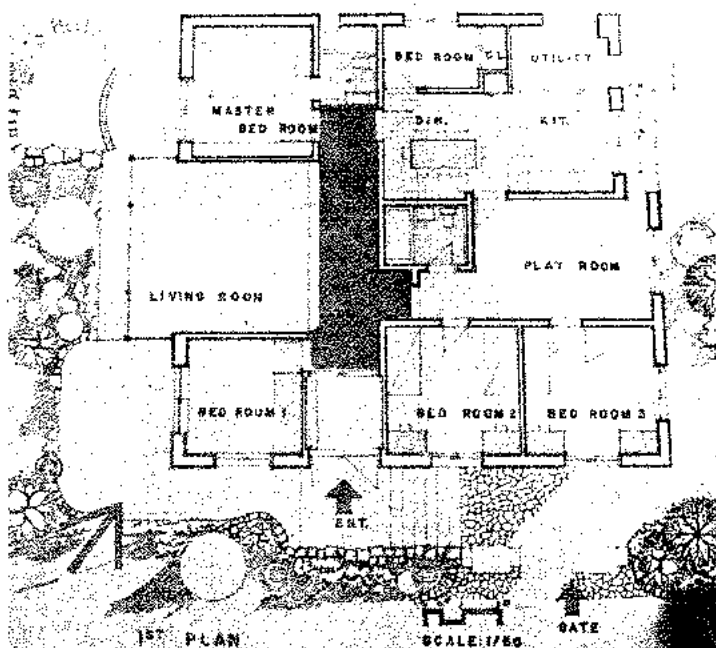
設備：공기조화온수난방

規模：一層 157.88㎡

地層 137.96㎡

築地面積：29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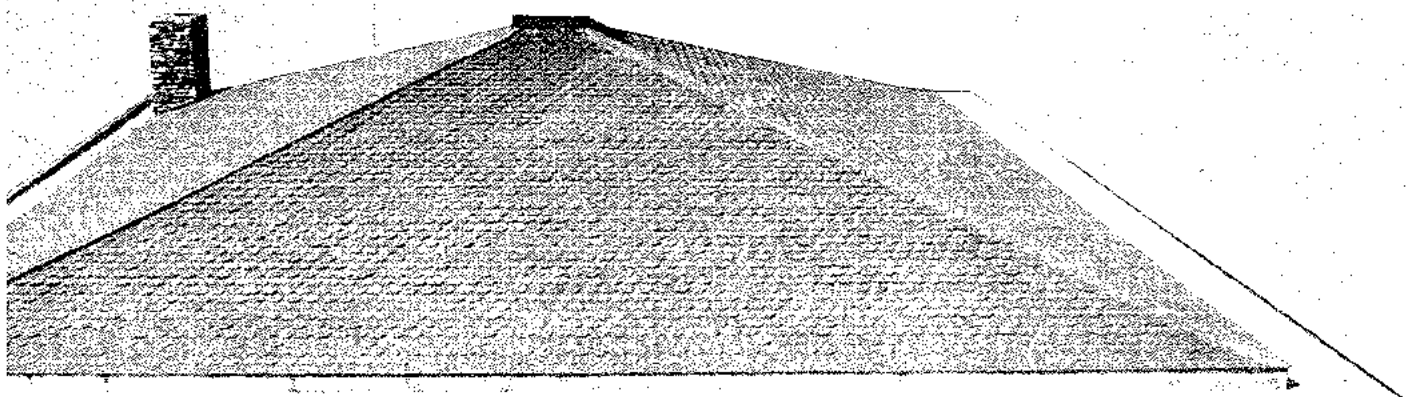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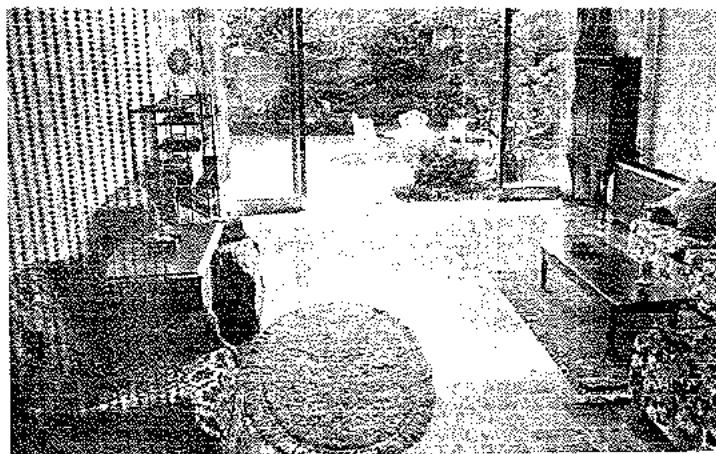
竣 工：197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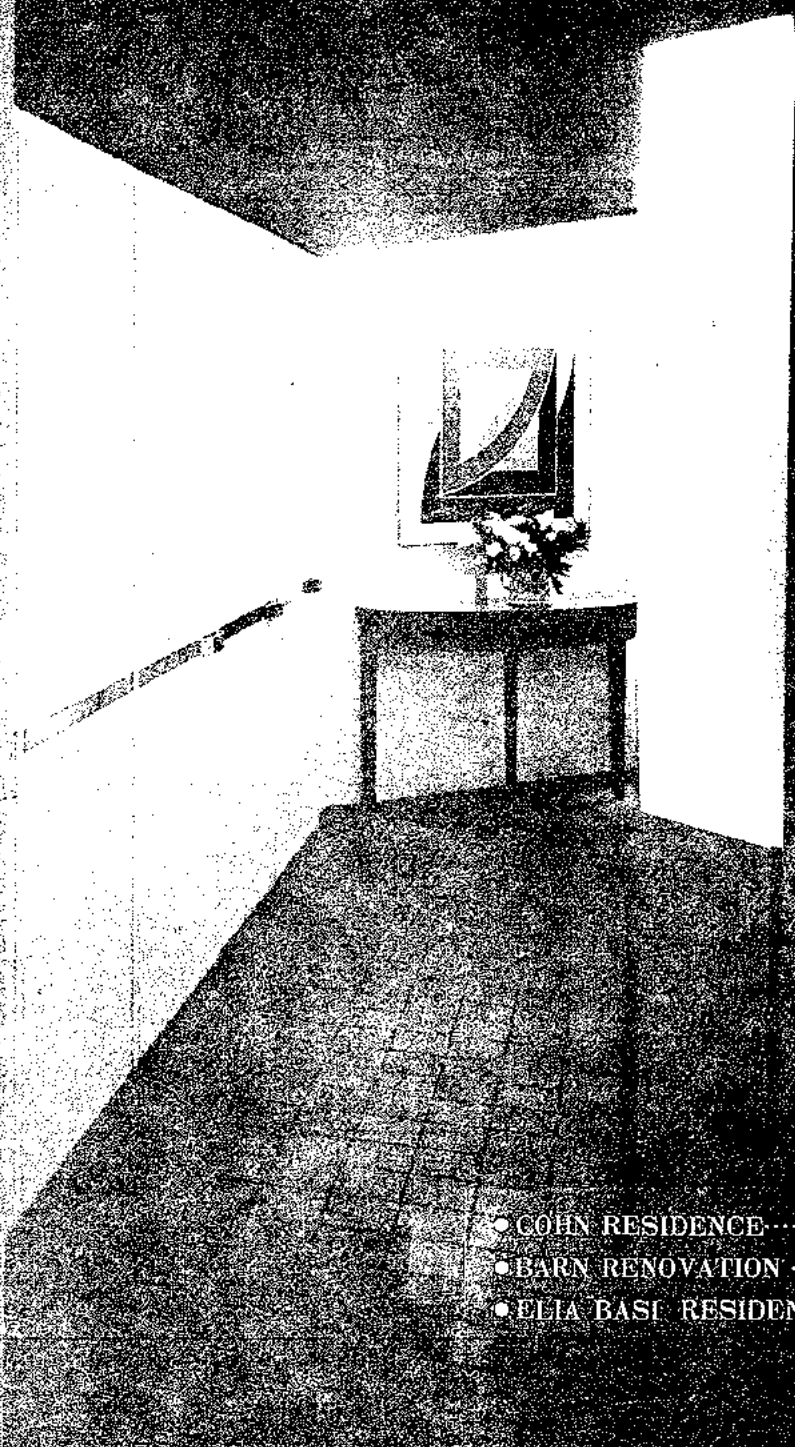


SECTION

SCALE: 1/50







• COHN RESIDENCE.....	47
• BARN RENOVATION	51
• ELIA BASI RESIDENCE.....	53

COHN RESIDENCE

美国뉴-욕주아마강셋드

設計：과스메이 / 시-겔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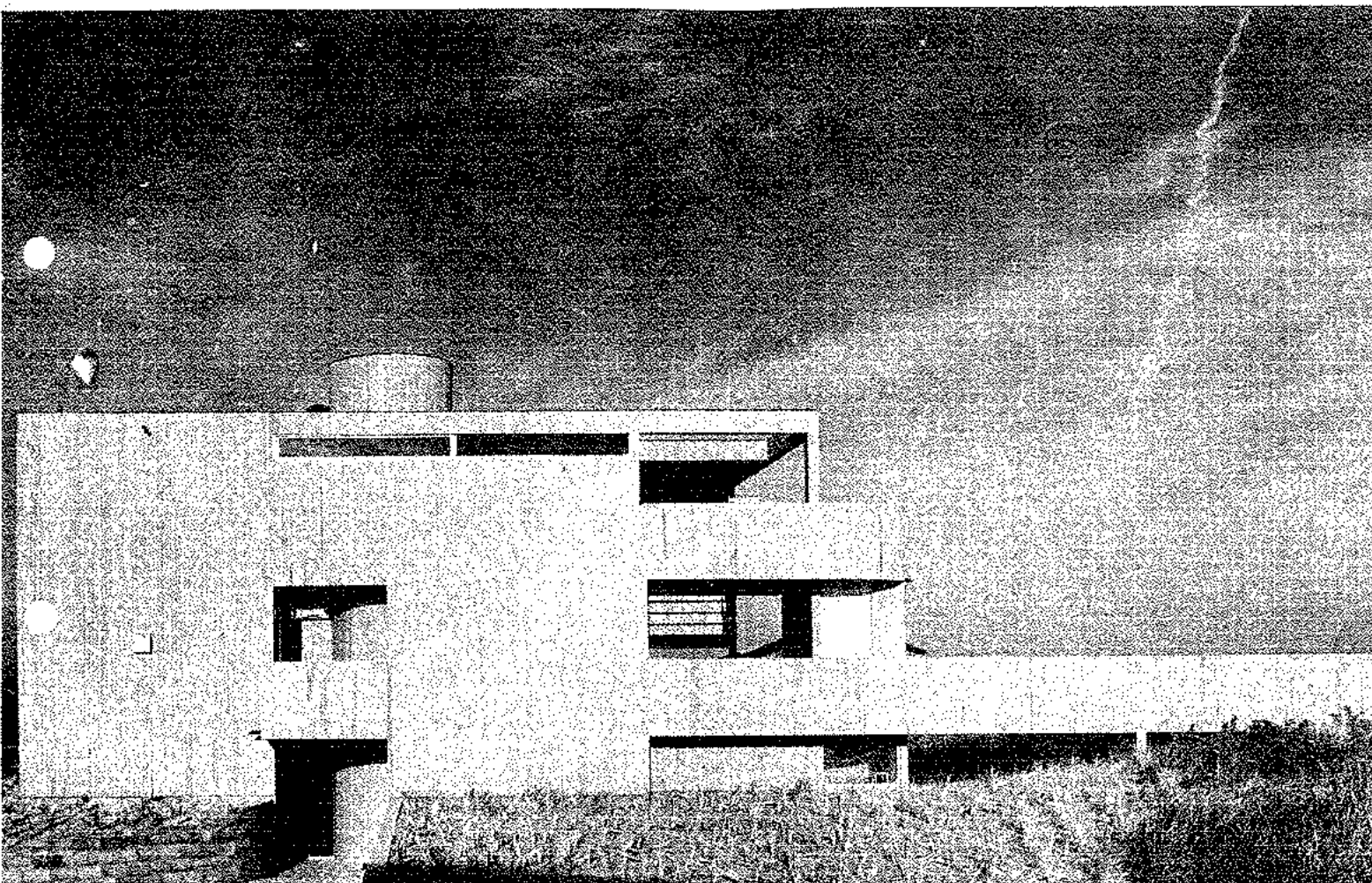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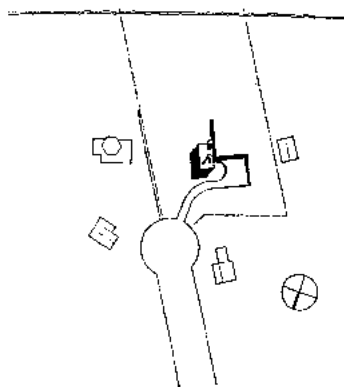
袋地는 大西洋에 面해 있는 모래언덕이라 進入路가 急한 비탈길로 되어 있다. 東西쪽 北쪽에는 既存建物이 서 있으며 南쪽에는 大西洋에 面하여 있다. 袋地狀況에서 建物은 半地下室을 갖는 二層建物로 制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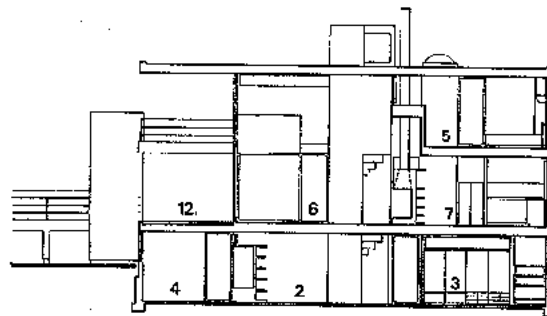
設計面에서 다음과 같은 要求點이 있었다. 들의 10代少女가 사는 活動的인 家族이 있기 때문에 内部와 外部가 연결된 거실이 있어야 할 것, 또 필요에 따라 혹은 계절에 따라 개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할 것, 内部에는 寢室層을 分離케 할 것, 隣接한 建物에는 프라이빗시를 잃지 아니하고 袋地에서 벌어지는 自然景觀, 아푸로-치 방법, 그리고 空間的인 意味도 가질 것등, 이와같은

要求條件은 다음과 같이 해결지을수 있었다. 即 大西洋과는 直角을 이루게끔 建物을 配置하였던 것이다. (사람의 눈에 띄는 파사-드를 最少로 하였음.)

袋地の 環境과 要求事項에 依하여 發生한 閉鎖空間과 開放空間의 사이를 보통을 살려 相互作用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閉閉式으로 되어 있는 양쪽의 壁이 意味를 갖게 되고부터는 都市의 聯立住宅은 隣接建物로 부터의 完全한 프라이빗시를 喪失과 同時 透明性和 넓은 自然景觀을 이룬다는 것을 解釈자운다는 點에서 平面과 斷面의 有機的인 參考例가 되어 있다.

家具는 木造構造로서 分割組立式으로써 세곳에 布置된 했다.





△配置図

△断面図

◁ 1階平面図

○ 2階平面図

▷ 3階平面図

1-玄関

2-Play room

3-子供用寝室

4-客用寝室

5-主寝室

6-居間

7-食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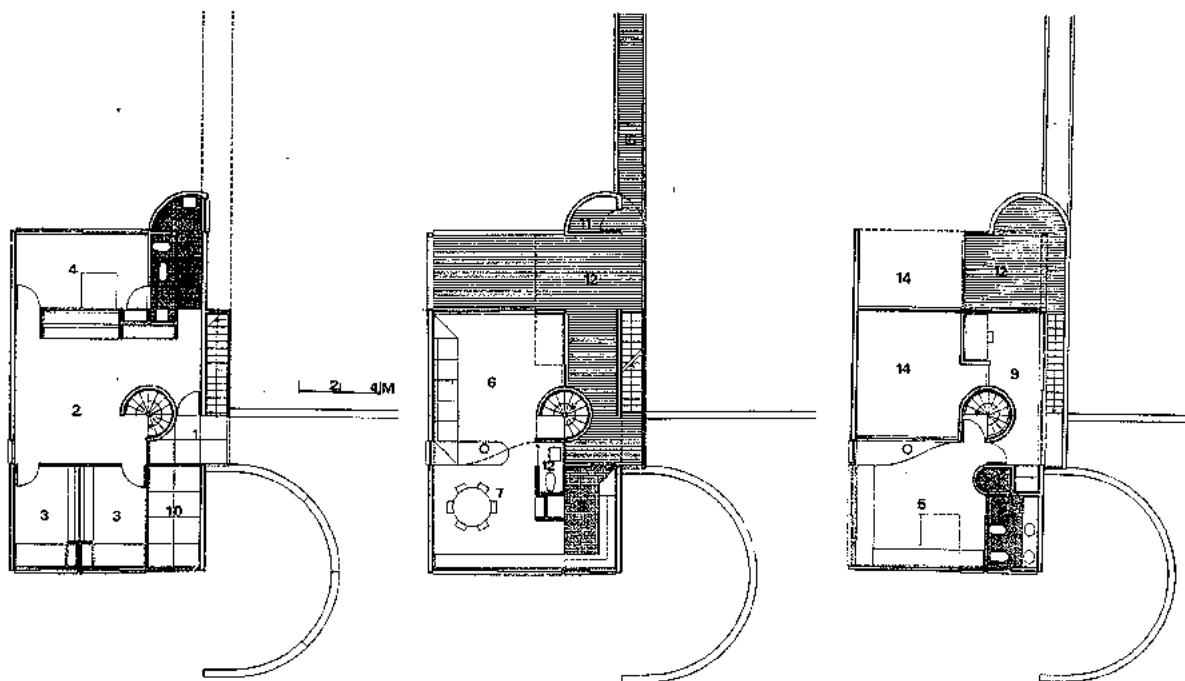
8-台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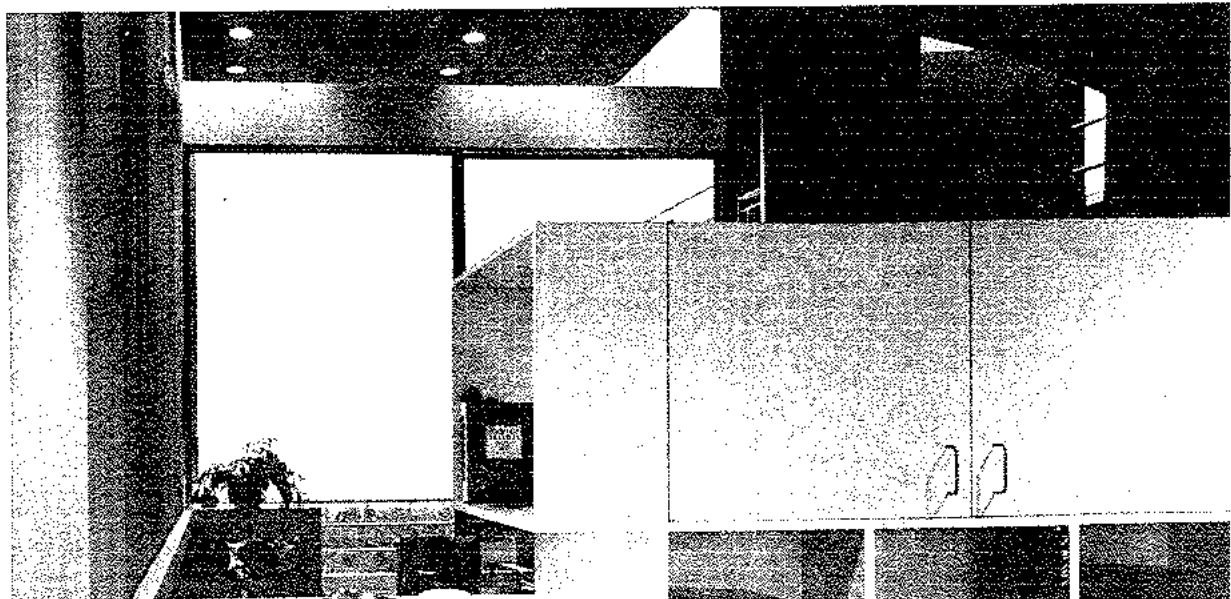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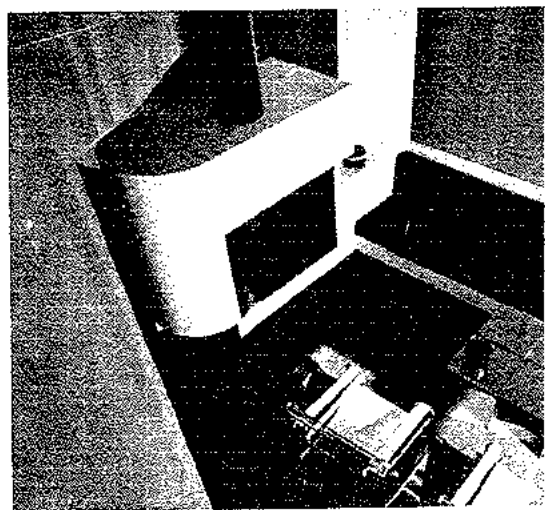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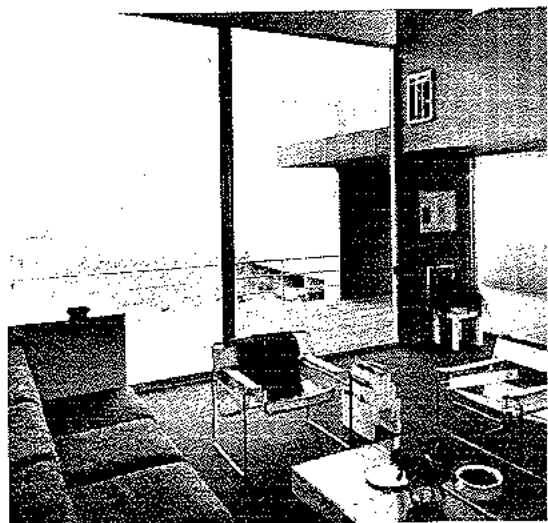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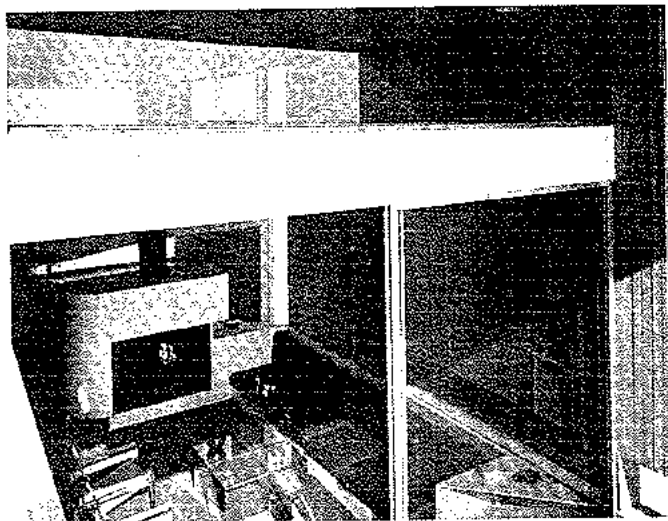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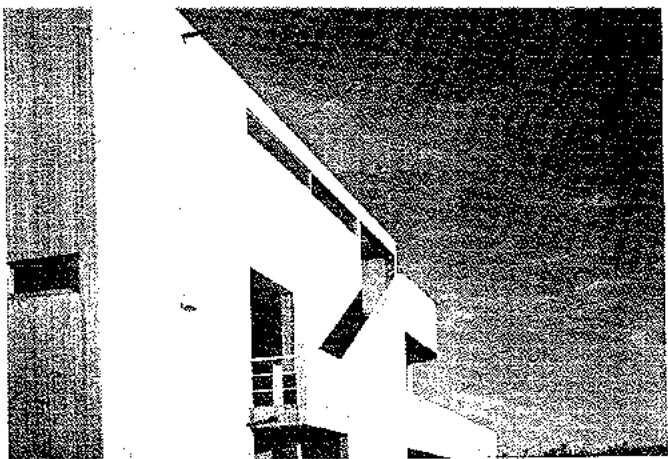
9-書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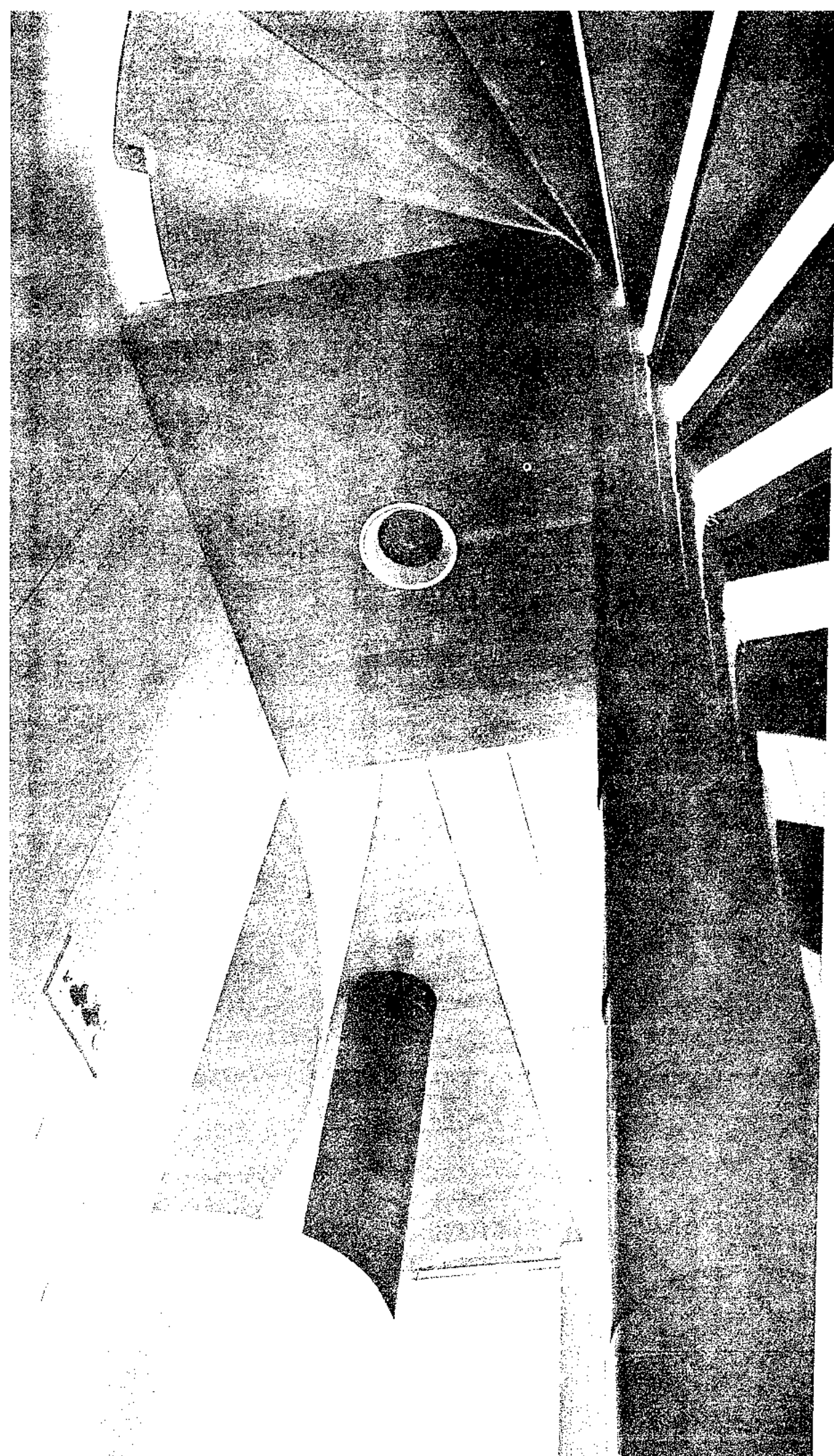
10-倉庫 / Utility

11-サウナ - 室

12-Deck







●階段을 치어다본다.

BARN RE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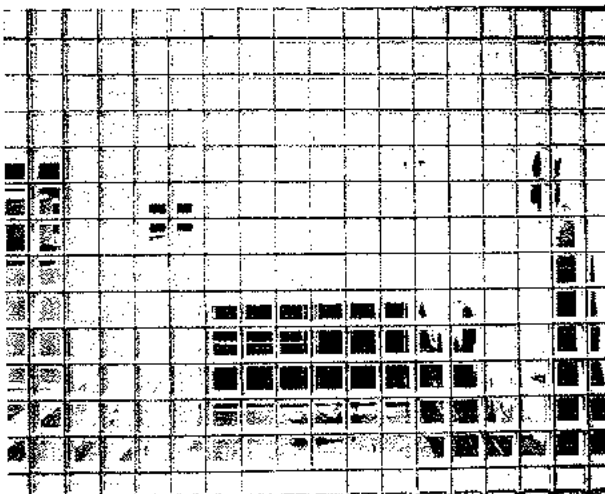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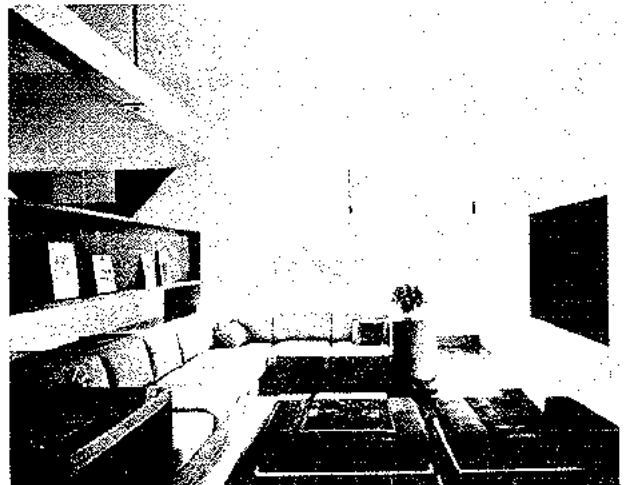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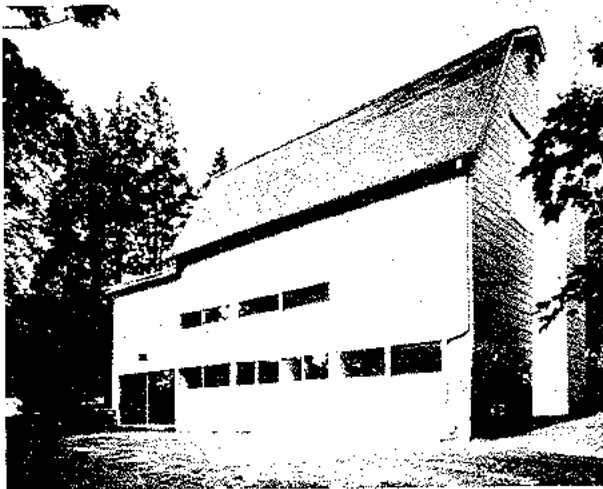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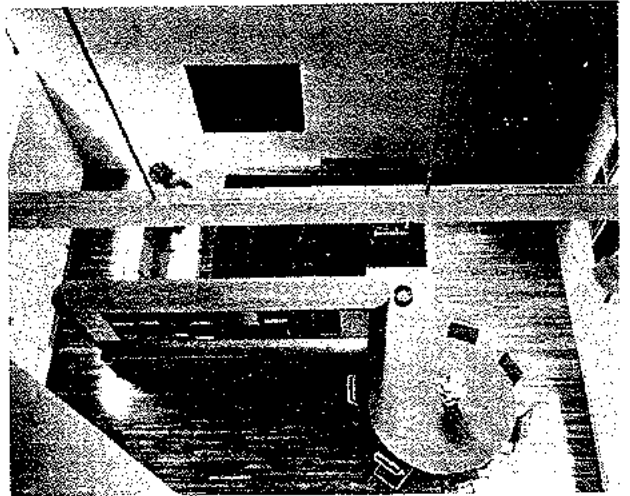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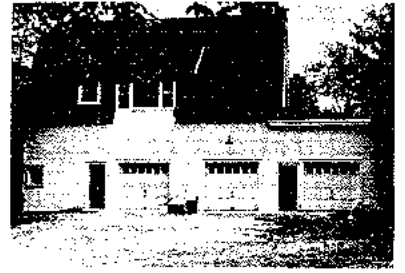
美国 CONNECTICUT 洲
設計・GWATHMEY/SIEGEL

設計概要

이것은 既存建物の 改装으로서 構造는 木造로서 石築の 基礎위에 두었으며, 레벨이 다른 두가지 面에서 出入할 수 있게 再構成한 것이다.

아래쪽의 레벨은 所有地의 背後에 面하게 하고 어린이寢室, 客用寢室, 倉庫와 娛樂室에 해당하고, 윗쪽레벨은 居室, 食堂, 부엌 딸코니, 主人寢室및 書齋가 되게 하였다.

既存構造의 大部分이 그대로 있고 또 PAN의 空閒氣도 곤소하지마는 살릴 수 있어서 田園生活의 테마를 加한것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追加한 것은 材料, 디자인, 모퉁이 배리 및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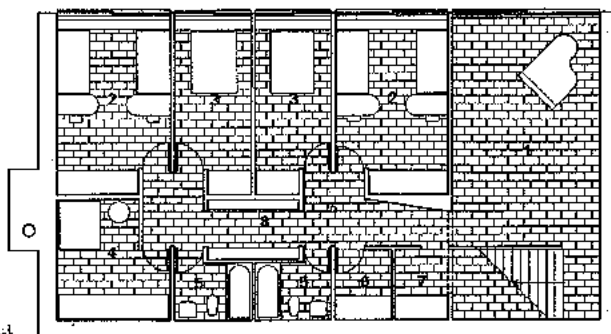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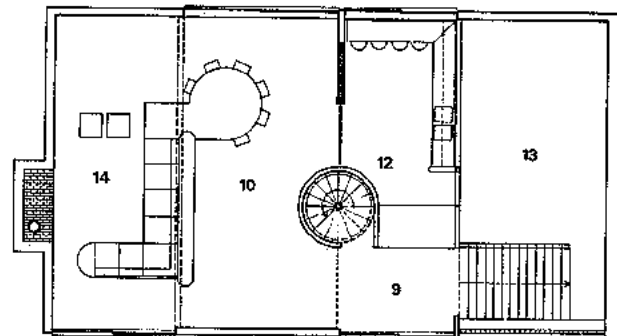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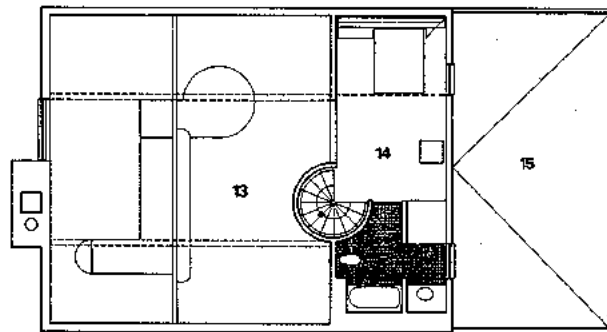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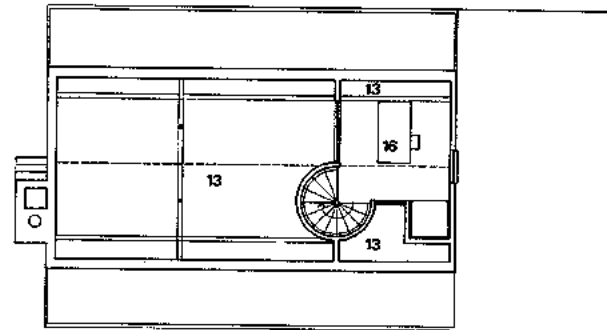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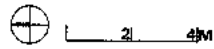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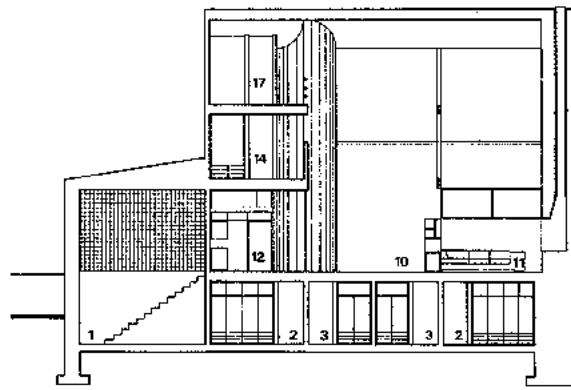
△階段室(右)과 食堂



○食堂에서 부엌, 主人寢室, 書齋를 본다.



▽地梯遊室에서 어린이침실, 客用寢室(右)과 一層 玄關의 階段을 본다.



△断面図

△3階平面図

○2階平面図

○1階平面図

▽地階平面図

1-遊戯室

2-子供寢室

3-어린이 침실

4-Utility

5-浴室

6-샤우나

7-洗濯室

8-홀

9-入口

10-食堂

11-居間

12-台所

13-吹抜

14-主人寢室

15-屋根

16-書齋

ELIA BASH RESIDENCE PROJECT

美国纽约-저지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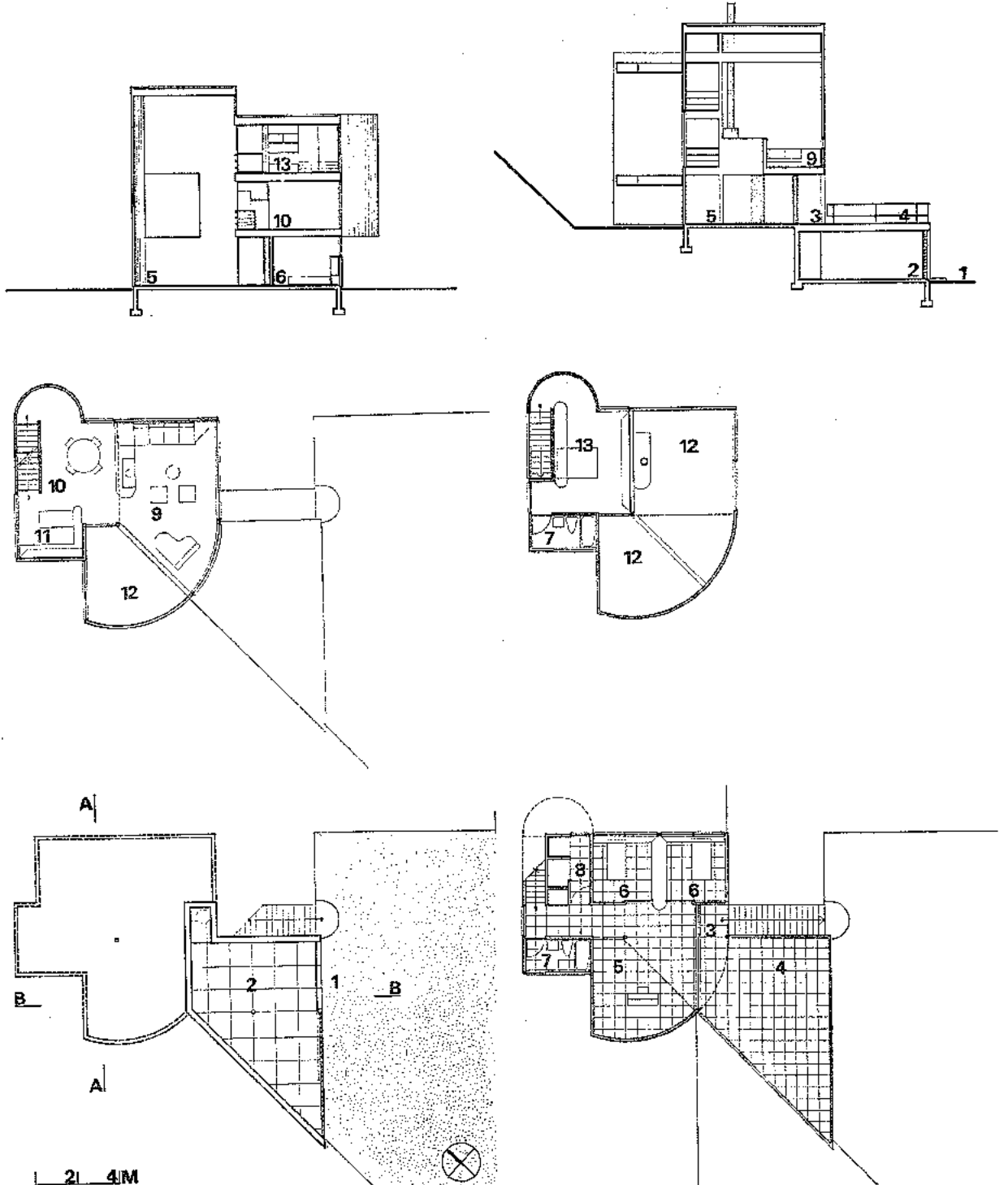
設計：과스메이 / 시-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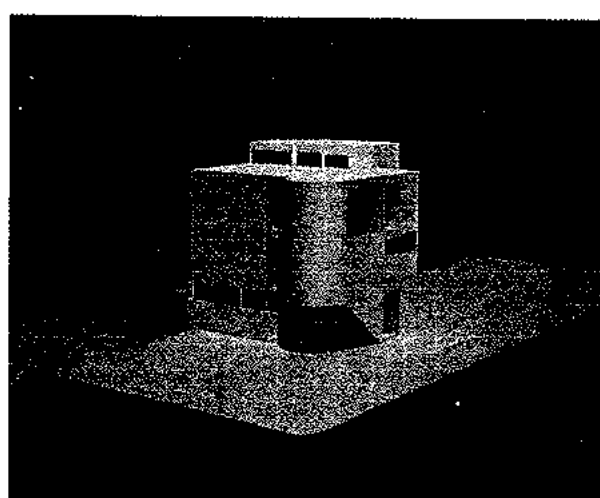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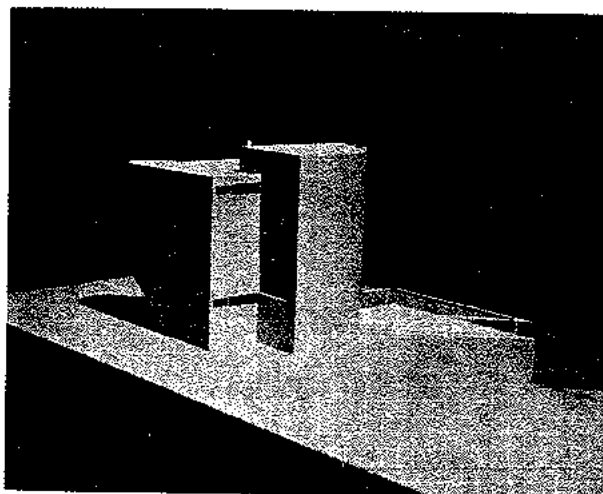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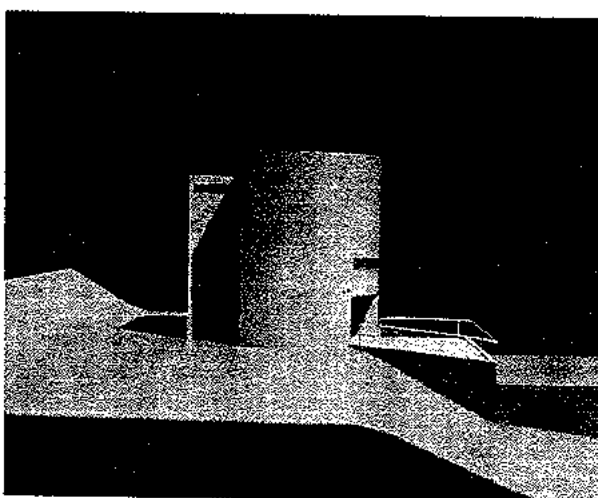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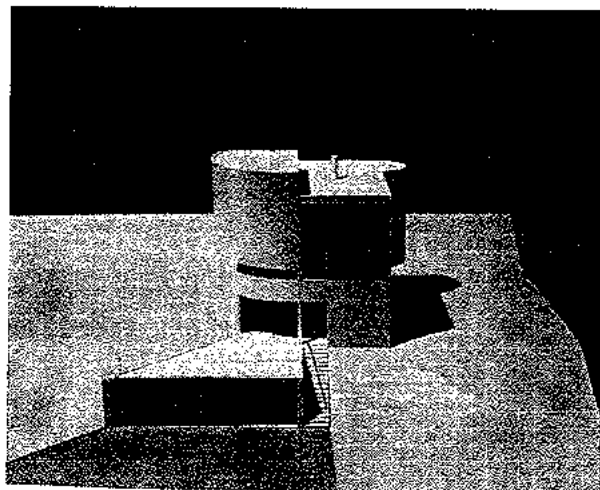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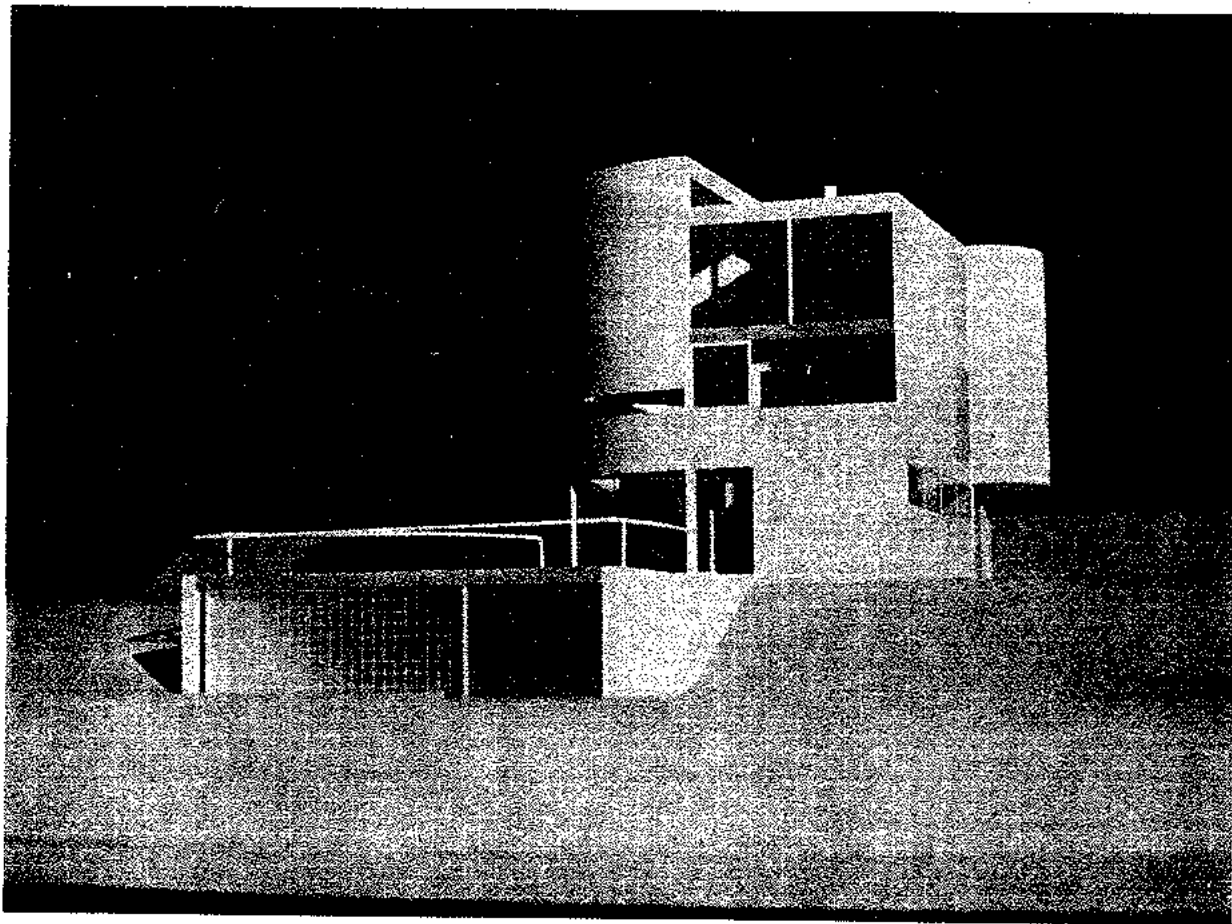
設計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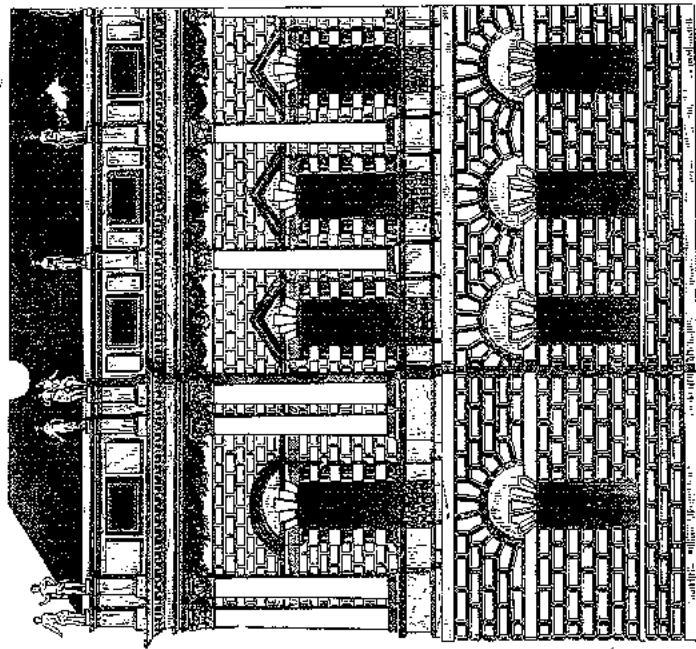
該地는 南쪽으로 視界가 트어 있으며 많은 樹木이 育어진 急傾斜地이다. 建築主는 Organist인 同時 pianist로 設計上으로는 客用 寢室 2個, 主人寢室, 居室, 食堂, 書房, 工作室, 食庫, 車庫 등을 要求하였다. 이런 要求를 맞추려면 首先 '中心部'에 Organ을 두기 위해 커나란 空間을 잡아야 하며 이 空間이 建物全体(三層半의 높이)를 包圍는 求心的인 空間構成으로 되어 있다. 平面構成에 있어서는 純粹한 幾何學的 形態가 採用되고, 門의 가운데에 正方形의 庭心地에 기둥이 있다.

建物の 外形은 敷地와 設計의 條件에 따라서 決定케 되었다.

- △ A-A 断面圖
- ▷ B-B 断面圖
- ▷ 4 階平面圖
- △ 3 階平面圖
- ▷ 2 階平面圖
- △ 1 階平面圖
- 1- 停車場
- 2- 車庫 / 工作室
- 3- 玄關
- 4- 前室
- 5- ORGAN室
- 6- 客用寢室
- 7- 浴室
- 8- 洗濯室 / Utility
- 9- 居室
- 10- 食堂
- 11- 廁所
- 12- 吹拔
- 13- 主人寢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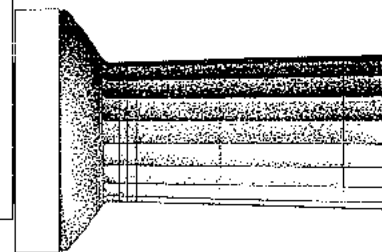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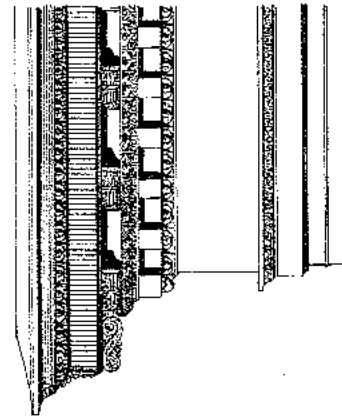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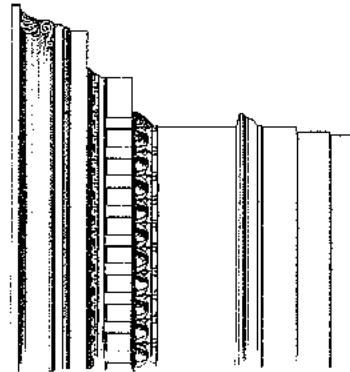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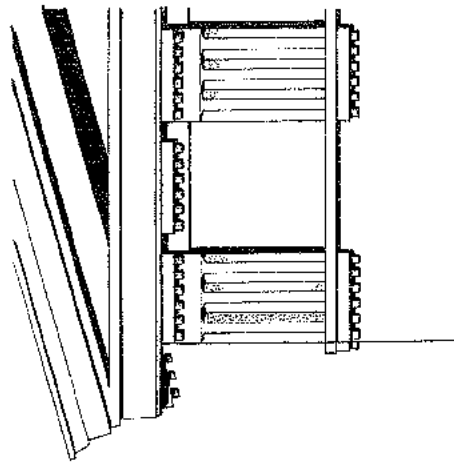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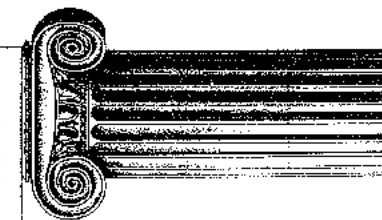
西洋建築의 比較樣式 (I) 前 古典期의 柱 (Pre-Classical Columns)

柱와 엔터블레췌(Entabla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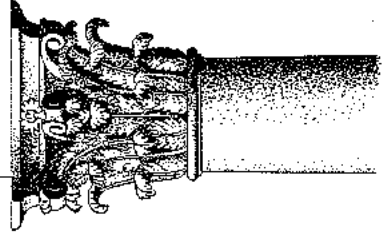
Vitruvius Pollio
Vitruvius Pollio 가 분류한 代表的인 古典 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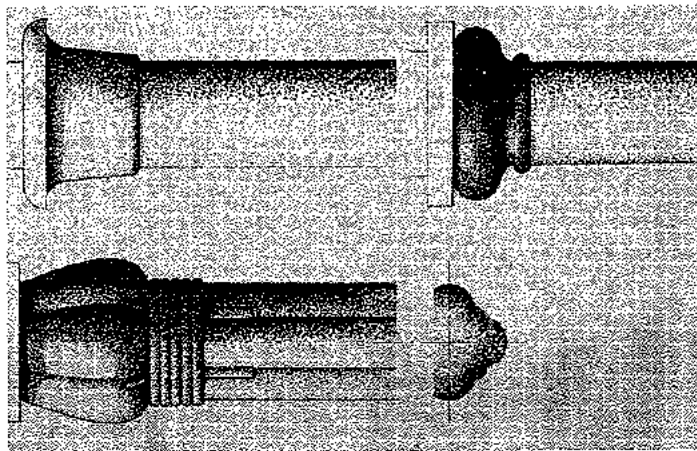
도리아식(Doric)



이오니아식(Io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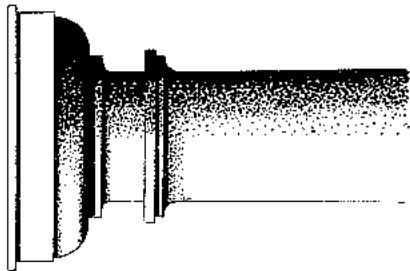


코린트식(Corinth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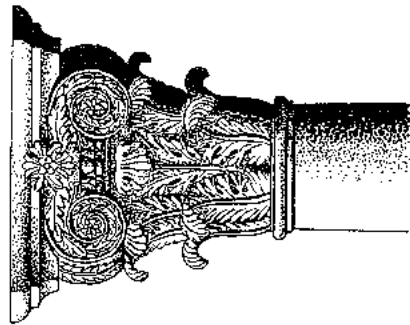


(上) 석물을 주체로 해서 스타일화 한 이집트 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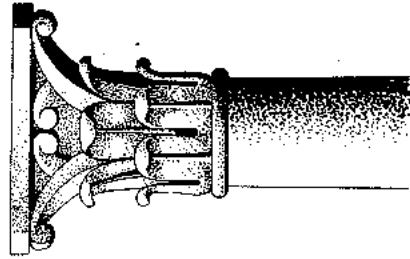
柱頭 Capit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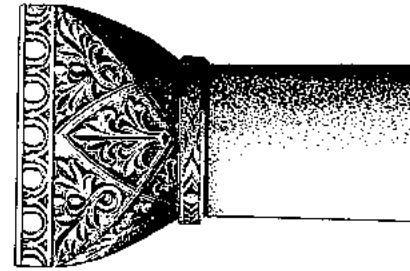
에트루리아 양식(Etruscan)
볼피산전 P 로마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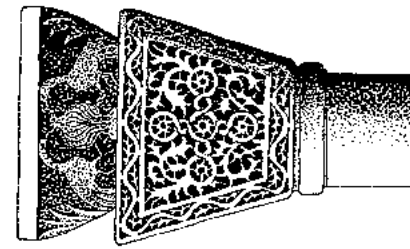
로마양식(Roman)
혼합식(코린트와 이오니아식)의 柱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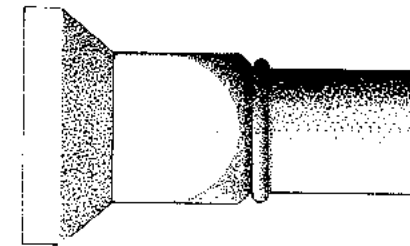
로마양식(Roman)
카피톨(Capitol) 신전
C. A. D.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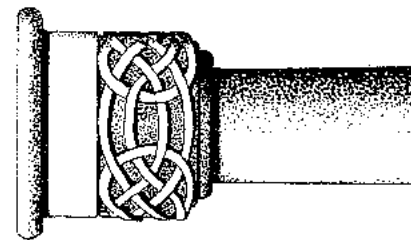
비잔틴 양식(Byzantin)
라 베나(Raven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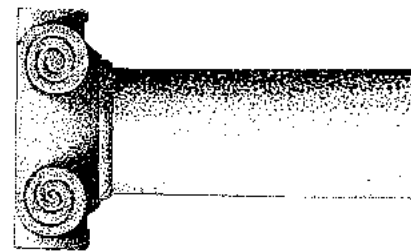
비잔틴양식(Byzantin)
정 · 소피아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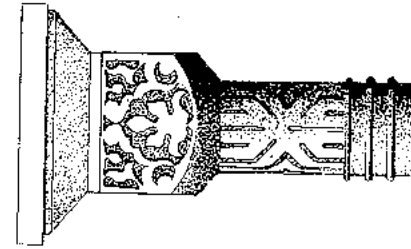
로마네스크 양식(Romanesque)
인방형의 柱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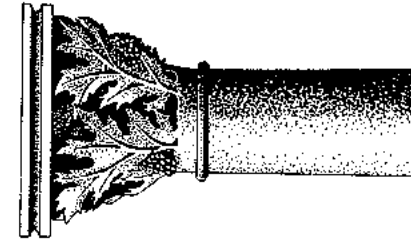
로마네스크 양식(Romanesque)
Wimpfen am 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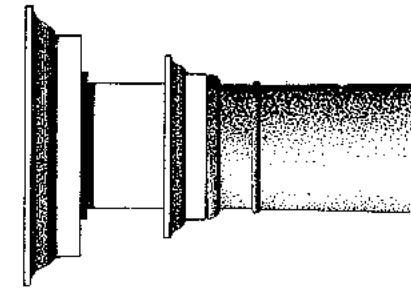
로마네스크 양식(Romanesque)
폴 나(Ful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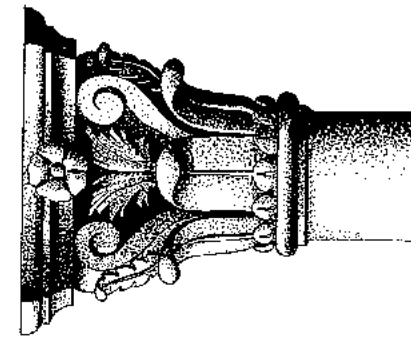
무어양식(Moorish)
그라나다의 알함브라궁전



고딕양식(Gothic)
밀랑석회의 柱頭



르네상스 양식(Renaissance)
제노아의 발바궁전



바로크 양식(Baroque)
소용돌이형의 柱頭

伊太利建築史紀行 (2)

朱南哲

3. 까세르타, 나폴리에서 빠에스툼까지

1973년 4월 11일, 마침 부활절방학을 이용하여 이태리 남부지방의 여행길에 올랐다. 아침 8시 까세르타(Caserta)에 도착, 곧장 Reggia di Caserta(까세르따宮)로 향하였다. (그림 1)

이 궁은 1742년 Mario Gioffredo가 계획하여 Luigi Vanvitelli가 베르사이유궁을 모방하여 완성하였다. (1752~1773. 74)

평면은 베개의 증정을 가진 장방형으로 $247 \times 184\text{m}$ 의 크기이며, 1,200개의 방들(그림 2)과 1,790개의 창문, 34개소의 계단을 가지고 있다.

이 궁은 Bourbon王家 또 나폴리왕국의 왕 Joachime Murat(1767~1815)이 사용하였었다.

무엇보담도 이 궁의 특징은 후원의 대정원으로 100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여기의 Cascade(폭포)는 높이 256'에서 떨어져 3km를 흘러 내려오고 있다. (그림 3)

Caserta에서 다시 Napoli로 들어오니, 오후 2時로서 한적한 교외 길가에 車를 세우고, 車속에서 스파겔티를 끊어먹고 곧바로 Piazza del Plebiscito에 이르렀다.

이 광장에는 한쪽에 Palazzo Reale(Royal palace)와 Teatro S. Carlo(Opera좌)가 있고, 광장 전면에 San Francesco da Paola 교회당(그림 4)이 자리잡고 있다.

이 교회당은 로마의 Pantheon을 모방한 신고전주의 작품으로 1817~1846년에 Pietro Bianchi가 設計建築하였다. 中央의 Dome은 Pantheon을 모방하였지만, 정면 좌우의 Colonnato(colonnade)는 로마의 Sanpietro성당에서 Bernini가 이루어놓은 스킵을 재현하고 있다.

Napoli의 국립박물관은 Pompei 유적에서 가져온 많은 美術品들과 Pompei의 모형이 잘 진열되어 있다. 이 박물관 이외에도 Napoli에는 Museo di Capodimonte, Museo di S. Martino가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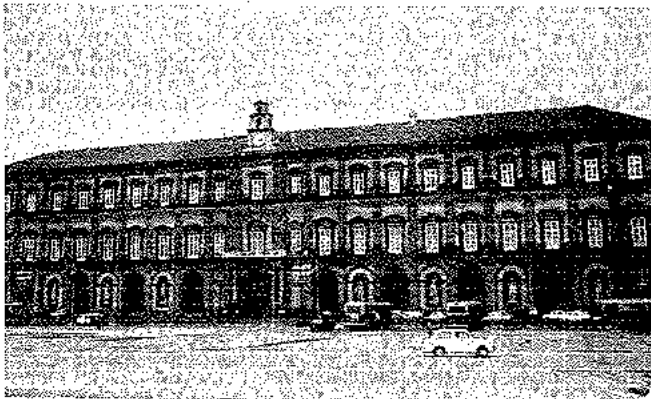


그림 1. Reggia di Case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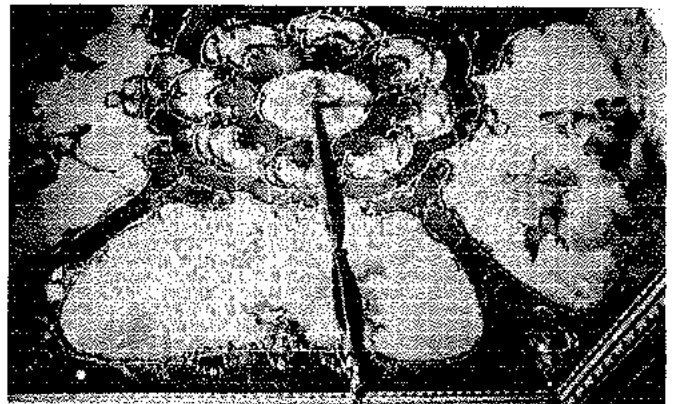


그림 2. 同内部天井Detail

위의 建築以外에 Napoli의 중요한 建築으로 해변가에 우뚝 솟은 Castel Nuovo(그림 5)를 빼 놓을 수 없다. 이 城은 1282년 建築家 Pierre d'Apincourt가 설계하였고 그후 정문 즉 Arco di Alfonso d'Aragona(그림 6)의 디자인을 Luciano Laurana의 設計와 Francesco Laurana의 조각으로 첨가한바 이는 르네상스建築의 중요한 實例가 된다. 그 이유는 Luciano Laurana가 곧 이태리 중부의 Urbino라는 고원의 中世都市에 르네상스의 중요한 Palazzo Ducale를 設計建築하였고, 이 정문의 디자인 역시 위의 정문 디자인의 스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Napoli것은 Francesco의 디자인이고, Urbino의 것만이 Luciano의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림 3. ↑ Cascade(폭포)

그림 4 ↓ San Francesco da Pao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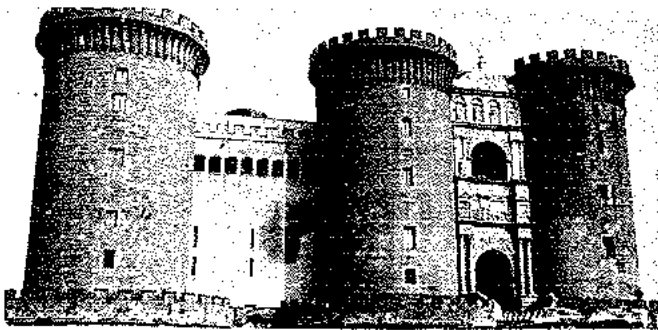


그림 5. ↑ Castel Nuovo(나폴리)

그림 7. ↓ Ercolano의 로마주택 (House With the s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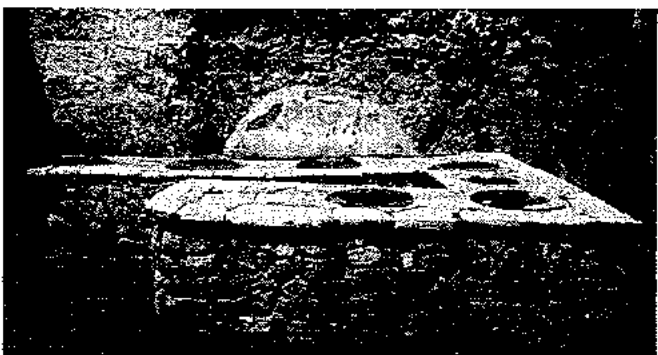


그림 8. ↑ 부뚜막의 일예

그림 9. ↓ 저리풍경과 공동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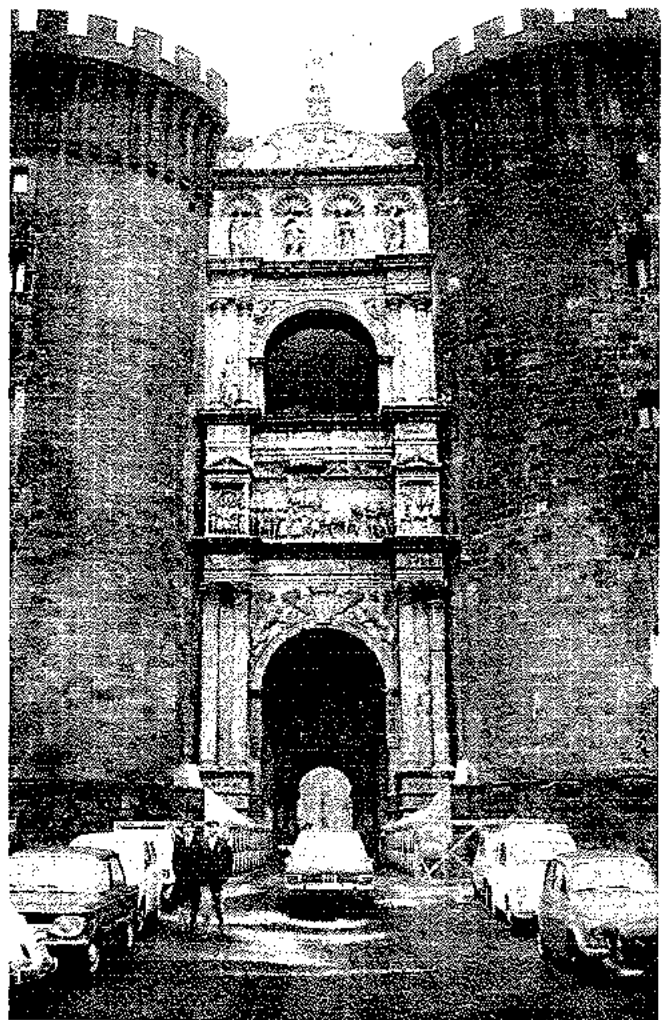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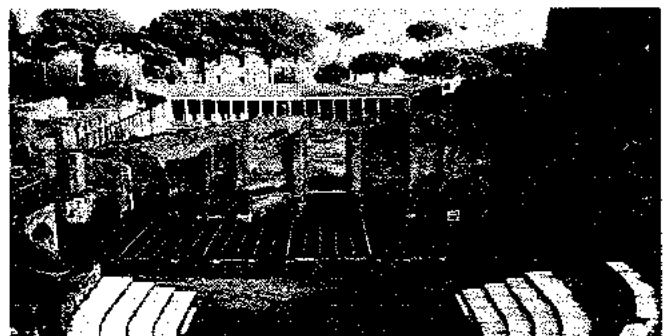


그림 6. Arco di Alfonso d' Aragona 그림 10. Foro. (Forum)



- 1: Atrium
- 2: Tablinum
- 3: Peristyle

그림 11. ↓ Teatro(극장)



Napoli에는 이외에도 많은 史的 建築物들이 있다. 이들을 탐사하는 동안 느낀 점은 우선 Napoli라는 도시가 소란스럽고 지저분하다는 것이었다. 사람들도 연성을 높여서 말하는 판계로 꼭 싸우는 사람들 같았고, 자동차들이 조금만 앞차로 막혀도 제가끔 크락손을 눌러대는 바람에 거리는 수라장이었다. 그러나 진풍경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행상들이 골목길에서 위의 아파트창으로부터 내려 보낸 줄에 매단 바구니의 돈을 받고 물건을 담아 올려보내는 것과, 좁은 골목의 한쪽 창에 나포리 아낙네가 얼굴을 내밀고 건너편 창에 다른 아낙네와 장시간 수다를 떠는 광경들이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의 구미에 맞는 것은 Pizza Napoletana(나포리식 피자)로서 멀리것을 반죽에 놓아 구워낸 것이었다.

Napoli를 아침에 떠나 도착한 곳은 바로 Napoli 아래에 있는 Ercolano(Herculaneum)로서 본래 이 마을은 로마時代의 마을이었으나 AD 79년 Vesuvius火山의 폭발로 Pompei와 함께 매몰되었던 것을 1709년 Emmapuel de Lorraine가 劇場(teatro) 자리를 발견하게 됨으로서 世上에 알려져 그후 조직적인 발굴을 통하여, 또 근년의 대대적인 발굴로 현재와 같은 완전히 가까운 모습을 들어내게 되었다.

나포리에서 Pompei로 가는 국도 18호에 면한 현재의 入口(배표소)를 통과하면 다리를 건너게 되고 이 다리와 연결되는 길은 서서히 말굽지보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그림 7은 이 길에서 내려다 본 로마 時代 住宅과 그 주변을 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현재의 都市보다 상당히 낮게 자리잡고 있다.

이 마을에는 道路가 十字形으로 나있고 공중목욕탕, 극장 등의 公共建築物과 상점, 빵가게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박물관에서는 탄소화된 곡물들을 볼 수 있었고 기타 많은 모자이크들은 Pompei와 마찬가지로 양식을 이루고 있었다.

그림 8은 어느 住宅의 부뚜막으로 술을 전 자리인지 아니면 저장용 항아리를 묻었던 자리인지 확실치 않지만 볼 때는 아궁이가 바로 앞에 나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후자가 맞는 듯 하다.

그림 9는 로마時代의 공동우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街路 곳곳에 있었다. 하수도 설비도 잘되어 있었고, 탄소화된 大門에서는 한국의 李朝時代大門과 같은 디자인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Ercolano로부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Pompei는 BC 5세기경 그리스영향하에 건설되었다가 곧 로마 제국의 지배로 들어갔던 도시이다. 이 역시 AD 63년에 지진이 난 후 AD 79년 Vesuvius화산 폭발로 Ercolano와 함께 매몰되었던 것으로 17세기 건축가 Fontana가 도로공사를 하다가 발견, 1748년 브루봉街의 찰스치하에서 발굴이 진행되어 그 모습을 들어내게 되었다.

그림 10에서 보는 Foro(Forum)은 이 都市의 公共中心地로서 이 주위에 神殿, 바지리카등이 建築되었었고, 오늘날 그 기둥, 거단들이 남아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그 기둥을 만드는 方法에 대리석등의 石材로 하는 경우와 벽돌을 쌓은 후 外皮를 다른 材料(석회등)로 싸는 方法이 있다.

그림 11은 당시의 극장(Teatro)으로서, 이 주변에도 神殿들이 몇 개 있다. 극장의 형태는 그리스극장과 비슷하게 반원형 객석과 무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극장 이외에도 투기장(Anfiteatro), 체육장(Palestra: 투기자들의 훈련장)들이 있다.

Pompei 유적에서 주목할 것은 많은 住宅道具들로 로마住宅 研究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로마時代의 住宅은 그림 12의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같이 Atrio(Atrium)과 Peristilio(Peristyle)로 대별되는 바 이중 Atrio는 李朝住宅의 사랑채와 같은 부분으로서 일반 來客은 여기에 出入할 수 있으나 Peristilio는 안채와 같이 出入이 제한된다. 또 이 두 부분 사이는 tablino(tabulinum)로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住宅平面은 로마의 外港이었던 Ostia Antica나, 전술한 Ercolano에 남아 있던 住宅道具들로 부터도 同一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은 Casadel Fauno(Faun: 半人半羊의 목축·농업神의 집)로서 대문에서 Atrio를 바라본 것이다. 또 그림 14는 代表的住宅으로 Peristilio 부분이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날 Pompei 유적지에 남아있는 탄소화된 人体들이 꼭 現代彫刻家 George Segal의 작품 그대보인 것으로, 그는 분명 Pompei에서 그 idea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외에도 탄소화된 대문, 곡식알등 등이 흥미로웠고, 뱃줄, 우물, 포장원, 도로, 이들 모두는 우리 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것들이었다. 끝으로 한가지 부언할 것은 Pompei 유적지에 근무하는 이태리수위들은 등양인인 나를 日本人으로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며 앞장서길래 가보았더니, 열쇠로 잠근 조그만 방으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들어가 보니 사면벽에 춘화도가 그려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同住宅의 大門 열벽에도 춘화도가 그려져 있었다. (물론 이것은 목조문으로 가리워져 있고 작품쇠로 잠구었음)

본인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춘화도의 성격상 침실에 그려져야 할텐데 부엌 옆방에 왜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그리고 때문에 공공연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때 혹시 娼家였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수 있었다. 그러나 설사 娼家라 하더라도 住宅家에 그렇게 대담하게 대문 열벽에 그릴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것으로 볼 때 Pompei市 全體의 社會像이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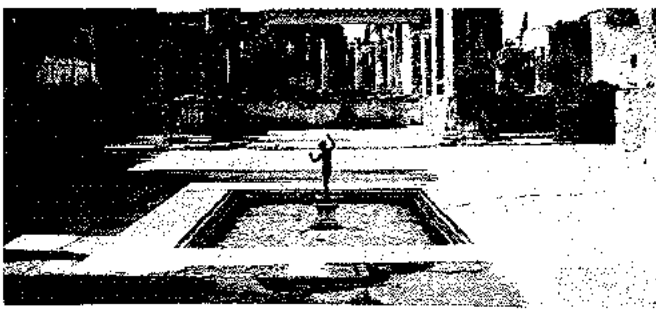


그림 13. Casa del Fau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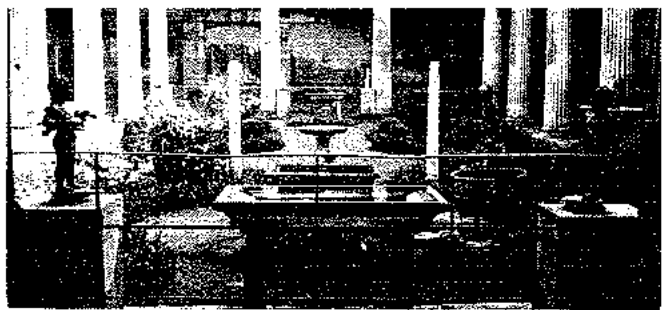


그림 14. Casa di Pansa



그림 15. Sant' Andrea 정면



그림 16. 同内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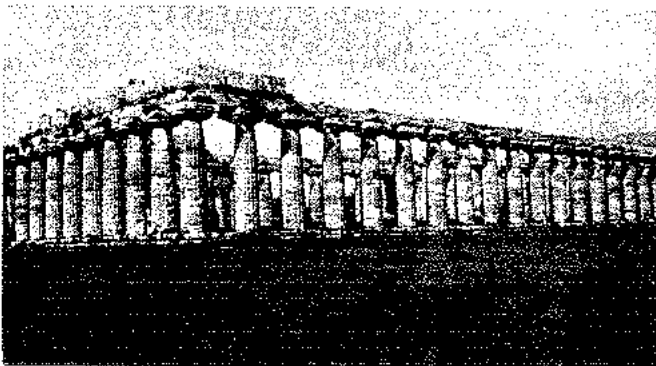


그림 17. Basil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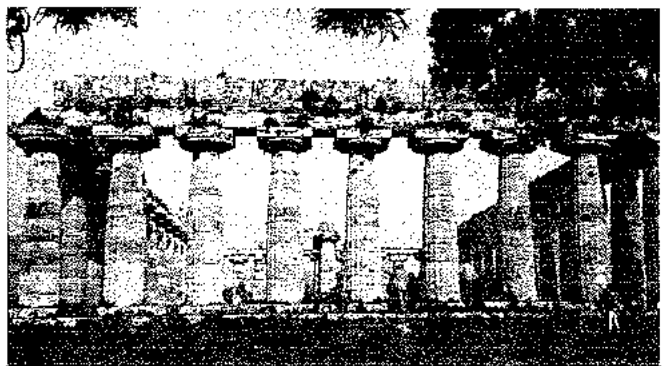


그림 18. Basilica 정면



그림 19. Basilica의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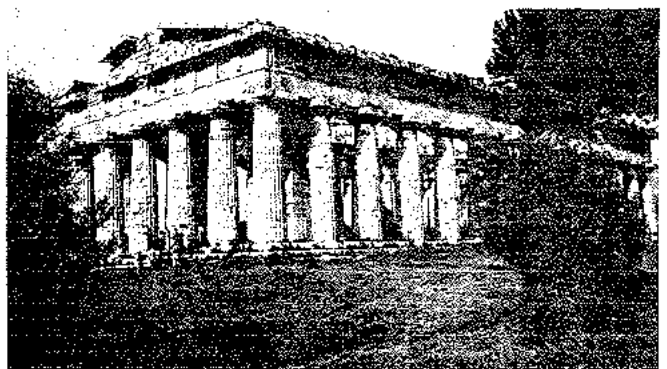


그림 20. Tempio di Nettuno



그림 21. Tempio di Nettuno의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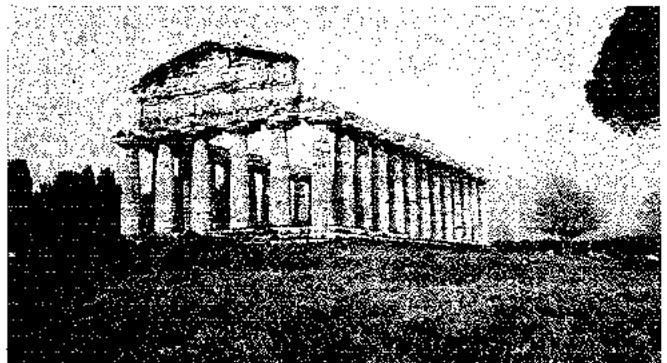


그림 22. Tempio di Cerere.

Pompei를 떠나 이태리 아니 전 세계의 최고절경이라는, 소렌토(Sorrento) 해안을 따라 車를 몰았다.

기암절벽 위로 난 꼬불꼬불한 관광도로의 중간중간에 마련한 전망대에서 무섭도록 푸른 지중해를 바라보니, 돌아오라 소렌토로”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다.

전망대 한쪽에 차를 세우고 一行인 정영웅 선생(이태리문학 전공)과 캐스버너로 밥을 지어 석양노을을 바라보며, 맛있게 먹었다. 물론 식후의 한잔 커피는 五香(芳香, 苦香, 淡香, 甘香, 余香)을 갖춘 것으로 그 맛을 무어라 표현 할 수 없었다.

소렌토에서 일박 후 또한 절경인 아말피(Amalfi)해안으로 들어서 곧 Sant' Andrea 교회당(그림 15)을 답사하였다.

본 교회당은 수 십단의 계단위에 우뚝 자리잡고 있는 바 본래 11세기에 建築되었으나 그 후 정면은 19세기에 재건하였다. (원형대로) 교회당 옆에선 로마네스크스타일의 종탑은 Sicilian-Arab Style로서 흥미롭고 同교회당 내부(그림 16)는 바록크 양식으로 되어 있다. 동교회의 Chiostr(cloister) 역시 로마네스크 스타일로 1266-68년 建築이었으나 1908년 再建되었다.

Amalfi로부터 Salerno를 지나 Paestum에 이르는 길은 길 양옆에 이태리 포푸러들이 줄지어 서있는 시원한 길이었다. Paestum(빠에스툼)은 그리스神殿建築 遺跡地로 建築史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asilica(그림 17)는 BC 500년경의 建築으로 요 9 株式으로 80'×178' 크기의 平面을 이루고 있는 Poric Order의 建築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기단은 3단으로 되어 있고 기둥에는 Entasis가 되어 있다.

그림 20은 Tempio di Nettuno로서 Nettuno는 그리스에서는 Poseidon이 되는 관계로 이를 Poseidon 神殿이라고도 한다.

이 神殿역시 도리아식으로 정면 요 6 株式이다. 기단은 3단이고 기둥높이 28' 8" 로 엔타시스가 되어 있고, 平面은 약 200'×80'의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그림 22는 Tempio di Cerere로 요 6 株式의 도릭 神殿이다. 이 역시 3단의 기단으로 되어 있고, Entasis가 있다. 본래 Athena(Minerva)에 봉헌된 것으로 BC 6세기경의 建築이다. 平面은 34m×13m의 장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 神殿 근처에는 작은 地下神殿이 있다.

Paestum은 이들 神殿들외에 Palstum박물관의 견학으로 많은 소득을 보았다. 전열법도 좋지만, 발굴광경의 사진, 복원도면, 각종 부재의 파편, 모형도 등은 建築史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전의 것이었다.

Paestum을 끝으로 다시 Napoli로 돌아와 서서히 각 박물관을 보면서 일박한 후 로마의 귀로에 오른 것은 1973년 4월 16일이었다. (계속)

筆者: 梨大美術大 助教授

水石 三昧境

朴 商 浩



• 탐석지에서 簞者 (울산 태화강에서)

우연히 돌과 연분을 맺게 되어, 술과 담배를 싫어하는 나에겐 참으로 안성맞춤으로 생각된다. 더우기 建築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審美眼을 기루어 주는데 도움이 되는 趣味인 것이다.

사람이란 자기 職業外에 무엇인가 한가지 趣味를 가지고 싶어하며, 자기 직업에 熱中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만으로는 神經의 緊張이 풀리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道樂으로 自己와 家庭을 그르치기 쉬운 것이다.

그러고 보면 水石趣味는 現代人의 精神衛生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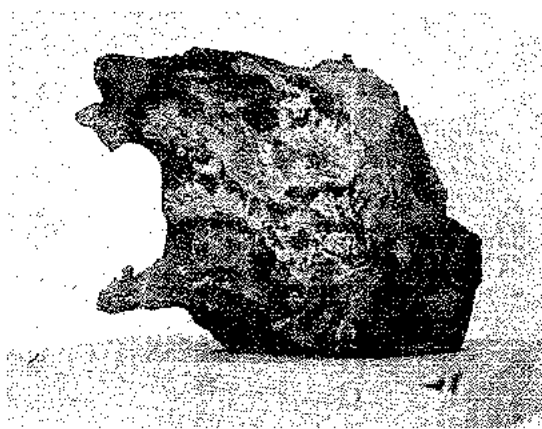
宋나라의 정치가였던 正安石은 “人生의 즐거움은 서로 마음을 아는데에 있다.” 고 했다. 요즘처럼 生存競爭이 심한 刻薄한 세상에 서로 믿을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趣味의 廣場일 것이다. 趣味의 交際는 年令과 社會의 地位를 초월하고, 다만 돌에 情을 둠으로서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 되는 것이다. 돌에 趣味를 가지고 부터 하잘 것 없는 집에 손님이 많아졌다.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돌을 보러 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 과연 돌이 지닌 魅力이란, 대단한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深奧해 지는 것 같다.

探石한지 오래된 돌이,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돌의 雅趣를 느끼게 될 때가 있다.



• 銘 • 猛虎溪石



• 銘 • 吃勝

慶南 蔚山에서 찾은 自然石 하나가 그 예다. 마치 흰 石英質의 龍 무늬같은 것이 돌의 表面을 斜角으로 수 놓았고, 斜角의 아래엔 이끼가 끼여 水盤에 앉히면 이끼 낀 斜角의 아랫부분은 밑에서부터 용머리 끝까지 불이 배어 올라가 이끼는 파릇파릇 生氣를 내며 水盤에 고인 물이 없어질 때까지 며칠이고 싱싱하다. 水盤이 湖水라 생각하면 名山을 끼고 있는 湖水에서 數千年 묵은 龍이 昇天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호수의 精氣인 수분을 흡수하고 날개인 이끼에 精氣를 모아 昇天하려는 칼라인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莊嚴한 순간을 내가 必要한 때에 볼 수 있다는 것이 곧 水石趣味의 妙味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古典에 수록된 生活風習에도 怪石의 韻致를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硯石에 蘆浦를 심어 그 韻致를 즐겼던 것이다. 돌이 물을 끌어 올려 꼭대기까지 젖어서 대낮에도 마르지 않고 이끼가 파랗게 돌아나는 돌을 沆香石이라고 하며, 가장 아낌을 받아온 돌로 開城 부근에 많이 있었다고 한다. 비단 開城뿐만 아니라, 水石으로서는 남한일대 충주, 단양, 옥천, 문경, 울진, 영덕, 울산, 제주도, 흑산도 등 중부, 동부 및 남부, 서부 해안 등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國土는 아주 좋은 水石產地를 갖추고 있어서 採石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꼭 採石만이 目的이 아니라도 모처럼의 일요일·연휴일, 휴가등을 自然을 벗삼아 新鮮한 空氣를 마시며, 하루를 즐긴다는 것은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작고하신 文學家이며 愛石家이신 조지훈先生은 「돌의 美學」이라는 수필집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돌의 맛-그것은 落木寒天의 이끼 마른 水石의 妙境을 모르고서는 東洋의 眞髓를 얻었다 할 수 없다. 옛 사람들이 마당 귀에 작은 바위를 옮겨다 놓고 물을 주어 이끼를 앉히는 거라든가, 흰 화선지에 붓을 들어 아주 省略되고 抽象된 氣骨이 품연한 한 덩어리의 物體를 그려놓고, 이름하여 石壽圖라 하여 바라보고 좋아하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흐뭇해 진다. 無味한 속에 最上의 맛을 맛보며 肅然不動한 가운데 雷聲霹靂을 듣기도 하고, 눈 감고 줄없는 저문고를 타는 마음이 모두 이 돌의 美學에 通하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說明하고 있다.

이와 같이 水石의 三昧境에 이르고 보면 참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妙味와 魔力이 있는 것이다. 水石과 精이 든지 벌써 8년이 되었으며, 그 동안에 느낀 것을 몇자 적어 보면, 첫째 採石의 즐거움이며, 이 즐거움은 自然의 造形美를 再發見하는데 뜻이 있다. 편자는 이 採石의 즐거움을 3.4.5의 詩調形式으로 옮겨 본 것을 소개한다.

맑은날 친구따라 탐석을가네
 맑은물 바위틈에 줄줄흐르고
 맑은돌 보란듯이 곱게빛나네
 맑은맘 명석찾아 저무는하루.

둘째로는 採石後의 演出(즉 어울리게 台座를 만들고, 자리에 앉히는 것)이 될 것이다. 혹은 水盤에 앉히는 것이라든지, 台座와 水石의 調和, 水石과 水盤의 調和등을 다루어야 한다. 演出方法에 따라 그 調和의 美는 환경조건이나 수석하는 이의 教養度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美學이나 生態, 色彩 調和, 構成등 디자인 센스에 대한 기본교육이 되어 있으면 더욱 眞味를 느낄수가 있다. 水石을 하면서 알아두면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 곧 書芸, 東洋畵, 盆栽, 蘭, 木刻, 골동, 등으로서 水石장상의 三昧境의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愛石의 길에 無限한 修業이 必要하며 이 修業이 끝이지 않고, 한 人間의 生涯가 다 할때까지 石壽萬年처럼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아침 이슬을 맞은 돌에 햇살이 비취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水石을 바라보는 神秘境. 사철의 변화에 따른 水石의 변화, 눈이나 비에 젖은 風情, 乾濕에 따른 표면의 변화는 서서히 그것도 하늘의 구름처럼 자연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또한 水石은 觀者의 方位와 角度에 따라 다른 變形美등 주어진 時空에 따라 많은 變化를 갖게 하며, 內的으로는 嚴存不動한 眞像實體인 것이다.

그간 石情으로 느끼는 愛石觀의 方向은 「眞禪美의 水石道」를 基本으로 하고 싶다.

眞은 돌의 基本根幹인 참이며 眞實이다. 돌을 연분한 交友도 물론 眞實이란 觀念을 媒介로 하기 때문에 愛石하는 사람의 生活信條가 되는 것이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다.

禪은 禪宗思想과의 連關등 東洋哲學의 基本思想을 이루는 것으로서 금후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美는 水石의 순수美的인 方向의 指向을 뜻하며 西洋의 美의 基準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水石美는 東西洋의 美의 思想의 橋梁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愛石의 度가 깊어지면 앞의 眞禪美中 어느 한쪽으로 더 比重이 갈지 또는 相互調和는 趣味의 深度에 따라 展開될 것으로 안다.

다음은 노산 이운상 先生께서 一石 이희승 先生께 드리는 石頌을 소개해 보면,

「산마루 돌 한덩이 천년도 하루 같다.
물이 엉기고 불이 뭉쳤느냐?
금 들고 옥이 든 줄을
갈라 보면 알리라」

그리고 初心者를 위하여 水石의 定義와 分類, 그리고 名石의 條件 水石의 감상법, 수집 방법등을 참고로 열거해 볼까 한다. 水石의 定義를 설명하기 전에 水石이 취미의 범주에 속함으로 취미의 定義를 먼저 생각해 보자. 사전에

- ① 취미란 美的 대상을 감상하고 비판하는 能力,
- ② 感興을 일으키는 狀態
- ③ 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것

이라고 적혀 있다. 이중 몇은 어떻게 정의하고있는가 살펴보면,

- ① 방탕한 기상,
- ② 품치있는 멋,
- ③ 事物의 真味

로 적혀 있다. 위의 몇가지 정의를 要約해 보면 美的 対象을 감상하고, 그 감흥에 끌리어 事物의 真味를 알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水石의 정의도 또한 이와 共通點이 있는 것이다.

「한개의 自然石이며, 山水美의 景觀을 나타내고, 形象의 奇怪무늬의 妙 色채의 아름다움등 造化의 움직임을 凝縮한 것이며, 주로 室内 庭園등에서 감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水石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자.

- ① 산수풍치석, (혹은 山水景石이라고도 함)
- ② 모양석 (혹은 形像石)
- ③ 무늬석 (혹은 紋樣石)
- ④ 생채석,

⑤ 추상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의 산수풍치석은 수석의 根幹이 된다. 우리 新羅의 古典에 山水景의 美를 더 細分하여 深谷美, 丘陵美, 山嶽美, 靈嶽美 등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山水石에서 도 峰만 가지고도 單峰, 雙峰, 連峰으로 細分하며, 기타 瀑布石, 段石, 섬돌, 호수석, 등 그 구분을 많이 할 수 있다.

무늬석은 돌의 표면이나 돌에 박힌 異質物등으로 인한 무늬의 묘를 기하고 있는 돌로서, 꽃무늬 풍경등 다양한 무늬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모양석은 어떤 具像의인 모양을 닮은 돌로서 佛像, 聖人像塔, 거북등은 좋은 모양석이다. 추상석은 추상미술에서 定義하는 바와 같이 현실적인 구상적인 형상이 아닌 모양으로서 美的感興을 일으키게 하는 돌을 말한다. 색채석은 돌자체의 조직 및 그 질의 색채감에서 우러나는 다양한 색채의 妙味가 있는 돌을 말한다. 색채석과 무늬석이 때로 공통점이 있는 것이 있다. 이는 색채가 어떤 무늬를 이루고 있을 때인 것이다.

또한 水石의 觀賞은 個體의 発見으로부터 組合해서 面에의 活用に 이르고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方式로 演出되어 空間의 創造에 이르게 되며 보다 진숙한 水石의 경지를 理解하려면 茶道, 華道, 香道, 書畵, 骨董, 盆栽, 花鳥, 추상미술, 도자기, 金魚등의 취미를 理解함으로써 水石으로 入門하면 그야말로 水石의 三昧境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반대로 水石에 入門하면서 위의 諸分野를 조금씩 並行해서 理解하려고 努力함으로써 水石의 基本教養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角度에서 살펴보면, 水石의 美를 追求하다 보면 人間, 自然, 藝術, 科學의 美的 原形을 찾아 보려고 努力하게 될 것이고, 이 美的 原形을 어떤 一定한 理法(秩序)에 따라 살펴보면 예로서 水理(雲理), 木理, 氣理, 火理에 따라 그 原形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原形을 다시 眞과 禪에서 이렇게 分類하고 있다. 眞에서 眞體石, 眞像石, 實像石, 禪에서 淸淨味石, 單純石, 山水景石, 心石으로 나누어 生覺하는 사람도 있다.

水石의 呼稱으로는 水石, 壽石, 秀石, 雅石, 珍石, 名石, 美石, 樹石, 禪石, 眞石, 心石, 怪石, 阮石, 奇石 등과 같이 水石에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으나, 그 意味가 觀點 引用方式, 種類別 등에

따라 달리 使用된다. 그러나 水石이 山水景의 縮少景이 根幹이 된다고 볼 때 山水景이 있는 물 山水景石, 山水石, 水石으로 준말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石壽萬年, 菖蒲壽石 등 돌의 壽 또한 文章的 引用의 멋으로 쓰일 때의 경우와 같이 壽, 秀, 雅, 名, 珍, 阮 등의 글자를 使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무나 盆栽를 합쳐서 말할 때 樹石이라고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名石의 條件은 形像, 質, 색채, 표면의 자연미등의 觀點을 두며 그 중 形像을 으뜸으로 한다. 아무리 質과 색채가 좋아도 모양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며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質이 약하여 損傷되기 쉽거나 색갈이 못하면 名石이 되기는 어렵다. 보통 水石의 보는 方法으로 前後, 左右, 上下를 살펴보게되는 것이며, 이것을 三面의 法이라고도 한다.

또한 北宋時代의 文人 米元章은 「石四則」이라고 하여 名石의 基本條件을 아래와 같이 整理했다.

透(투) : 구멍이 뚫어져 통해 있는 것.

皺(준) : 석면에 주름살이 아름답게 있어야 하고

秀(수) : 빼어난 勝力과 氣品이 있어야 하고

瘦(수) : 군살이 없고 힘 골살꼭게 감치고 휘어져나간 線美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반드시 四則만이 名石의 條件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돌의 美的인 特性을 아주 잘 表現했다고 볼 수 있다.

돌의 크기는 種類에 따라 다르나 대개 산수 경석의 경우는 20cm~40cm 정도의 것이 名石 으로서는 적당한 크기로 볼 수 있다. 모양석은 小品이라도 좋으나 색채석의 경우는 엷은 색 계통보다도 짙은 계통의 색깔(흑색, 흑갈색, 흑록색, 홍정 등)이 일반적으로 무게가 있으며 더욱 애완되고 있다. 색채석의 경우 색채의 효과를 내기 위한 표면의 손질 磨石 등 손질을 한다.

그러나 水石의 眞味는 어디까지나 절단 加工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水石의 감상방법은 담석된 돌을 깨끗이 씻어서 수반에 앉힐 것이나, 台座(木類)에 앉힐 것이나를 決定하고 水盤에 앉힐 경우 수반의 크기와 색깔등이 수석과 調和가 되어야 하며 수반 바닥에 까는 모래의 粒度도 적합하여야 한다. 모래뿐 아니라, 바위이끼, 석창포등도 연출의 보조물로서 쓰인다. 깨돌등은 절대 禁物이며 自然모래를 반드시 利用함이 좋다. 어디까지나 돌이 主이고 수반 내와는 부수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主從이 전도 되기 쉽다.

이런 경우에 美的 審美眼이 더욱 必要한 것이다.

수집방법은 야외 탐석하는 방법, 구입하는 방법등이 있으나 좋은 예로서는 수석회에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를 것 같다. 먼저 시작한 선배들의 이야기, 수집된 수석등을 관람하고 설명도 듣고, 책자도 읽어보고, 야외 탐석시에 따라 다녀도 보고, 하면 자연히 수집게 되는 것이다.

수집도 구체화 되면 수집方法이 細分化 되어 產地別, 種類別등으로 나뉘게 되며 各者의 취미에 따라 더욱 細分化되며 예를들면, 부처성인 등 모양석만 모으는 등 各樣이 되는 것이다.

수집된 돌의 命銘 또한 흥미로운 것이며, 예를 들면 「遠山春情」 「猛虎溪石」 「生命의 殘像」 등과 같이 돌에서 느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詩情어린 銘을 지어봄으로서 水石의 더욱 깊은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水石취미를 권유하는 몇 가지 事由를 적어보면,

愛石하는 이의 마음은 純化되며

審美眼을 키워주고 自己도 모르게 좋은 人間性品이 이루어지고, 日常生活의 人間關係와 友愛등을 북돋우어 주며

하루 하루의 生活이 즐거워 짐으로서 自己生活의 보람과 積極性을 피게 됨으로 意慾과 生氣에 참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人生을 長壽할 수 있을 것이며 後孫에 記念될 남음도 있을 것이다.

建築 과 人生

柳 承 根

이 글은 筆者가 建築을 배우면서부터 建築에 從事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20余年間 恒常 生覺하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적어 본 것이다.

建築이란 무엇인가?

“建築이란 人間最大目的을 爲한 造型的 考察이며, 智的思索이며, 最大最上の 数学인 同時에 技術이다.”
(Le Corbusier)

“建築이란 人間生活의 容器이다” (Le Corbusier)

“建築이란…… 純粹한 精神의 創造” (Le Corbusier)

“建築이란 人間의 精神에 效果를 주는 것이지, 단지 人間의 身體에 도움이 됨을 目的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John Ruskin)

어떻든 이렇게 建築이란 人間이 世上에 태어나서부터 人生과 密接한 關係를 가진 것은 없다고 보아도 過言은 아니다. “衣食住”라고 일컬으는 바와 같이 人間은 自身의 常住坐臥를 爲한 어떠한 容器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아니라 人間의 學問, 藝術, 宗教, 産業等 文化的 活動도 露天을 지붕삼고선 도저히 營爲될 수 없는 것이다. 生活이건 文化이건 建築없이는 存在性이 成立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建築이야말로 온갖 人間活動의 母體라 아니할 수 없다.

—建築은 藝術이다—

建築이 人間을 對象으로 營造된 物體인 以上 이 營造物은 人間生活을 充足시키는 要素를 具有하지 않으면 안된다. 人間生活은 感情을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없으며 人間의 生活이란 眞, 善, 美를 基調로 하는 것이며 人間은 日常生活에서 眞, 善은 勿論 感情의 理想인 “美”를 追求하는 것이다. 따라서 感情情緒를 基調로 하는 人間生活이 營造되는 處所가 바로 “집”이라 하면 建築이야말로 “美”의 追求를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考察할 때 建築의 藝術性은 人生의 容器로서의 建築을 完全케하는 不可缺한 要素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構造, 機能, 美를 建築의 三大要素로 삼고 있다.

建築이란 첫째 構造의이어야하고, 둘째 機能的이어야하며, 셋째 審美的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建築史를 通하여 볼 때 이 三大要素의 어디에 重點을 두었느냐 따라서 그 時代의 建築樣式의 特徵이 있었던 것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은가?

現代建築의 巨匠 “르·코르뷔제”는 『집이란 生活을 爲한 機械이다』라고 까지 說破하여 建築裝飾의 不必要性和 그 實用性을 強調하였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機械」란 單純히 工作機械를 指稱하는 것은 아니다. 집이란 첫째 機能的이어야 한다는데 있으며, 그보다 더 깊은 意味를 內包하고 있었던 것이다. 19世紀 近代建築이 建築의 本質을 沒覺하고 彫刻繪畵等과 같은 造型藝術의 觀念下에서 當時의 藝術潮流에 휩쓸려 頻頻한

裝飾에만 汲汲한 나머지 建築本來의 使命을 忘却한데 對한 反動的 警語이며 比喩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낱 조그마한 作品인 “트랜지스터”에도 美的意匠을 나날이 닦아내 開發하는 것이며, 衣類의 조그마한 附屬物에 지나지 않는 “단추”의 審美的 配慮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본다면 人間生活을 담는 機械란 “집” 아니 建築에 있어서라!

科學的인 面과 經濟的인 面에 立脚한다는 構造主義建築에도 “構造에서 오는美”다시 말해서 “構造美”란 말을 쓰고 있었으며 어딘지 모르게 造型美를 否認키 못하는 것도 事實이며, 初期現代建築思潮의 主潮라 말할 수 있는 機能主義建築도 “機能에서 오는美” “無裝飾의 美”란 用語를 숨기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清楚爽快感을 그 生命으로 하면서 人間感情에 感動을 갖도록 하는데 目的을 두었음은 既知의 事實이 아닌가? 이와같이 “建築美”라는 것은 人間性이 要求하는 生活必須要素임에 아무리 高度로 發達한 現代科學과 技術로 經濟的이고 機能의이고 絶對實効의인 것이라해도 우리人間에게서 感情을 송두리채 뺏어 버리지 않는 限, 建築은 意識的이던 無意識的이던 「美的 範疇」를 떠나서는 絶對로 營造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建築이 “美”를 科學과 함께 그 構成要素로 삼는다는데 工學的所産으로서의 建築이 他工學部門間에 特異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建築을 「人間工學」이라고까지 불리우는 所以가 여기에 있지않은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建築이란 科學과 藝術의 綜合體로서 우리人間性을 滿足시키고, 人間生活을 円活, 充足시키고, 人生을 潤沢하게 하는 바, 普遍的眞理를 摸索하는 哲學이기도 하다.

- 建築은 凍結된 文化이다 -

참된 意味에서 “人間生活”이란 말은 人類의 社會的生活을 뜻한다. 이는 高性能智慧를 가진 人間の集團生活을 말하는 것으로, 構成員 사이에 情緒, 理智의 相互刺戟, 相互反應, 相互調整, 理想的追求를 授受하는 精神的 相互作用을 그特徵으로 삼는다. 이 特徵의作用은 人類에게 “文化”라는 社會的現象을 露臺해 주었다. 또한 學問, 藝術, 宗教, 經濟, 政治, 法律, 道德等を 總括하여 말하는 “文化”란 人間の 社會的 生活에서만 養成될 수 있는 必然的 所産物이라는 것이다. 文化가 人類의 社會的 生活을 그 基礎로 하고 또한 建築이 우리人生과 絶對的인 血緣關係를 갖는다는 點에서 볼 때, “文化”와 “建築”사이에는 一聯의 有機的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建築이 文化財의 하나인 科學이며 또 藝術인 까닭에 建築 또한 文化的 所産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文化”가 人間生活에서 自然을 純化하여 精神的 理想을 追求하고 實現하려는 人生過程에서의 抽象的 成果라면 “建築”은 주어진 自然을 直接素材로 하여 實存의 理想을 生活空間으로서 追求, 表現하려는 具象的 成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文化”란 人生에서 養成되는 社會現象의 形而上이요, “建築”은 그 形而下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한다면 建築은 文化 그自身의 具顯體라 말할 수 있다. 詩聖 “杜甫”는 「建築은 凍結된 音樂이다」라고 比喩하였지만 우리는 「建築은 凍結된 文化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適合妥當한 줄 믿는다. 우리는 지난날의 建築史를 더듬어 볼 때 이러한 比喩는 더욱 쉽게 理解가 될 수 있는 것이다.

建築의 形成要素에는 決코 社會的素因만이 있는 것이 아니요, 自然的 素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地域的 條件인 位置, 地質, 氣候, 地下資源等の 自然的 素因을 內包하고, 그것이 建築의 主要한 素因임을 알 수 있다. 地理的 條件이 東洋建築, 西洋建築이란 二大主流를 만들었고, 氣候의 相異가 構造의 相異를 나타내어 壁體, 지붕의 技術的 形態의인 表現을 左右하였으며, 風習과 生活樣式에 따라 建築의 機能을 決定지우며, 이러한 自然的 與件에서의 情緒的, 審美的인 追求의 表現이 相異함을 알고있으며, 이렇게 그 自然的 素因의 至大性을 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自然的 素因은 社會的 素因에 內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왜그러냐하면 人間은 自然環境에 絶對的인 支配를 받고 있으며, 이것을 逆行, 拒否할 수 없으며, 自然的 攝理를 無視할 수 없으니, 우리 生活에서 造成되는 社會現象도 自然이란 範疇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社會現象의 하나인 “文化”는 “自然性”을 內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文化的 凍結體인 建築은 自然的 素因이 그主要 素因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建築은 그社會의 文化的 尺度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 建築은 그民族의 性情과 藝術 宗教를 表示한다 -

韓國建築의 着實, 穩和속에서 純朴, 忍耐의 우리民族性을 自覺할 수 있으며, 中國의 雄大, 濃華한 建築

에서 그들의大陸의 空想과 誇張性을 엿볼 수 있고, 印度建築의 神秘, 幽玄의 相은 印度民族의 思索의 性情을 나타낸다. 이들 各民族의 性情은 그들의 藝術에 展化되어 各民族의 藝術에 獨特性을 賦與하였다. 우리의 純朴, 溫和의 藝術이 그러하며, 寬大하고, 意志的인 中國의 藝術이 그러하고, 印度의 神話의이며 穩健한 藝術이 그러하다. 또한 各民族의 藝術은 그들의 建築에 反映되었으니 古代회랑建築의 理性美는 그들의 民族藝術이기도 하였으며, 人間尊重, 人間紐帶를 爲한 루네쌍스建築이 Humannism의 藝術이기도 하다. 神本主義思想이 高潮되었던 13世紀에는 宗教人의 情熱的인 神의 信仰心에서 冲天的 氣勢를 나타낸 「고딕建築」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 建築은 政治, 經濟, 歷史를 말하여준다 -

專制君主國에서는 宮殿과 城廓이 建築의 中心이 되었으며, 民主國에서는 大衆을 爲한 公共建物이 그 中心이었다 15世紀中葉 프랑스의 루이14世의 絶對王政의 所産으로 “벨사이유宮殿”이 이루어졌으며 獨逸의 “나치스”가 “게르만 民族運動”을 推進하기 爲하여 指導的建築家들의 活動을 制約하였다는 史實은 建築의 政治性을 代辯하여 주고있다. 또한 經濟狀態의 如何가 그나라建築에 直接的인 影響을 끼친다함은 建築이 工業이라는 点에서 知了될 수 있다. 建築史를 읽어 볼 때 “바로코”, “로코코”建築같은 華麗한 建築樣式이 이어나게 된 것은 그當時의 國際交易이 盛해 經濟的富力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18世紀中葉에 들어서면서 各國의 經濟力의 低下로 華麗한 建築樣式을 反對하는 古典主義建築樣式이 抬頭하게 된 것도 그 하나의 要因으로 經濟性을 內包하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時代가 흐름에 따라 政治, 經濟相도 變遷하는 것이기에 이에 直接的인 影響을 받는 建築도 또한 그 變化와 盛衰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社會, 그 나라의 建築을 全般的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社會 그 나라의 歷史를 能히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이다.

- 建築은 科學의 發達에 크게 左右된다 -

建築이란 科學的인 綜合藝術이란 말과같이 建築은 科學의 基礎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科學의 發達이란 곧 建築의 發展을 意味하는 것이다. 近代建築의 過渡期인 折衷主義建築時代에 처음 鉄骨構造를 使用하여 構造技術의 革新을 이룬 것도 그 當時 産業革命으로 인한 手工法에서 機械工業時代로 轉換된 그 根本原因이 科學의 發達이었으며, 建築資材가 機械工業에 依해 大量生産되었다는데 또한 基因됨을 볼 수 있었으며, 新建築材料의 發明과 이에 따르는 構造, 意匠의 革命이다. 萬一 鉄, 유리, 콘크리트가 없었더라면 現代建築의 主潮였던 “機能主義建築”이니 “國際建築”이니 하는 語彙는 建築史에서 찾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 建築은 人生이다 -

끝으로 우리는 建築의 決定的成因으로 個人性素因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다같이 同一한 自然的, 社會的 素因이 作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街路에 千態萬相의 建物로 하여금 그 場所에 存立케한 建築主와 또 그러한 姿態를 賦與한 建築家에 基因한 것이라 하겠다. 다시말해서 그러한 建物이 現存케 된것은 建物主의 性格, 教養, 趣味, 經濟力, 그用途等を 原像으로 삼고, 建築家의 獨特한 性格, 人格, 建築의 技術(手法), 建築觀을 通하여 寫像된 極數論的 結果라는 것이다. 다같이 個人的素因을 이루면서도 建築主와 建築家は 한 建物을 形成하는 要因에 있어서 그比重이 다르다. 제 아무리 建築主가 理想的 建築을 마음속에 그려도 建築家의 一舉一動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까닭이다. 建築을 實現段階에 옮긴다는데 個人的 素因으로서의 重要性이 있고, 이段階를 完成으로 이끈다는데 建築家의 優位性이 存在하는 것이다. 이러한 建築主와 建築家의 相互關係는 한家庭에 있어서의 夫婦의 關係와 아주 恰似하다. “建築”이란 子息을 이 世에 誕生케 하려면 어머니인 建築家は 먼저 父的位置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建築主의 刺戟과 協助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受胎出産하여 또 그幻兒를 한 사람의 完全한 人格者로 養育하려면 다른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役割이 重大하다. 이는 모든 偉人의 어머니가 周圍環境에 透徹하고 올바른 人生觀을 所有한 賢母였다는 事實이 잘 說明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建築家도 時代思潮에 明徹하고 健全한 建築觀을 지니고 있어야하고 門滿한 人格者라야만 偉大한 建築을 出産形成할 수 있다는 斷論은 明若觀火한 일인 것이다. 事實 過去의 偉大한 建築家は 偉大한 思想家이기도 하였으며 社會의 指導者이기도 하였다.

個人的 素因을 家庭에 比喩하였거니와 個人的 人格이 그 家庭의 家風에 依하여 構成되고, 이 家風은 그 나라 그 民族의 風習, 傳統, 社會相, 自然環境等に 左右된다는 것은 마지 한 建築의 構成이 個人的素因에 依하여 決定的으로 運命지워지고 社會的, 自然的素因 如何에 따라 그 運命의 樣相이 이루어 진다는 事實과 全然一致함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人間의 人格構成과 建築構成이 同一한 軌道를 밟는다면 建築의 本質이란 이러한 人生過程과 建築過程의 合致性에 潛在되어 있지않을까?

그렇다. 建築의 本質이란 다음 語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建築은 人生이다” 라고 - 끝

新建築綜合研究所 所長

政府勞賃單価

(75년도)

(1일 : 8時間基準)

職 種	74年勞賃 원	75年勞賃 원	引 上 率 %
보 통 인 부	820	1,030	26
증 기 울 전 사	1,410	1,830	30
잠수부(4인조)	11,700	15,200	30
형 틀 목 공	1,390	1,740	25
방 수 공	1,230	1,780	45
갱 부	1,250	1,630	30
착 압 공	1,160	1,620	40
건 축 목 공	1,510	1,960	30
저고압내선공	1,620	2,110	30
마 계 공	1,280	1,660	30

▲건설·공사부문

번호	직 종	단 가
1	건 축 목 공	1,960
2	조 선 목 공	2,120
3	형 틀 목 공	1,740
4	동발목공(터널)	1,800
5	동 발 공(터널)	1,240
6	특수비계공	2,230
7	마 계 공	1,660
8	석 공	2,030
9	활 석 공	1,850
10	벽 들 공	1,680
11	부 락 공	1,680
12	타 일 공	1,920
13	벽돌(부력)제작공	1,460
14	줄 눈 공	1,600
15	개 와 공	1,790
16	콘크리트공	1,280
17	양 생 공	1,060
18	방 수 공	1,780
19	내 장 공	1,790
20	미 장 공	1,820
21	도 장 공	1,690
22	샤 슈 공	1,860
23	도 배 공	1,630
24	스 케 트 공	1,860
25	돛 자 리 공	1,580
26	운 물 공	1,840
27	계 령 공	1,270
28	연 마 곡(건축)	1,470
29	연 마 공(기계)	1,350
30	철 근 공	1,660

31	배 관 공	1,820
32	철 관 공	1,860
33	철 공	1,720
34	대 장 공	1,730
35	재 관 공	1,820
36	철 골 공	1,910
37	강 판 공	1,850
38	절 단 공	1,680
39	관 금 공	1,760
40	드 릴 공	1,660
41	기 계 사 상 공	1,950
42	보 은 공	1,720
43	보 안 공	1,500
44	보 이 라 공	1,960
45	위 생 공	1,860
46	정 화 공	1,810
47	냉 동 공	2,100
48	샷 다 공	1,860
49	환 기 공	1,660
50	우 물 공	1,660
51	잠수부(4인조)	15,200
52	잠 함 공	3,680
53	갱 부	1,630
54	연 료 소 재 부	1,300
55	연 료 공	1,980
56	시공측량기사	2,150
57	시공측량조수	1,140
58	측 부	1,100
59	검 조 부	1,620
60	보랑공(지질조사)	2,050

61	발 파 공	1,520
62	화 약 취 급 공	1,840
63	착 압 공	1,620
64	조 장 공	1,690
65	조 설 공	1,760
66	케 도 공(철도)	1,750
67	케 도 공(일반)	1,480
68	보 선 공	1,540
69	벌 목 공	1,120
70	조 립 인 부	960
71	벌채지도인부	1,200
72	영 립 기 사	1,690
73	조 원 공	1,510
74	도장공(철도차량)	1,630
75	특별고압외선공	3,800
76	특별고압내선공	3,380
77	특별고압설비공	3,680
78	특별고압케이블공	3,990
79	저고압외선공	2,570
80	저고압내선공	2,110
81	저고압설비공	2,110
82	저고압케이블공	2,480
83	통신외선공	2,670
84	통신내선공	2,110
85	통신설비공	2,260
86	통신케이블공	2,670
87	철도신호공	2,770
88	측 료 공	2,280

▲제조가공 부문

89	마 령 공	1,300
90	샤 링 공	1,330
91	요 철 공	1,370
92	재단사 (천물)	1,220
93	절 단 사	1,230
94	프 레 스 공	1,370
95	밀 령 공	1,330
96	산 소 절 단 공	1,520
97	회 전 쇠 볼 공	1,330
98	모형절단기공	1,330
99	쇠톱공(금속)	1,140
100	가 위 절 단 공	1,090
101	단 금 절 단 공	1,090
102	강 판 공	1,380
103	관 남 공	1,460
104	조음과절단공	1,620
105	방 전 절 단 공	1,570
106	쇄 파 공	1,270
107	홈 링 공	1,580
108	로 구 로 공	1,350
109	드 릴 공	1,120
110	문자조각기공	1,470
111	보 령 공	1,530
112	프레나공(표면)	1,530
113	스 롯 타 공	1,490

114	3 본 토 타 공	1,230
115	엔딩 매 신 공	1,430
116	절 곡 공	1,460
117	조 각 기 공	1,320
118	분 반 공	1,470
119	레이저 판 선 공	1,520
120	열 처 리 공	1,410
121	구 목 공	1,260
122	용 해 공	1,300
123	목 형 공	1,600
124	주 물 공	1,470
125	단 조 공	1,370
126	압 연 공	1,490
127	인 발 공	1,430
128	합 금 공	1,430
129	제 금 공	1,540
130	압 출 공	1,400
131	수 봉 교 정 용	1,300
132	바란스 매 신 공	1,140
133	사출공(인젝션)	1,330
134	성 형 공(몰딩)	1,370
135	압출공(인스루루트)	1,150
136	구 라인 다 공	1,110
137	지 석 연 마 공	1,110
138	사 지 공	980
139	빠 후 공	1,190
140	혼과운드연마공	1,190
141	전 해 연 마 공	1,410
142	화 학 연 마 공	1,430
143	호 닝 공	1,690
144	세 척 공	1,150
145	양 극 처 리 공	1,110
146	목 공 도 장 공	1,670
147	회 부 공(도장)	1,370
148	합성수지피막공	1,320
149	진공집적합침공	1,110
150	전 기 도 금 공	1,450
151	침 적 도 금 공	1,350
152	훈 밀 공	1,200
153	포 장 공(블록)	890
154	검 사 공	1,190
155	조 정 공	1,380
156	시 험 공	1,110
157	고체연료제조공	1,270
158	일 반 화 학 공	1,540
159	도자기및액자공	1,270
160	유리제품제조공	1,230
161	요 열 공	1,100
162	제 본 공(남)	760
163	제 본 공(여)	650
164	음 설 인 쇄 공	1,330
165	활 판 인 쇄 공	1,030
166	사 진 조 판 공	1,240
167	식 자 공	1,010
168	문 선 공	970

169	공 판 건 제 공	1,360
170	도 안 공	2,010
171	채 봉 공	1,160
172	채 봉 사(여)	980
173	직 포 공(여)	710
174	침 열 공	850
175	연 사 공(여)	680
176	정 경 공(여)	950
177	염 직 공(여)	700
178	관 권 공(여)	680
179	방직기계보전공	1,120
180	제 단 사	1,730
181	재 봉 기 제 사	1,320
182	고무제품제조공	1,440
183	견 직 공	1,110
184	제 화 공	1,340
185	망과자및식품류제조공	1,560
186	" (여)	1,030
187	조 리 사	1,370
188	영 양 사	1,470
189	붓 칠 공(도장)	1,220
190	기 능 공	1,160

▲ 공 통 부 문

191	복 별 인 부	1,260
192	보 통 인 부	1,030
193	여 자 인 부	690
194	복 도	1,610
195	심 장	1,520
196	끝 손 철 공	1,190
197	숙련공의조공	1,010
198	중 기 운 전 사	1,830
199	운전사(운반차)	1,500
200	중 기 조 수	1,160
201	기 계 운 전 사	1,630
202	정 비 공	1,730
203	우마차(마부포함)	2,820
204	우경부(쟁기포함)	2,480
205	배 (사공포함)	3,440
206	고 급 선 원	1,880
207	보 통 선 원	1,500
208	선 부	1,300
209	동 력 공	1,940
210	변 전 공	1,970
211	전 력 기 제 공	2,000
212	발전소보수공	1,750
213	배 선 공	1,730
214	보 안 외 선 공	1,880
215	무 선 안 테 나 공	2,320
216	중 전기 조 립 공	1,450
217	기 계 총 조 립 공	1,660
218	벨트콤베어작업공	1,130
219	벨트콤베어작업공(여)	710
220	기 계 기 술 공	1,890
221	통 신 기 계 공	1,950

222	통신기계수리공	2,000
223	기 계 공	1,730
224	현 도 사	1,780
225	제 도 사	1,660
226	회 로 설 계 사	2,020
227	가 구 설 계 사	1,980
228	미 술 사	1,720
229	시험사 1급	2,100
230	시험사 2급	1,660
231	시험사 3급	1,470
232	시험사 4급	1,220
233	시 험 보 조 수	880
234	제 지 공	1,380
235	가 구 공	1,850
236	유 리 공	1,580
237	마 이 브 레 타 공	1,240
238	합 석 공	1,710
239	전 기 용 접 공	1,890
240	산소카스용접공	1,890
241	터 벳 공	1,900
242	바 테 도 로 공	1,410
243	선 반 공	1,780
244	투 췌 공	1,540

全國建築許可統計

1974. 11月 現在

월별 건축허가통계 전년대비

단위: 건 수: 건
연면적: 평방미터

구분 월별	'73		'74		연면적대비 (%)
	건 수	연 면 적	건 수	연 면 적	
1	2,558	394,409	4,346	813,030	206.1
2	3,837	673,137	8,160	1,009,226	149.9
3	10,807	1,263,578	15,172	1,661,999	131.5
4	12,152	1,604,649	15,018	1,989,788	124.0
5	13,073	1,689,205	13,677	1,752,570	103.8
6	12,895	2,068,595	11,605	1,286,902	62.2
7	9,695	1,611,801	9,279	1,440,859	89.4
8	11,300	1,709,640	10,821	1,679,117	98.2
9	12,037	1,558,101	13,701	1,717,503	110.2
10	14,233	1,788,326	12,321	1,392,532	77.9
11	8,762	1,195,806	8,475	1,089,351	91.1
계	111,149	15,557,247	122,524	15,832,807	101.8

용도별 월별 허가통계 전년대비

단위: 건 수: 건
연면적: 평방미터

용 도 별		11월			1 - 11월		
		'73	'74	대비%	'73	'74	대비 %
주 거 용	건 수	6,693	6,605	98.7	91,745	105,177	114.6
	연 면 적	502,009	559,495	111.5	7,490,004	9,808,717	131.0
상 업 용	건 수	799	1,158	144.9	9,583	9,538	99.5
	연 면 적	136,627	299,148	219.0	2,013,456	2,146,793	106.6
공 업 용	건 수	546	336	61.5	5,386	3,212	59.6
	연 면 적	366,120	160,213	43.8	4,547,501	2,607,096	57.3
문 교 사 회 용	건 수	126	78	61.9	1,100	1,101	100.1
	연 면 적	73,916	28,571	38.7	705,471	627,651	89.0
기 타	건 수	598	298	49.8	3,335	3,496	104.8
	연 면 적	117,134	41,924	35.8	800,815	642,550	80.2
계	건 수	8,762	8,475	96.7	111,149	122,524	110.2
	연 면 적	1,195,806	1,089,351	91.1	15,557,247	15,832,807	101.8

구조별 허가통계 및 전년대비

단위: 건 수: 건
연면적: 평방미터

구조별		년도별		11월		1-11월	
		'73	'74	대비%	'73	'74	대비%
철근철골조	건 수	882	787	89.2	10,000	8,614	86.1
	연 면 적	502,710	386,624	76.9	6,362,104	5,730,689	90.1
조적조	건 수	6,363	6,692	105.2	85,762	101,994	118.9
	연 면 적	546,087	596,734	109.3	7,942,555	8,989,358	113.2
목조	건 수	419	275	65.6	4,563	3,633	79.6
	연 면 적	22,183	17,175	77.4	283,709	225,849	79.6
기타	건 수	1,098	721	65.7	10,824	8,283	76.5
	연 면 적	124,826	88,818	71.2	968,879	886,911	91.5
계	건 수	8,762	8,475	96.7	111,149	122,524	110.2
	연 면 적	1,195,806	1,089,351	91.1	15,557,247	15,832,807	101.8

시도별 월별 허가 전년대비

단위: 건 수: 건
연면적: 평방미터

시도별		년도별		11월		1-11월	
		'73	'74	대비%	'73	'74	대비%
서울	건 수	1,797	2,434	135.4	39,242	44,569	113.6
	연 면 적	231,767	308,040	132.9	4,878,978	6,325,606	129.7
부산	건 수	1,606	1,473	91.7	15,411	16,943	109.9
	연 면 적	204,088	166,478	81.6	2,362,959	1,960,534	83.0
경기	건 수	1,336	1,174	87.9	11,932	13,488	113.0
	연 면 적	258,022	159,475	61.8	2,427,089	1,948,668	80.3
강원	건 수	578	74	12.8	2,988	1,703	57.0
	연 면 적	23,046	7,009	30.4	215,192	179,040	83.2
충북	건 수	163	227	139.3	3,379	3,822	113.1
	연 면 적	26,101	22,971	88.0	454,955	360,626	79.3
충남	건 수	201	430	213.9	4,181	6,611	158.1
	연 면 적	23,958	57,985	242.0	521,816	698,371	133.8
전북	건 수	265	266	100.4	3,693	3,640	98.6
	연 면 적	32,458	35,541	109.5	411,476	394,680	95.9
전남	건 수	542	350	64.6	5,717	6,800	118.9
	연 면 적	40,358	53,898	133.5	452,189	609,647	134.8
경북	건 수	1,202	1,120	93.2	15,269	15,251	99.9
	연 면 적	194,332	164,106	84.4	2,553,317	2,082,169	81.5
경남	건 수	769	710	92.3	7,623	7,876	103.3
	연 면 적	144,743	96,224	66.5	1,207,733	1,146,148	94.9
제주	건 수	303	217	71.6	1,714	1,903	111.0
	연 면 적	16,933	17,714	104.6	71,543	127,318	178.0
계	건 수	8,762	8,475	96.7	111,149	122,524	110.2
	연 면 적	1,195,806	1,089,351	91.1	15,557,247	15,832,807	101.8

建築界뉴 - 스

奢侈性建築許可에住宅債券消化

經濟長官會議는 庶民住宅建設擴大方案으로 建築抑制措置를 全面的으로 解除함과 同時に 奢侈性建物과 豪華住宅 建築許可時에 國民住宅債券을 消化케하여 庶民住宅資金造成擴大를 骨字로하는 住宅建設 促進法施行令改正案을 議決한다.

經濟長官會議가 24日 議決한 住宅債券消化方案을 보면 住居用 住宅의 경우 165㎡에 231㎡미만은 3.3㎡당 1萬圓의 債券消化하는것을 비롯해서 6百60㎡以上은 3.3㎡당 5萬圓을 消化해야하며 住居用 以外の 建物로서 劇場, 映画館, 카바레 등은 3.3㎡마다 1萬圓으로하고 鉄骨造의 경우에는 3萬圓 練瓦造및 市道別債券消化基準은 다음과 같다.

첨가매입대상	첨가 매입총액
• 건축허가 연면적 165평방미터이상(공동주택인경우는 세대당 연면적으로 하며 증축으로 인한 연면적의 증가로 165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때에는 73. 2. 26이전의 기존건물 연면적을 제외한 증가면적에 한하여 해당기준에 따라 첨가매입토록 한다) 가) 주거전용 건축물(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이 50퍼센트 이상에 한하여 주거전용으로 본다) 1) 165평방미터이상 231평방미터 미만. 2) 231평방미터이상 330평방미터 미만 3) 330평방미터이상 600평방미터 미만 4) 666평방미터 이상 나) 주거전용이외의 건축물(다만 공장의 경우는 인구 50만인 이상의 지역에 한하여 재무 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하는 교육용, 종교용,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축산업등에 쓰이는 건축물은 제외) 1) 극장·영화관·빠·카바레·요정 오락장 및 사치성 욕망용 건축물 2)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3) 연화조 및 석조의 건축물 4) 시멘트 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5) 관광사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호텔 다) 기타 유흥음식점 영업 및 음식점 영업은 허가(음식점 영업은 객석과 객실을 합한 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2) 각 도청소재지	3.3 평방미터 10,000 3.3평방미터 당 20,000 3.3평방미터당 30,000 3.3평방미터당 50,000 3.3평방미터당 10,000 3.3평방미터당 3,000 3.3평방미터당 2,000 3.3평방미터당 1,000 3.3평방미터당 1,500 150,000 100,000

3) 기타 지역	70,000
라) 유제품·마아가린 및 소트닝유, 식육제품, 봉조림 또는 병조림, 청량음료 및 당류 제조업 허가 1) 서울시·부산시·대구·인천 2) 각 도청 소재지 3) 기타지역 다) 여인숙업(연면적 165평방미터이상에 한한다.) 1) 서울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 2) 각 도청소재지	200,000 150,000 100,000 100,000 70,000 50,000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1) 주거전용 건축물	
건축물(토지포함)의 과세 표준액이	과세 표준액의
가. 1,000만원 이상	20 / 1,000
나. 2,000만원 미만	
다. 2,000만원 이상	30 / 1,000
4,000만원 미만	
다. 3,000만원이상	35 / 1,000
4,000만원미만	
라. 4,000만원 이상	40 / 1,000
5,000만원 미만	
마. 5,000만원이상 1억 미만	50 / 1,000
바. 1억 이상	60 / 1,000
2. 주거전용 건축물이외의 부동산	
과세 표준액이	과세 표준액의
가) 1,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20 / 1,000
나) 5,000만원이상 1억 미만	30 / 1,000
다) 1억 이상	40 / 1,000
나. 상속 보존	
과세 표준액이	과세 표준액의
1)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20 / 1,000
2) 3,000만원이상 1억 미만	30 / 1,000
1억 이상	50 / 1,000
다. 저당권 설정 및 이전	과세 표준액의
과세 표준액이 500만원이상	(다만 첨가매입 금액은 5,000만원 을 초과못함)

協會記事

本會 韓昌鎭 會長 歸國

本會 韓昌鎭 會長은 지난 12月 22日, 브라질에서 業務를 끝마치고 KAL機便으로 歸國했다.

建築士 業務의 報酬基準에 對한 公聽會 開催

지난 12月 26日 本會에서는 韓昌鎭 會長 主宰, 李圭福 總務理事 司會로 建築士業務의 報酬基準에 對한 公聽會를 開催했다.

本會 李丞雨理事의 建築士業務의 報酬改正案 說明에 이어, 同改正案에 對한 질의 및 意見을 交換했다.

특히 이날의 公聽會는,

- 1) 設計監理를 設計로 하여 그 안에 基本計劃立案, 基本設計, 實施設計와 監理를 두되,
- 2) 料率은 現實情에 맞도록 上向調整되어야 하고,
- 3) 屠宰場 및 其他 特殊工場의 種別策定 上向調整되어야 하며,
- 4) 現行 監定報酬料가 적어 監定을 拒絶하려는 事例가 많다고 지적.

報酬基準改正이 時急하다고 主張하고, 執行部에 이를 推進하도록 要請했다.



◇ 忠淸北道支部事務所 移轉

忠淸北道支部의 事務室을 아래와 같이 移轉 하였습니다. 故로 업무연락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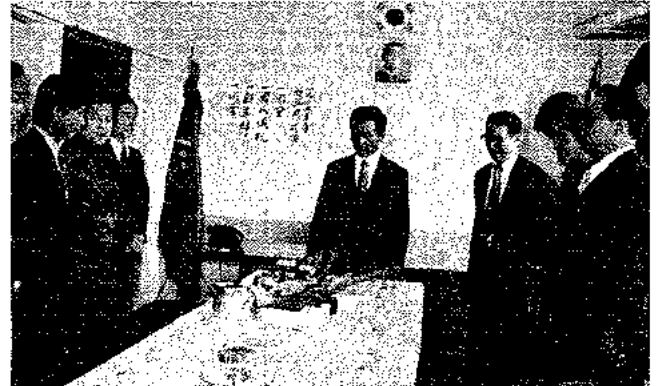
1. 移轉 地: 淸州市北門路 2가 116의 157
(III 淸州驛앞 新築建物 3層)
2. 電 話: 2752(변동없음)
3. 移轉日: '74. 12. 28.

'75年度 本協會 始務式 舉行

1月 4日 (11時) 本會 會議室에서

本協會 '75年度 始務式을 1. 4. (土) 11時, 本會 會議室에서 本會 및 서울市支部 任職員이 참석한 가운데 行해됐다.

이날 本會 韓昌鎭 會長은 新年辭를 通해 「..... 애쓰 보람, 고생한 보람, 참되게 살아온 보람, 그 보람의 결실을 위해 올해도 우리들은 보람있는 한해가 되자」고 말했다. 또 韓昌鎭 會長은 「.....過去를 거울 삼아 다시한번 보람찬 努力으로 우리의 使命을 銘心하고 모든 總力을 기울여 맡은 바 責務가 滿足되도록 애진하자」고 당부했다.



• 新年辭를 하는 韓昌鎭 會長

서울特別市支部

任職員 淸운양로원 위문

세 모 불우이웃돕기운동의 一環으로 지난 12月 20日, 서울市支部 任職員一同은 市内 중로구 淸운동 所在 「淸운양로원」을 방문하고, 金一封과 생황필수품 및 식료품을 전달코 잠시나마 호뜻한 人情을 교환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 위문품을 전달하는 서울市支部長 金萬盛氏와 任職員 一同

◇ 釜山直轄市支部 事務所 移轉案内

本協會 釜山直轄市支部 事務所가 아래 場所로 移轉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前住所: 釜山市 中区 光復洞 1街 61
2. 新住所: 釜山市 中区 東光洞 1街 1
(부산레파트內 釜山銀行 中部支店 二層)
3. 電話番号: 42-8584
4. 移轉日: '74. 12. 28.

月間協會動靜

(12. 1月)

第27回 理事会

11月 24日 13:30 本會會議室
議案:

- 1) 건축사업 개정건의안 확정건의
- 2) 감사패 수여 요청에 관한 건의 (부산시지부의)
- 3) 건축사업무의 보수기준 결의건의

出席:

總務理事: 李圭福
理事: 李丞雨
理事: 朴成圭
理事: 李興秀
理事: 成一永

第28回 (임시) 理事会

12月 13日(金) 15:00 本會會議室
議案:

- 1) 1975年度 各市道支部 予算一部 수정 승인의 건 심의
- 2) 1974. 11. 제명처분에 따른 재심 청구권 심의
- 3) 其他事項

出席: 總務理事 李圭福
理事: 李丞雨
理事: 朴成圭
監事: 康晋參
(서울시支部長) 金萬盛

第29回 理事会

12月 24日 14:00 본회 회의실

議案:

- 1) 各市道支部 任員취임 승인의 건 (정관 제50조)
- 2) 分所設置승인의 건
 - ㄱ) 제주도지부 서귀포 분소
 - ㄴ) 충남지부 영동분소를 폐쇄하고 옥천분소를 설치

ㄷ) 서울시지부 '74년도 서울에 산목간유용승인의 건

3) 其他事項

出席: 會長: 韓昌鎭
總務理事: 李圭福
理事: 李丞雨
理事: 朴成圭
理事: 李興秀
理事: 成一永
(서울시支部長) 金萬盛

'75 第一回 (임시) 理事会

1月7日(火) 15:00 本會會議室
議案:

- 1) 정관개정승인의 건
- 2) 其他事項

出席: 會長: 韓昌鎭
總務理事: 李圭福
理事: 李丞雨
理事: 朴成圭
理事: 李興秀
理事: 成一永
監事: 康晋參
(서울시支部長) 金萬盛

第7回 全国市道支部長會議

12月 26日(木) 15:00 本會會議室
議案:

- 1) 建築士業務의 보수기준 개정안 심의의 건
- 2) 其他事項

出席: 會長: 韓昌鎭
總務理事: 李圭福
理事: 李丞雨
理事: 朴成圭
理事: 李興秀
理事: 成一永
支部長: (서울) 金萬盛
(부산) 金圭泰
(경기) 鄭銀溶
(강원) 趙奎植
(충북) 鄭鎭億
(충남) 金鍾敏
(전북) 崔錫珪
(전남) 蔡奎鎧
(경북) 李根痒
(경남) 尹商鵬
(제주) 康奇汀

會員動靜

서울特別市支部

('74. 12. 9. 報告)

轉入會員

朴賢明 (京畿支部에서 轉入)

名稱: 三明建築設計事務所
所在地: 관악구봉천동399-4
TEL. 68-3557

登錄番号: 1-607

柳判烈 (慶北支部에서 轉入)

名稱: 신현대건축연구소
所在地: 영등포구신정동457
TEL. 63-8781

登錄番号: 2-362

金基完 (京畿支部에서 轉入)

名稱: 형진건축기술공사
所在地: 영등포구화곡동348-10
TEL. 60-3234

登錄番号: 2-94

閉業會員

박시익

名稱: 양지건축(株)
所在地: 동대문구신설동102의4
登錄番号: 1-588

閉業月日: '74. 12. 3.

林聖浩

名稱: 한진건축기술공사
所在地: 동대문구상봉동349-4
登錄番号: 2-137

閉業月日: '74. 11. 27.

金甲中

名稱: 대우건축설계사무소
所在地: 서대문구갈현동 391-14
登錄番号: 2-318

閉業月日: '74. 11. 3.

新入會員

李 殷 學

名 稱: 李殷學建築研究所
所 在 地: 城東區화양동10-14
TEL. 55-1530
登録番号: 1-616
免許番号: 1-85
入会日字: '74. 12. 34.

金 光 濟

名 稱: 廣場都市建築研究所
所 在 地: 鍾路區 彌雲洞 261
TEL. 72-1409
登録番号: 1-608
免許番号: 1-1451
入会年月日: 1974. 11. 2.

홍 선 창

名 稱: 매성건축연구소
所 在 地: 성동구논현동284-1
TEL. 52-7569
登録番号: 2-368
免許番号: 2-1658
入会日字: 74. 12. 27

梁 海 竣

名 稱: 진우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동대문구신설동76-67
登録番号: 2-370
免許番号: 2-616
入会年月日: 74년 12. 24.

梁 元 永

名 稱: 진일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영등포구신설동76-67
名 稱: 진일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영등포구신길동95-6
TEL. 69-7432
登録番号: 2-346호
免許番号: 2-434호
入会日字: 74. 7. 12.

金 容 在

名 稱: 광도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관악구봉천동399-1
免許番号: 2-1188
登録番号: 2-366
入会日字: '74. 12. 30.

事務所移転

金 輔 鉉

名 稱: 현대건축연구소
移 転 地: 관악구 봉천동 698-2
TEL. 69-0022
교 8247
登録番号: 1-314

李 喜 泰

名 稱: 李喜泰建築研究所
所 在 地: 서울·鍾路區苑西洞56
TEL. 75-4517
登録番号: 1-17
移転日字: 74. 12.

송 형 진

名 稱: 신탁건축연구소
移 転 地: 영등포구북산동44
TEL. 8-4003
登録番号: 2-187

秋 明 五

名 稱: 명진건축연구소
移 転 地: 영등포구동촌동山2-19
TEL. 63-5407
登録番号: 1-589

高 連 福

名 稱: 高建築研究所
移 転 地: 西大門區정릉2-2
TEL. 23-5692
登録番号: 1-350

安 先 求

名 稱: 安先求建築研究所
移 転 地: 종로구명륜동3-61
TEL. 75-8951
교 185
登録番号: 1-409

김 요 섭

名 稱: 매림건축
移 転 地: 영등포구영등동2가158
TEL. 62-5762
登録番号: 1-472

윤 주 현

名 稱: 내외건축
移 転 地: 관악구사당동 9-55

이 철 호

名 稱: 동광건축
移 転 地: 서대문구남가좌동53-8
TEL. 34-7549
登録番号: 2-330

이 철 재

名 稱: 한국건축
移 転 地: 마포구 신정동 45
登録番号: 2-125

이 상 욱

名 稱: 경도건축
移 転 地: 성동구반포동84-17
TEL. 54-0461
登録番号: 1-581

한 정 기

名 稱: 한도건축
移 転 地: 도봉구수유동191-35
TEL. 99-2030

정 채 응

名 稱: 봉진건축
移 転 地: 서대문구외주로1가155
TEL. 75-7987
登録番号: 2-201

閉事業會員

조 승 택

名 稱: 강희건축사무소
所 在 地: 중구봉래동 1가7
登録番号: 1-479
閉業日字: '74. 12. 19.

이 건 우

名 稱: 이전우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동대문구신설동89-134
登録番号: 2-342

死亡會員

박 현 명

名 稱: 삼명건축
所 在 地: 관악구 봉천동 399-4
登 録 番 号: 1-607
死 亡 日 字: '74. 12. 18.

轉入會員

심 정 행

名 稱: 행건축
所 在 地: 中 區 수하동 22
TEL. 28-7113
登 録 番 号: 1-613
轉 入 日 字: '74. 12. 11(濟州支部에서)

김 영 복

名 稱: 미화건축공사
所 在 地: 성북구 삼선동 5가 298-3
TEL. 93-2123
登 録 番 号: 1-606
轉 入 日 字: '74. 12. 30.(江原支部에서)

免許更新(2級에서 1級으로)

박 동 희

名 稱: 한영종합설계공사
所 在 地: 中 區 다동 131
TEL. 22-6453

登 録 番 号: 1-66

更 新 日 字: '74. 12. 20.

함 영 은

名 稱: 범한건축공단
所 在 地: 관악구 봉천동 399-6
TEL. 69-2579

登 録 番 号: 1-614

更 新 日 字: '74. 12. 27.

장 도 협

名 稱: 명진건축
所 在 地: 성동구 반포동 112
TEL. 54-0529

登 録 番 号: 1-615

更 新 日 字: '74. 12. 27.

電話番号変更 事務所移転

李 允 衡

名 稱: 그랜드建築研究所
移 転 地: 中 區 인현동 2가 73-1
TEL. 22-6302

釜山市支部

轉出會員(서울支部로)

李 珍 煥

名 稱: (旧) 東陽綜合設計研究所
(新) 昌林建築研究所
所 在 地: (前) 釜山市 中 區 中央洞
四街一九
(新) 서울特別市 中 區 明
洞一街五의一
TEL. 22-0536

登 録 番 号: 1-187

免 許 番 号: 1-1202

轉 出 年 月 日: 1974. 12. 12.

沈 載 爽

名 稱: 技術建築研究所
移 転 地: 서울特別市 東 大 門 區 幕
동 233-8

登 録 番 号: 1-60

免 許 番 号: 1-661

移 転 年 月 日: '74. 12. 4.

事務所 移転

박 충 명

名 稱: 박충명건축설계사무소
移 転 地: 부산시 동구 수정동 234
TEL. 42-4296

登 録 番 号: (중구) 2-16

移 転 日 字: '74. 12. 1.

윤 영 명

名 稱: 성일건축설계사무소
移 転 地: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338
TEL. 53-0627

登 録 番 号: (동래) 2-48

移 転 日 字: '74. 11. 19.

忠南支部

新入會員

권 윤 근

名 稱: 제일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천안시 오룡동 4
TEL. 2543
登 録 番 号: (천안) 2-2
入 会 日 字: '74. 12. 21.

全北支部

新入會員

최 낙 운

名 稱: 삼중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全州市 전동 2가 69
TEL. 2-2377

免 許 番 号: 2-569 免

登 録 番 号: 2-26

入 会 日 字: '74. 12. 30.

박 철 웅

名 稱: 아도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25
TEL. 964

免 許 番 号: 2-1642

登 録 番 号: 2-27

入 会 日 字: '74. 12. 30.

全南支部

新入會員

千 渡 吉

名 稱: 신일건축연구소
所 在 地: 광주시 동구 대인동 190-6
TEL. (2) 6539
登 録 番 号: (광주) 2-44
免 許 番 号: 2-1316
入 会 日 字: '74. 12. 23.

全南支部

死亡會員

金 大 天

名 稱：建築士金大天事務所
所 在 地：羅州郡羅州邑錦湓洞
23

登録番号：2 - 7

死亡日字：'75. 1. 7.

慶南支部

転入會員(釜山支部에서)

金 東 柱

名 稱：울산건축설계사
所 在 地：울산시옥교동231
登録番号：(울산) 2 - 8 호
免許番号：2 - 1167호
転入日字：1974. 11. 28.

安 八 敬

名 稱：남일건축설계사
所 在 地：(前)釜山市中区南浦洞
1 街 8
(新)慶南南海郡南海面
남변동417 - 3
TEL. 139
登録日字：2 - 1 (남해)
免許番号：2 - 1166
転入年月日：'74. 12. 16.

洪 宰 東 (2級에서 1級으로)

名 稱：宰東建築設計社
所 在 地：忠武市西湖洞177 - 19
TEL. (충무) 2504
登録番号：(충무) 1 - 1
免許番号：1 - 1480
変更日字：'74. 12. 12.

濟州道支部

事務所移転

康 殷 弘

名 稱：金星綜合設計公社
移 転 地：濟州市2 徒一洞1410 - 1
登録番号：1 - 4
移転日字：74. 12. 27.

公 告

會員諸位

建築物의 건축억제해제

- 1) 건축물의 건축억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해제할 것을 지시하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가) 건축억제해제대상건축물：건축 444. 1 - 3536 (74. 3. 4.)에 의한 건축억제대상 건축물중 건축 444. 1 - 23897 (74. 12. 14)로 일차 건축억제해제된 건축물이외의 건축물(각종 흥행장「극장, 영화관, 뽀, 카바레, 요정」사치성욕장, 집회장, 오락장, 전시장, 백화점, 관람시설, 4층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상의 단독주택, 세대당 연면적 132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나. 건축억제해제시기：1974. 12. 31.
- 2) 건축허가시 주택채권의 첨가매입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7486호, 1974. 12. 31. 개정)에 의한 것.

건 설 부 장 관

編輯後記

◇ 1975年은 本協會가 特殊法人으로 發足한지 꼭 10年이 되는 해이다.

10年이면 江山도 變한다는데…….

그동안 우리의 都市도 住宅도 그 樣相이 많이 달라졌다.

놀랄 정도로 변했다.

아울러 우리 會員의 수도 10倍以上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創立 10週年을 맞는 뜻은 會員의 수가 그만큼 늘었다는데 있지 않고, 우리는 그만큼 成長했다는데 있으며 그만큼 낡았다는데 있지 않고 그만큼 새로워졌음을 뜻한다.

고로 우리는 成長한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創立10週年을 맞는 이 새해의 希望과 기쁨을 안어 보자.

◇ 巨視的으로 볼 때 분명히 建築士의 前途에는 빛과 希望이 있다.

工高, 工專, 工大에서 우리들의 後輩, 二世들의 눈빛은 영롱하게 빛나고 있지 않는가.

乙卯 새해의 우리의 決意는 和解와 團合으로 一貫된 意志로서 우리의 맡은 使命에 盡力하자. 이것만이 1975年은 우리들의 多福한 한 해가 될 것이다.

◇ 이번 号(通卷72号)부터는 表紙의 內容을 西洋 建築樣式의 比較를 各部分으로 分類해서 시리즈式으로 다루게 되었다. 建築史의 研究資料로서도 좋을것 같다.

◇ 本誌의 發展을 위해 지난 한해 동안도 玉稿를 執筆해 주신 諸位와 愛讀해 주신 諸賢의 健勝과 平安으로 多福한 한 해가 될 것을 빈다.

乙卯元旦 編輯者 一同

● 本誌에서 表明된 個人의 意見들은 반드시 本協會의 公式見解와 一致하는 것은 아닙니다.

發行人兼編輯人：韓 昌 鎮

登 錄 番 号：第 라-1251号

登 錄 日 字：1967年 3月 23日

通卷 第72号 1975年 1月 25日 發 行

發行所：大 韓 建 築 士 協 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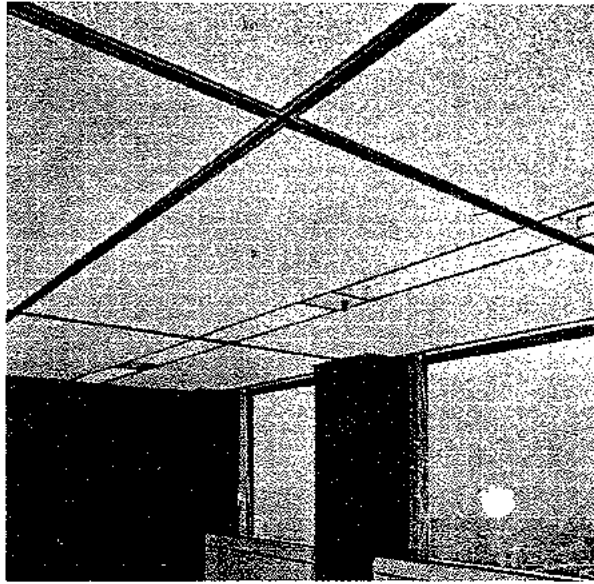
서울特別市鍾路區瑞麟洞89

☎ (73) 9491 · 9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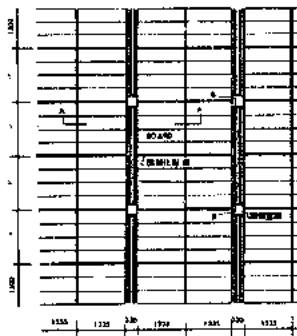
印刷所：東 一 精 版 社

〈非 売 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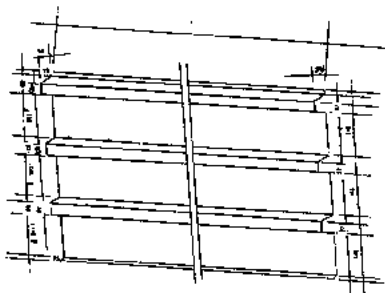
不燃材 天井 에 革新!



UNIT PANEL SYSTEM CEILING
with W. T. BAR & S. S. BOARD



KEY PLAN



덱크프레이트 상세도

실용신안 제 9618호
의장등록 제 12387호

O-BAR크립식과 S.S.보-드
I-BAR크립식과 미네랄텍스

- 1) 1,000℃ (火災溫度)에서 타지 않습니다.
- 2) 흡음성과 흡수성이 좋습니다.
- 3) 휘거나 처지지 않습니다.
- 4) 곰팡이가 끼지 않습니다.

■ 施工方案内 ■

1) 輕量鉄骨天井틀

O-BAR 크립식
I-BAR 크립식 } 과 S.S.보-드
T-BAR 크립식 } 미네랄텍스
H-BAR
M-BAR 식 과 其他텍스보-드

- 2) 후랏쉬도아 스틸슬라이딩
이동칸막이 슬라이딩월
스틸 샷다 스파드레일

- 3) 덱크프레이트
키스톤프레이트

- 4) 벤딩, 커팅, 슬릿팅, 任意巾長
의 鉄板加工物

実績30年!
奉仕하는 새기술

新協建設工業株式会社



本社・서울 城東區 水洞2街289-10 ☎ 55-3887
市内連絡事務所 ☎ 27-0053, 0054